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

- 기회와 도전 -

제주발전연구원

보고사

머리말

21세기 제주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2002), 세계평화의 섬(2005), 특별자치도(2006), 그리고 세계자연유산(2007) 등으로 잇따라 지정 또는 등재되었다.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4대 비전이자 프로젝트는 국내 어떤 지자체에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초유의 기획이다. 그런 만큼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도약발전’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제주 발전을 위한 4대 거대 프로젝트는 아마도 유사 이래 제주도민들에게 주어진 최초의 그리고 가장 큰 기회일 것이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종착역에 당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다. 사실, 4대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의 기획과 사업 추진은 지난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다양한 비전들을 어떻게 상호 연계 및 통합시키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 책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제주와 한반도, 동북아와 세계 속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어떻게 제주도민의 경제적 삶의 질 향상과 연계시킬 것인가의 차원에서 ‘제주형 평화산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평화산업은 평화를 주제로 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동시

에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평화가 더욱 확산되어 나가는 평화번영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특화된 산업이다.

이 책은 제주라는 지역적 조건과 환경에서 육성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이른바 ‘제주형 평화산업’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를 체계화하고 구체화시켜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들을 집약해 놓았다.

우리는 이 책에서 ‘제주형 평화산업’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제주도의 주력산업의 하나인 관광을 삼려관광(三麗觀光)－역사문화관광, 생태관광, 크루즈관광－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평화 구현과 연계시키는 평화관광산업이다. 둘째, 이른바 삼지산업(三持産業)으로서 국제금융, 청정에너지, 국제회의 등의 지속 가능한 평화기반산업이다. 셋째, 기존의 대북지원 및 교류를 경제협력 수준으로 확대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 넷째, 폐교의 평화교육적 활용과 피스아일랜드스쿨, 그리고 그 외 다양한 평화 관련 사업 등이다.

이 연구의 기본 구상은 세계화와 동북아 정세 및 한반도 상황을 거시적 틀로 하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와 환경, 제주도민의 의식과 간절한 바람을 미시적 틀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와 미시를 연계·통합하는 틀 속에서 이 책은 세계와 동북아 속의 제주의 위상과 한반도 분단 상황 하에서의 제주의 역할, 제주 지역사회의 평화와 번영,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담고 있다.

‘제주형 평화산업’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도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

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이들 참여자들은 단순한 전문지식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평화라는 이상이자 가치와 제주라는 지역적 환경과 조건을 상호 연계시키면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문제의식들을 풀어가고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평화변영의 동북아구상의 맥락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과 평화산업의 의의에 대해 논의했고, 제2장 제주의 평화비전과 평화산업에서는 제주의 4대 미래 비전을 제주의 평화비전과 결합시키면서 제주 평화산업 구상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히로시마, 오키나와, 오스나브뤽, 제네바, 유네스코 지정 평화도시 등 해외 평화도시 사례와 이들 평화도시들의 성공적인 평화산업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의 논의는 해외 평화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화산업의 선진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적실한 평화산업 구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4장 제주 평화관광산업에서는 관광산업을 최근 새롭게 변화되는 대안관광의 맥락과 접목시키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관광을 통한 평화’와 연계시키는 평화관광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평화관광산업은 크게 세 가지 범주이다. 첫째, 고통과 질곡의 제주 역사와 평화의 문화를 관광의 맥락에서 재해석한 ‘역사문화관광’ 둘째, 세계자연유산으로 대표되는 천혜의 제주 생태환경을 지속 가능한 책임 있는 관광의 맥락과 연계시키는 ‘생태관광’, 그리고 크루즈를 통해 남북한·동북아세계의 평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크루즈

관광’ 등이다. 이들 세 가지 범주의 관광을 ‘제주형 평화관광산업’으로 제시하면서, 이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 및 프로그램, 또는 발전 방안 및 제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제주 평화기반산업에서는 국제금융, 청정에너지, 국제회의 산업을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새로운 대안 산업이자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기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유치, 역외금융에 특화한 제주국제 금융센터의 추진, 서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복지금융 등을 통해 평화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산업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국제금융산업’, LNG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인 바이오디젤산업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청정에너지산업’, 그리고 국제교류 연계망 구축 및 확대 사업을 통해 평화와 경제를 동시에 확보하는 ‘국제회의산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6장 제주 남북경제협력사업에서는 평화와 경제의 이중주로 상징되는 평화경제론의 맥락에서 제주가 남북한 대립을 교류협력을 통해 해소하면서 남과 북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제주의 다양한 남북경제협력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제주기업의 개성공단 투자, 마늘 임가공 사업의 업그레이드, 제주산 양돈협력 사업, 북한산 모래 반입, 제주와 북한의 물산전시회 및 특산물 구상무역, 제주와 북한의 관광협력사업을 향후 추진 가능한 제주의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제안하고 있다.

제7장 평화교육과 기타 평화사업에서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제주 지역의 폐교를 평화교육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청소년 평화

체험·수련, 요가명상 센터, 생태체험학습원, 주말 학교, 청소년 영화 캠프, 교원 휴양 시설로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피스아일랜드스쿨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평화대학을 제주에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화대공원사업, 기존의 제주영화제를 세계 섬영화제와 결합한 제주 평화영상제, 제주평화총서와 국제저널의 발간 및 외국어 신문과 방송국 설립 등과 같은 평화저널리즘 사업, 세계 평화재판소의 조직 등을 평화사업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주형 평화산업’은 제주의 역사문화환경을 토대로 기존 제주의 주력산업과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상호 결합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한반도-제주도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추진되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을 통한 평화의 창출 및 확산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성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효과가 제주도민의 평화로운 삶과 경제적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주형 평화산업’의 청사진은 아직은 가능성 차원에서의 기획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더욱 구체화·체계화하고 더 나아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전 과제들이 남아 있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지원, 특별자치도의 추진 의지와 역량, 구체적인 ‘제주형 평화산업’ 프로젝트의 기획, 분야별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내부의 공감대 확산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제주특위(위원장 고충석)가 2007년 5월~11월 동안 동북아시아대위원회(위원장 이수훈)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김태환)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경택)

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소장 양길현)에게 위탁하여 수행된 “제주의 평화비전과 평화산업 추진전략 구축사업” 프로젝트를 새로운 체제로 편집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제주의 미래 발전에 대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필자들은 앞으로 이 연구결과가 ‘제주형 평화산업’에 대한 담론의 틀이 되고 더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도민과 학계 및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생산적이고 건전한 토론이 향후 ‘제주형 평화산업’을 더욱 체계화·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4월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머리말	3
-----------	---

제1장 서론 13

1. 평화번영의 동북아구상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 13
2.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산업의 의의 16

제2장 제주의 평화비전과 평화산업 20

1. 제주의 평화비전 20
2. 제주 평화산업 23

제3장 해외 평화도시 45

1. 평화도시의 정의 45
2. 평화도시의 사례 45
3. 평화도시의 평화산업 및 유엔기구 유치 54
4. 시사점 66

제4장 제주 평화관광산업 67

1. 평화관광산업의 모델 67
2. 역사문화관광 75
3. 생태관광 103
4. 크루즈관광산업 126

제5장 제주 평화기반산업147

1. 국제금융산업 147
2. 청정에너지산업 177
3. 국제회의산업 196

제6장 제주 남북경제협력사업 209

1. 인도적 지원에서 경제 협력으로 209
2.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10년의 평가 210
3. 제주도 남북교류협력 로드맵 216
4. 향후 제주도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추진 모색 218

제7장 기타 제주 평화사업 226

1. 평화교육 226
2. 평화대공원사업 243
3. 세계평화섬영상제 245
4. 세계평화재판소의 조직 252
5. 평화저널리즘 사업 253

제8장 정책 대안 256

1. 삼려관광(三麗觀光) 257
2. 삼지산업(三持産業) 261
3. 남북한 교류협력 267
4. 기타 평화사업 268

참고문헌 273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

-기회와 도전-

제1장 서론

1. 평화번영의 동북아구상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번영의 동북아 구상’은 동북아 지역에서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함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려는 대한민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이자 비전이다. 참여정부의 동북아구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영역에서 추진되는 발전 전략이 상호 연관되고 유기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구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발전 전략이다. 동북아 역내 국가 간에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보다 조화로운 지역질서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세계사적 대세에 부응하여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등 역내 국가들과 정·경제·문화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보다 많은 교류를 통한 협력과 상호의존의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동북아 구상’과 관련하여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지방 수준에서의 제약과 어려움을 감안하면서도 인식의 전환과 사고의 지평 확대를 통해 동북아 지역과의 연관성과 상호성을

확대하고 활용하기 위한 거시적 안목과 모색이 요청된다.

둘째, '동북아 구상'은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으로부터 시작하여 남북한 국가연합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이다.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상황이라는 민족적 비극과 적대적 상호의존을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지역 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선결조건인 동시에, 동북아 지역 내 다자간 평화번영은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통합의 다리 역할을 촉진하는 토대가 된다. 동북아와 한반도의 상호성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동북아 6개국 간에 2+2, 2+4, 5+1 등의 다양한 교류협력 영역을 창출하고 확대하고 활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셋째, '동북아 구상'은 혁신과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협력과 단합을 고양함으로써 보다 한 차원 높게 국리민복을 증진시켜 나가려는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전략이다. 대외적으로는 교역국가를 통해 그리고 대내적으로 사회투자국가를 통해 21세기 국가발전을 꾀해 나감에 있어 물류와 금융, R&D 등에서 대한민국의 인프라 구축과 대외연계망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의 잠재적 역량을 토대로 이를 발전시키고 활용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의 국내적 균형발전과 함께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과 같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능동적인 지지와 참여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국민적 합의는 질 높은 이득의 균등배분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한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선순환적으로 담보해 나가는 이른바 참여의 확대와 이득의 균분을 어떻게 도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적인 고려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공화주의의 고려를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시도로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어떻게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 4자간의 협력과 조정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확대하고 활용할 것인가 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동북아시대 구상’이 정부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 3자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이고 거시적 관점에 더 기울어있다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제주 지방의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과 제주지역 사회라는 4자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적이고 미시적 관점에 더 치우치는 차이가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제주지역 사회가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과 제주지역 사회에 평화번영의 선순환 내지는 동전의 양면성을 증진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인권존중, 교류협력, 청정환경, 사회정의, 안전방재, 경제발전, 교류협력 등을 통해 인간안보를 실현해 나가려는 이상적 목표와 관련하여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동북아 구상과 연결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 수준의 창의적인 평화산업을 구상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2.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산업의 의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평화를 주제로 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평화가 더욱 확산되어 나가는 평화번영의 선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으로 는 평화의 창출-유지-확대에 기여하는 제반 영역에서의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그러한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건이나 혹은 결과적 부산물로서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평화의 창출-유지-확산을 중시한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다음과 같은 상호 연관된 3가지 측면의 평화관을 동시에 아우르는 복합평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가운데 특히 평화번영의 선순환 틀은 평화산업을 창출하고 확대하고 활용해 나감에 있어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어떤 형태의 평화도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존재하는 데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쟁과 폭력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에서 출발한다. 일방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는 불가피하게 타방의 안보위협을 야기한다는 안보 딜레마에 주목하면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는 소극적 평화의 기본적 전제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를 넘어서는 보다 확장되고 다면적인 ‘인간안보’를 추구한다.

둘째,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국제정치에서의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서 일상적인 삶의 영역과 문화적 차원에서의 관용 및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가 보다 많이 실현되는 사회구성을 지향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9·11 테러에서 보듯이, 군사적 강국도 언제든 안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평화의 섬은 일국 내는 물론이고 지구적 차원에서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강조해 마지않는 적극적 평화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적극적 평화만이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라는 측면에서 생명과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많은 차별철폐와 균등분배 및 사회정의의 실현에 동참하며, 그럼으로써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의 부재’로 까지 나아가는 ‘세계평화의 섬’은 이상이자 목표로서의 적극적 평화를 지향한다.

셋째,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또한 신자유주의 이념의 전 지구적 대세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평화와 번영간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평화의 목표와 가치를 보다 실현 가능한 것으로 자리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평화를 통해 번영을 도모하고 번영을 통해 평화를 이룩하는 평화와 번영 사이의 동전양면성을 어떻게 창출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제주의 평화산업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특히 지방의 수준에서 제주와 한반도 및 동북아를 오가는 사람-상품-자본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대해 나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단순히 경제적 돈벌이만이 아닌 평화와 공동번영이 함께 하는 ‘세계평화의 섬’ 지향을 통해 창조적으로 새롭게 성찰되고 조명되며 추진되는 블루오션이 되기를 희망한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인 경제 살리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고 출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 브랜드화를 마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다. 물론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는 무의식적으로 소비자의 호평을 이끌어 내려는 이윤추구의 기업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제주가 세계인들에게 폭력-무질서-억압-가난-더러움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아닌 화해-인권-교류협력-청정-복지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련의 정책과 사업 및 운동의 터전으로서 자리하고 그렇게 인식되는 평화 브랜드화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표이자 가치이다. 평화 정착과 평화 브랜드화는 단순한 홍보 전략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술 상으로만 평화를 논의하고 실제와는 다른 외형적 평화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지역의 평화로운 삶을 토대로 하여 이웃에까지 평화를 창출-유지-확산하려는 제주도민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일련의 노력이다.

예를 들어,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에서 평화관광이라고 하면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다파는데 그치는 관광 상품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관광 수요자 내지는 향유자 관점에서 평화관광을 어떻게 특화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킬 것인가에 관한 지혜를 모으려는 노력이다. 평화관광을 제공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을 염두에 두면서도 동시에 평화관광에 참여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평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평화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것, 그리고 평화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이루자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별히 제주에서 평화관광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청정자연과 제주도민의 건강하고 정의로운 삶의 양식 그리고 제주와 다른 세계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호혜적인 교류협력과 주고받기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때, 그 결과로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세계인에게 평화의 섬으로서 각인되고 평화 브랜드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출발한다.

제2장 제주의 평화비전과 평화산업

1. 제주의 평화비전

1) 제주 평화비전의 근원

제주 평화비전은 탐라국 등의 건국신화, 설문대할망 등이 표출한 양성평등의 사상과 제주형 가족구조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상부상조의 조양정신, 그리고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는 삼무의 전통에서 출발한다. 1998년 제주시의 신산공원에 제주도의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마을에서 가져온 돌들을 쌓아 올린 4·3 방사탑의 화해정신은 4·3의 갈등과 희생을 넘어 상생과 화해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4·3 평화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제주는 1991년 이래 세계정상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냉전 해소는 물론 남북평화, 동북아시아 평화를 논하는 교류협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교류협력의 평화비전을 떠맡고 있다. 그리고 2007년 6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2002년 UNESCO 한라산 등의 생물권 보전지역(Halla Biosphere) 지정과 더불어 제주의 수려한 자연환경 그 자체가 제주 평화비전의 근원임을 말해준다.

2) 제주의 4대 미래 비전의 결합

제주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2005년 세계평화의 섬, 2006년 특별자치도, 그리고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으로 잇따라 지정 또는 등재됨으로써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4대 비전이자 프로젝트가 동시적으로 병행 추진되고 있다. 제주의 4대 대형 프로젝트는 그만큼 그동안 제주의 가치가 충분히 인식·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저간의 반성을 함축하지만, 동시에 이는 그만큼 21세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제주에 부과하는 과제와 생존전략이 절박하고 긴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제주가 직면하는 ‘국제자유도시-세계평화의 섬-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의 4대 비전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자유도시는 2002년 제주도의 지정학과 지경제적 위치 그리고 제주도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과 탈 한반도라는 섬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의 전초기지이자 동북아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시작되었다.

둘째, 세계평화의 섬은 2005년 제주도가 ‘세계가 하나 되는 곳’으로 안전-평등-상호부조의 3무 정신을 바탕으로 4·3의 아픔을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인권-상생의 경험 그리고 남북한 교류협력을 포함한 동북아 국제평화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특별자치도는 2006년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례 조치로 제주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보다 성공적으로 추

진해 나가도록 하려는 법·제도적 기반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자연유산은 2007년 UNESCO 세계유산위원회가 제주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함에 따라 제주도는 세계적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보존과 이용의 조화'라는 지속 가능한 환경평화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4가지 미래비전과 연관할 때 제주형 평화산업은 다음과 같이 정치경제연계론, 제3의 길, 동북아 지향, 복합다기능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정책지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제주형 평화산업의 구상과 창출 및 확산은 이와 같은 4가지 차원의 정책지향을 어떻게 동시적으로 담아낼 것인가의 문제의식과 활용방안에 주목한다.

첫째, 정치경제연계론의 정책지향에서 볼 때, 종래에는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일련의 정책구상과 미래 비전에는 평화와 번영을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정경분리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산업은 정치·군사적 평화가 확보되어야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며 경제적 번영이 확대될수록 정치·군사적 평화가 탄탄하게 구축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정치와 경제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연계론에서 출발한다.

둘째, '제3의 길'의 정책지향에서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일차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기초하여 기업 활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인프라와 법·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면세, 노비자, 영어상용화 등 '선택과 집중의 규제완화'라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평화의 섬을 동시에 목표로 함에 따라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주의적

패러다임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 정책과는 다른 제주형 제3의 길을 특화시키고자 한다. 제3의 길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세계화’, 다시 말해 ‘사회통합적 세계화’ 또는 ‘낙오자 없는 세계화’(globalization without losers)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세계화란 ‘이중의 선순환,’ 다시 말해서 대외개방과 대내개혁의 선순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핵심전략으로 한다. 경제정책은 동반성장, 지식기반경제, 고용창출을 주요 목표로 삼으며, 복지정책은 경제-고용-복지정책을 연계시키는 적극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사회투자를 주요 목표로 한다.

셋째, 동북아지향의 측면에서 제주형 평화산업은 다원주의와 상호의존의 틀 속에서 전개되는 세계화의 ‘시공간 압축’에 대응하여 제주섬과 한반도-동북아-세계 사이의 협력적 매개와 연관성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21세기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복합다기능 측면에서 제주형 평화산업은 국제관광지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금융, 물류, 비즈니스에 덧붙여 교육, 의료, 국제회의 등 복합다기능의 국제평화도시를 지향한다.

2. 제주 평화산업

1) 제주 평화산업의 SWOT 분석과 범주

2007년의 시점에서 제주 평화산업의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요약 정

리해 보면 <그림 2-1>과 같다. 제주형 평화산업의 가능성은 청정자연과 지정학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와 시장 제약의 약점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로 요약된다.

강점(Strength) • 제주의 청정자연과 준 아열대성 기후의 활용 가능성 • 제주의 지정학: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제평화교류 거점 • 제주도민의 평화-진보 의식과 독특한 섬문화 • 국제관광의 인프라: 숙박시설, 컨벤션, 도로망 정비	약점(Weakness) • 인구 부족에 대한 시장제약 • 평화산업 개념의 모호성 및 비수익성 인식 • 제주도민의 배타성과 일자리 미비에 따른 인재 유출 • 물류비용 부담 등에 따른 제조업의 취약성
기회(Opportunity) • 특별자치도와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정부의 지원책 강화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등재 등을 통한 국제적 인지도 제고 •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한 교류협력의 상승 추세 • 위기돌파 및 단합된 역량강화에 대한 제주도민 스스로의 필요성 인식	위협(Threat) • FTA로 인한 감귤 등 1차산업 위기 • 토착자본의 부족과 고가격의 토지 • 외국어 능력 등 국제화 기반 취약 • 국제항공운송 체계의 부족

<그림 2-1> 제주평화산업의 SWOT 분석

제주평화산업의 SWOT에 의거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평화관광, 평화기반산업, 평화교육 및 기타 제주에 특화될 수 있는 평화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아름다움에 대한 재발견으로서의 제주 삼려관광(三麗觀光)은 역사문화관광과 생태관광 그리고 크루즈관광으로 정립된다. 제주평화비전과 관련하여 지속가능

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삼지산업(三持産業, Three Sustainability Industry)으로서 청정에너지, 국제금융업, 그리고 국제회의산업을 선정한다. 지정학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제시하고 또 ‘세계평화의 섬’의 토대로서 피스아일랜드스쿨과 폐교의 평화교육적 활용을 다룬다. 이외에도 평화대공원 사업과 평화영상제, 세계평화법원의 조직 그리고 평화저널리즘 사업 등을 제주 평화산업 발전을 위한 문제의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삼려관광(三麗觀光)

(1) 왜 관광인가?

고부가가치형 미래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은 국가간의 무역마찰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거의 유일한 산업영역이라는 점에서 관광을 매개로 한 국제평화협력은 그 중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크다. 관광은 상호간의 교류가 전제되는 산업영역이기 때문에 각국의 개별적인 관광발전 방안 못지않게 지역간 관광산업의 연계 및 공동 마케팅 전략 등과 같은 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다.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관광을 매개로 한 국제협력교류의 확대와 국제평화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 4·3평화공원, 평화대공원 공원, 제주 물공원 등의 조성, 남북평화네트워크와 국제교류활동의 전개, 평화실천사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아울러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이 요구되며 관광산업과 연계

한 '세계평화의 섬' 홍보에 있어서도 시너지 효과의 추구가 가능하다.

관광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이들 전략사업들을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세계화, 정보화, 교통수단 발달에 의한 외래 관광객의 증가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대변화에 맞춰 관광활성화의 실천적 방안 또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관광지로서 제주의 살 길 가운데 하나는 제주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제주에 왔다 가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나라의 이질적인 문화가 제주에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돈을 쓰고 가기만 바랄 뿐 이들에게 매력적인 제주를 보여주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2) 매력적인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매력적인 국제관광도시의 가능성으로서 크게 3가지를 제시한다. 제주에 와야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평화관광의 내용은 제주형 매력이 담겨 있는 '제주의 독특한 평화문화 발굴 및 재창조', '4·3 역사의 복원과 승화',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보존과 활용' 등이다.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담아내는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제주를 찾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주 4·3의 역사를 승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평화관광의 성패는 어떻게 관광객 수요자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4·3평화관광의 경우 두 가지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는 갈등과 학살이 일어났던 비극의 4·3을 제주도민 스스로 해결한 평화운동의 현장으로 인식하는 신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문화를 신자산으로 인식하여 평화산업이라는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생태관광의 가능성으로는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저간의 계기와 배경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거문오름 용암동굴 계-성산 일출봉을 잇는 지역으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에 이르는 188.4km²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창의적 평화관광으로의 재조정이 요구된다. 생태관광의 내용은 유네스코에 의해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2007년 유네스코의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세계자연유산 지정 등의 국제적 인증을 활용하는 한편, 예래동 생태마을과 같은 자연친화적 모델의 제시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

(3) 평화관광을 위한 녹색화와 지속가능한 관광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제주는 평화관광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여 골프장, 리조트, 호텔 등을 짓는 기존의 단지형-설비형 관광을 재조명한다. 4·3 역사관광에 이어 세계자연유산관광-역사생태관광-탐라문화관광-국제회의관광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 중심의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관광정책이 요구된다. 희귀성과 유일성을 바탕으로 한 제주관광의 가능성으로서 세계평화의 섬의 개념과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함께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그 하나의 해답이다.

자본에 의한 개발이나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의한 단지 조성에만

기대지 않고 제주에서 관광에 종사하는 업자들뿐만 아니라 관광객 소비자의 의견과 기대가 함께 고려되고 반영되는 참여관광이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4) 크루즈관광

기존의 크루즈관광산업은 기항지를 통한 관광의 개념을 강조하고 수익창출에 목적을 둔 데 반해, 평화 크루즈관광은 크루즈를 통해 남북한-동북아-세계를 잇는 상호교류와 이해증진을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한 수익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책에서는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평화 크루즈관광을 이용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및 제반 규정 보완을 제안하고자 한다.

크루즈관광은 일반여행과는 달리 특별관심여행(Special Interest Travel: SIT)의 한 분야로 분류되며, 지금까지는 일반 패키지여행 또는 위락추구 여행에 비해 장기 선박여행에 관심이 있는 일부 계층만이 선호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크루즈여행 수요는 일반여행을 경험한 계층이 차기여행상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관광상품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크루즈관광의 평화산업적 의의는 세계인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새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크루즈관광산업은 평화 브랜드를 활용한 단순한 경제적 수익 창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변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됨으로

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견인차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중·미관계가 양국 여행시장을 개방하여 스포츠와 국제회의 등과 같은 국제적 교류협력을 통해 개선되었고, 중국 본토와 대만 역시 오랜 적대적 관계를 관광시장 개방으로 개선했으며, 북아일랜드가 30년 지역분쟁을 끝내고 경제활성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 중의 하나도 관광이었다. 이런 외국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크루즈관광산업과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은 평화변영의 동시적 달성을 가능케 하는 유망한 평화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제주의 자연적 여건, 개인소득 증대와 휴가 중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남북한 간의 밀도 높은 교류협력과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남북한 간 정치·외교적 여건, 한국 해양산업의 높은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크루즈관광산업은 유망한 관광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크루즈관광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및 정책을 마련하여, 기존 항구에 전용터미널이나 도킹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선상내 카지노업 허가기준 개선과 면세점 운영 등을 위한 법률적 지원 및 제도적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주외항 개발을 통해 크루즈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크루즈관광산업을 제주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 남부의 화순-강정-위미항 중 한 곳에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관광유람선을 이용하여 평화관련 도시들을 순방하는 이른바 평화크루즈사업은 태평양을 향한 관문인 제주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세계평화의 섬’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부

분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한 국내외적으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환경재단과 부산시가 평화크루즈사업을 시행한 경험 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는 방법과 제주의 독자적인 평화크루즈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획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08년 여름 북경 하계올림픽과 연계하는 방안, 제주-오키나와-남경-대만의 4개 지역 평화운동가들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태 이므로 이를 활용한 제주-오키나와-대만-남경의 평화크루즈, 그리고 오키나와-제주-하이난-발리를 잇는 평화관광크루즈, 또 제주해녀의 아시아 개척로를 연계시킨 제주해녀의 평화보트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5) 몇 가지 제언

평화관광은 기존의 제주관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차원에서 출발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자비용이 클수록 제주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국가재정이나 대자본에 의존하게 되면서 제주도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심 이외의 지역에서 각기 차별적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관광자원을 소규모의 녹색화로 개발해 나갈 필요성과 함께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벨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화관광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평화박물관과 모슬포 전적지 그리고 제주국제평화센터(또는 평화와 관련한 테마를 추가할 경우)를 연

결하는 평화관광프로그램을 관람할 경우, 패키지 관람요금화를 도모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평화관광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대책의 강구가 요청된다. 일상생활에서의 마을 돌아보기를 통한 평화관광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의 관광이 자연풍광과 문화체험에 덧붙여 생활체험을 덧붙이는 관광자원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원단지와 같이 풍력을 이용한 청정에너지단지를 견학하여 이를 돌아보면서 제주의 청정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향후의 비전을 알려주는 것도 평화교육의 일환이 된다. 또한 특정한 마을을 태양광마을로 특화하여 실생활에서 태양광을 활용하여 어떤 이점과 마을가꾸기가 가능한지를 이해시켜 주는 관광홍보 안내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정자연과 연결된 녹색관광의 하나로 도시 숲 설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내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숲 공원과 도로변 가로수의 특화 등 녹색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감에 있어 마을 주민의 참여와 제주 지역 내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범도민적 녹색운동은 제주도민의 지연사랑과 녹색 삶의 표출이자 친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관광객의 자투리 시간을 꼬집어내는 관광자원이다.

3) 삼지산업(三持産業)

(1) 평화금융

가) 왜 금융인가: 국제자유도시화에 대한 점검

제주가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지

향한다는 것은 국경 없는 시장경제가 관철되는 금융을 통해 국제적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가는 데 제주도가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시장의 효율성을 상징하는 국제자유도시에 제주의 미래를 맡기는 데 대한 불안감과 현실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대한민국이라는 지리적 영토와 법-제도의 제약을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비전으로 자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제관광지로서 노비자, 항공자유화 등을 통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큰 기대를 걸기 때문이며, 나아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못지않게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지대와 쇼핑아울렛, 면세지역화 등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평화금융’이란 주제 하에 어떻게 제주형 국제금융센터를 평화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산업으로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상 대형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은 적실성이 없다고 본다면, 국제금융과 같은 친환경 서비스업이 제주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제주와 세계를 연결하고 공동번영해 나가자는 데서 제주형 국제금융산업의 육성이 출발한다.

나) 평화금융의 가능성: 동북아개발은행과 역외금융

금융혁신을 통한 제주형 평화금융의 가능성은 말레이시아가 이슬람권 금융 허브를 지향해 나갔다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거래는 허용하지만 이자는 금하는 코란의 가르침을 뛰어넘어, 최근 말레이시아는 ‘뱅크 이슬람’을 설립하여 이슬람자본이 무슬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인식 하에 이슬람 금융산업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금융이 이자 등 수익추구 못지않게 이슬람 채권(수쿠크) 등 이슬람 정신과 연동된 금융상품을 통해 평화금융의 허브로 발돋움 하고 있다.

제주형 국제금융도 금융의 사회적·공동체적 역할을 일정 부분 담보해 나가는 혁신과 진취성을 보일 때 그 실현 가능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형 동북아개발은행은 동아시아 공동체로 나아가는 제반 경제적 교류협력의 최선봉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제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 허브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외금융에 특화한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추진은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이 중요하다.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서울금융센터와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를 보완 및 지원하는 소위 이원적인 금융허브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금융센터는 단순히 제주만을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국제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내경제의 발전에 일조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해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전 세계 역외금융센터로 몰리고 있는 중국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이 시급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이미지 쇄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역외금융센터가 조세피난처이고 불법자금이 세탁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반드시 불식시켜야 역외 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제주형 평화복지금융의 가능성

동북아개발은행이라든가 역외금융과 같은 국제금융의 평화 관련성에 못지않게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제주형 평화복지금융이 중요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기할 수 있다. 즉 제주형 평화복지금융으로 '창업을 통한 자립'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서민금융의 확대와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 응용, 그리고 휴면예금의 평화금융화 등이다.¹⁾

2007년 7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일종의 제4섹터로서 이윤과 사회적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그 활동이 기존의 정부, 기업, NGO 가운데 어느 부류에도 집어넣기가 어려운 영역이다. 그러나 이윤추구를 확실하 한다는 점에서 사기업에 가깝지만 자신들의 비영리적 이상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기업과 구별된다. 예를 들면, 미국 코네티컷

1) 다만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에서는 서민금융-지역재투자법의 응용-무담보소액신용대출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금융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고 보다 자세한 전략은 다른 연구를 통해 다룰 것이다.

트 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최대 주주가 2개의 자선기금으로 되어 있는 ‘알트루웨어 시큐리티’와 같은 사회적 기업은 주식을 사고팔고 기업을 분석하는 수많은 증권회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회사 정관에 “이익을 지역사회 저소득층에 환원한다.”고 못 박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의 대주주로 나서기도 하고 보증을 서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지역밀착형 금융의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평화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비용의 금융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과의 제휴 강화에 중점을 둔다. 여기서 평화금융은 단순히 경제적 부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상호부조를 의미한다. 민간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협동조합이 나란히 공존하는 3층 구조를 보이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의 총자산 규모가 각각 1조 116억 유로와 8571억 유로로서 이 둘을 합치면 민간 상업은행의 전체 자산 규모인 2조 221억 유로에 달할 정도로 서민금융이 발달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독일의 금융과잉이 공공성을 얻는 대신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어떻게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응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역재투자법의 응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인식 전환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는 지역재투자법 관련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일반적인 사업만큼 이익이 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가 발전해야 거기서

사업하는 은행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대출이 더 위험한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서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닌 제때에 빚을 갚으려는 의지와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 관점이다.

셋째, 하나은행과 희망제작소가 제휴하여 추진 중인 '무담보소액신용대출'의 아이디어도 고려할 수 있다. 무담보소액신용대출이란 경제 사회적 약자나 소외자가 의미 있는 아이디어로 돈도 벌고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도록 소기업 창업자금을 저금리·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평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환으로 하나은행이 조성한 300억 규모의 '하나은행펀드'는 연평균 3~4% 수준의 금리와 한 건당 평균 2억 정도의 대출을 해 주기로 하고 있다.

(2) 청정에너지의 생산 구축 및 활용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의 공급·소비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노력은 아직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동시에 대기 중 CO2의 농도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07년 7월 9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의 지적처럼,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5년 안에 극심한 부족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본다면, 더 더욱 청정 에너지의 자체 생산과 보급에 대한 제주형 접근이 요구된다.

가) 청정에너지산업의 발전방향

청정에너지를 통해 제주형 평화산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주형 청정에너지를 지속가능하게 공급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LNG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책 강구와 함께, 청정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혁신도시 등 제주도 공공기관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의무화와 그린빌리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주를 찾아온 사람들이 제주형 청정 에너지 생산과 보급 실태를 돌아보고 이를 모델로 삼도록 하는 것은 청정지대의 평화 이미지를 갖춘 제주를 다른 세계에 널리 각인시키는 주요한 방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나) 청정에너지의 현황과 대책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 지열, 조력, 바이오, 연료전지 에너지 가운데 특히 풍력-태양광-바이오 에너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풍력에너지는 2005년 영덕풍력발전(주)이 경북 영덕읍 창포리에 한국 최대이자 최초의 본격적인 상업단지로서 연간 100억원을 목표로 24기의 풍력단지가 조성되었다. 청정에너지 가운데 이미 제주도는 풍력을 이용한 행원풍력 9.8MW(설비이용율: 26.4%)와 한경풍력 6.0MW(설비이용율: 32.1%) 등 총 19MW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에 발전설비용량의 3.4%에 해당하고 연평균 1.22%의 발전량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풍력발전의 문제점으로 초기 투

자자본의 고비용 문제, 소음, 전파방해 등의 환경 문제, 해상풍력의 관리 문제, 풍력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 문제, 그리고 풍력발전과의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 문제 등이 제기된다. 풍력발전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경제적 효용성 및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유기적으로 조정함에 있어 제주도는 중장기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계획을 구축하고 50호 규모의 분산전원 모델로서 그린빌리지를 조성하며 또 교육·홍보·연구 기능이 혼합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독일은 지난 10년간 13억 달러를 집중 투자한 결과 전 세계 태양광 집광판의 52%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7년도 매출만 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3월 현재 경북 문경, 전남 신안²⁾ 등지에 건설 추진 중이거나 사업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는 261건이고 발전용량은 121MW(50만 가구가 사용가능)이다. 제주도는 2004년 안덕면 동광마을에 국내 최초로 주택에 태양력 발전을 보급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이 추진되어 165가구 가운데 47가구가 최대 3kW의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월평균 3~5만원하던 전기료가 200원 안팎으로 떨어진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며, 일각에서는 제주의 경우에는 태양력을 활용하기에는 기후

2) 한국에서도 전남 신안(신안군 소재 섬인 지도읍 태천리)에 50m2(dir 18만평) 대지에 1,576억원을 들여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이른바 '추적식' 태양정지판을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6000가구가 쓸 분량인 20MW의 전력을 생산할 신안 태양광발전소는 세계 최대의 독일 바바리아 발전소(11MW)의 2배에 가깝다.

상 적합지 않다는 고정관념마저 존재한다. 향후 동광 그린빌리지가 태양광 활용을 넘어서서 평화관광의 저변을 늘리는 산업화 전략이 요청되며, 동시에 태양광 에너지가 단순히 에너지 문제만이 아닌 평화 기반산업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제주의 태양광 활용 전략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바이오 에너지의 경우 농어촌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에너지자립형 마을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을 고려하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바이오 에너지가 실제로 얼마나 친환경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경제성 면에서도 아직 입증이 부족하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최근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무공해 청정에너지 제공으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유채 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바이오디젤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제주산 유채의 바이오 디젤 제조시설 유치대상 사업자로 (주)제주퓨렉스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다.

(3) 국제회의산업

일반적으로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국제스포츠 대회, 국제회의, 엑스포 등이 있다. 국제교류협력은 평화를 전제하기 때문에 제주가 세계와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연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가 평화 인프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을 뜻한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이와 같은 국제교류 연계망 구축 및 확대 사업을 통해 평화와 경제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하나의 목표를 둔다.

제주형 국제교류망 확충의 가능성과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국제행사의 유치로부터 개최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과 준비가 요청된다. 국제교류 연계망을 구축하고 확대함에 있어서 그 목표나 지향을 제주의 이익에 한정하는 데 머물러서는 결코 평화산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제주를 활용한 국제교류 협력이 제주 밖으로 이득을 나누어 주려는 의식전환과 사업구상이 요청된다. 예를 들면, 제주에서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자주 열리는 데, 이 대회에 취지가 청정 자연을 갖춘 제주에서 마라톤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익금을 다른 지역의 복지에 활용하는 평화봉사 실천으로 확대할 때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세계평화의 섬'을 브랜드화하면서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깊게 논의되지는 않고 있지만, 제주형 국제교류 연계망 확보의 일환으로 물산업-친환경에너지-친환경 농·수·축산업을 테마로 하여 전시-공연-체험-학습 및 테마상품 개발 등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생명평화엑스포'를 기획·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주가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나 회담장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구체화·현실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실현될 때 제주는 아시아·태평양의 제네바나 비엔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가 세계적인 평화센터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도 국제회의의 유치는 그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국제회의의 유치와 연관한 제주형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은 관광컨벤션 조직을 통합하고 컨벤션통합마케팅 조직으로서의 컨벤션뷰로의 위상을 강화하여 관광컨벤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ICC JEJU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 컨벤션사업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서 출발한다. 또한 제주형 국제회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컨벤션산업을 이끌고 갈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제주의 경쟁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회의와 관련 200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8,871건의 국제회의³⁾가 개최되어 미국이 894건으로 1위, 프랑스 2위(634건), 독일 3위(434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는 185건으로 세계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도시별 순위를 보면, 서울이 89건을 개최해 아시아 2위(세계 11위)를 차지했고, 부산이 37건으로 아시아 8위(세계 41위), 제주도가 33건으로 아시아 9위(세계 48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국제회의 개최 도시 순위

세계 순위			아시아 순위		
순위	도시명	건수	순위	도시명	건수
1	파리	363	1	싱가폴	298
2	빈	316	2	서울	89

3) UIA는 회의 참가자 300명 이상·참가자 중 외국인 40% 이상·참가국가 5개국 이상·회의기간 3일 이상 등을 조건으로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및 국내 단체 또는 국제기구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를 통계기준으로 삼고 있다.

3	싱가폴	298	3	북경	80
4	브뤼셀	179	4	도쿄	58
5	제네바	169	5	방콕	45
6	헬싱키	140	6	쿠알라룸푸르	44
7	바르셀로나	139	7	홍콩	41
11	서울	89	8	부산	37
41	부산	37	9	제주	33
48	제주	33	10	상하이	32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공

4) 남북한 교류협력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아래로부터의 호응을 기반으로 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9년에 걸쳐 꾸준히 북한에 사랑의 감귤·당근 보내기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제주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은 ‘비타민 C 외교’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지방 수준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신기원을 열었다. 최근에는 평화와 번영을 함께 나누기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차원에서 개성공단 내에 제주산 마늘을 포함하여 남한의 마늘을 임가공하여 남한 시장에 내다 파는 남북한 경제 협력의 실마리를 열었다. 2007년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흐름 속에서 제주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한 회담 개최지로서, 그리고 한라-백두 교차관광, 백두-금강-한라를 연결하는 산테마관광벨트 구축 등을 통해서 그 비중과 역할을 확대를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제주와 지역적 성격이 유사한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민족대축전과 같은 문화체육교류, 북한

물산전시회 등의 다각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적극 합의된 바와 같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과 같이 남북한 경제협력은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성공단사업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과 관련하여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가능성과 기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 1월 현재 개성공단사업에는 39개 기업이 입주하여 22개 기업이 정상 가동하는 중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개성공단 사업은 기업 위주의 교류협력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이윤 추구 위주의 기업 참여에만 초점을 맞춘 개성공단사업은 시작의 반으로서는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마무리의 반으로서는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는 데서 개성공단에 대한 제3의 접근이 요구된다.

2007년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더욱 확대와 발전을 보이리라 전망되는 개성공단 사업은 기업 이외에도 ‘세계평화의 섬’의 기치와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오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차원에서 제주형 제4섹터 방식의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감귤·당근 등 제주특산물의 북한 보내기와 제주도민 방북 등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는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 제주도 내의 상공인 및 제주도내 NGO들과 손을 잡고 콘소시엄 형태 내지는 제4섹터의 형태로 개성공단에 투자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5) 기타 평화산업 추진

평화교육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피스아일랜드스쿨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평화대학을 제주에 유치하여 동북아시아 국제평화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방안이 폐교의 평화교육적 활용이다.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된 평화교육적 관점에서 폐교지를 각종 체험·수련 및 교육 시설과 문화예술 시설(박물관 및 전시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기존의 소규모 및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공공 기관(교육청 및 도청)과의 연대 관계 형성을 통해 홍보 및 프로그램 진행할 필요가 있다. 폐교의 평화교육적 활용으로는 체험·수련(청소년 캠프), 요가·명상 센터, 생태체험학습원(자연체험장), 주말 학교, 청소년 영화 캠프 그리고 (교원) 휴양 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기타 평화산업 내지는 평화실천을 위한 이벤트로서 평화 문화와 생태의 자원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국제적인 영화제로서 세계 섬영화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세계화를 위한 평화저널리즘 사업, 세계 섬지역과 동북아시아 갈등과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세계평화의 섬'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세계평화 재판소의 설립, 평화와 관련된 교육·문화 체험장을 만들어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해외 평화도시

1. 평화도시의 정의

평화도시란 과거 전쟁의 경험 또는 평화와 관련된 국제회의 및 기구의 존치 등 역사적 사실을 간직하였거나 평화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여 축적된 이미지를 근거로 지자체 차원에서 평화도시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독일의 오스나브뤼크,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및 오키나와, 스위스의 제네바, 스웨덴의 스톡홀름 등이 평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경우 열악한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도시, 진정으로 도시의 화합을 추구하는데 성공한 모범 도시들을 선정하여 유네스코 평화도시를 선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평화도시 선언이나 평화도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화도시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평화도시의 사례⁴⁾

1) 히로시마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시에 미국의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원자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약 14만 명이 사망하고 생존자들 역시 원폭의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참상을 평화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히로시마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히로시마시는 1949년 8월 6일 평화기념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히로시마평화기념도시건설법'을 공포했고, 1952년에는 히로시마 평화도시 기념비를 건립했고, 1955년에는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히로시마시 공회당이 건설되고 평화 기념공원이 정비되었다. 이러한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1954년 10월 30일 히로시마 시의회는 대외적으로 평화도시를 선언했다.

이후에도 히로시마시는 평화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67년 히로시마 평화문화센터를 설치하고 1976년에는 평화문화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재단법인 평화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유엔관련 사업, 평화관련 회의와 각종 문화사업, 히로시마 평화학습 프로그램 운영, 세계연방 운동, 원폭관련 자료 제작 및 전시, 원폭돔(평화기념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1996년)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히로시마 시장이 의장이 되는 세계평화도시연대를 조직하여 1997년 현재 99개국 421개 자치체가 가입하고 있다. 4년마다 세계평화도시 시장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세계평화도시 시장회의는 카테고리Ⅱ의 자격으로 유엔 NGO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세계평화도시연

4) 이하 히로시마와 유네스코 평화도시는 고성준 외, 『동아시아와 평화의 섬 제주』(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2004)의 제5장 세계 평화도시 사례분석을 참고하였고, 나머지 사례는 개별적인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인터넷에 소개된 일반적인 내용들은 특별히 자료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대에 가입한 자치체가 없다.

히로시마시는 특히 국제적인 평화군축 회의와 평화군축 기구의 히로시마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유엔 본부 빌딩 내에 원폭자료 상설전시관도 운영하고 있다. 히로시마시가 주관하고 있는 평화관련 행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화콘서트, 평화문화시민강좌, 평화미술전, 서예전, 사진전, 평화영상제, 청년·여성·언론인·국제평화연구학회 국제 심포지움, 세계 대학생 평화세미나, 초중등학교생을 위한 평화여름학교 및 평화교실 운영 등이 있다.

2) 오키나와

오키나와 평화철학의 두 기둥은 이상화된 류큐(琉球)의 역사와 전쟁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류큐 왕국은 세계 모든 나라의 교량 역할을 했던 만국진량(萬國津梁)의 전통과 비폭력 및 관용의 철학을 강조하는 오키나와의 마음을 자랑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 전투 당시 주민의 3분의 1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국의 군대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했다.

오키나와의 평화담론은 오키나와 전투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이해와 교훈을 통해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반군사주의 문화를 보급하며 인권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고유한 평화문화의 전통과 반군사주의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오키나와 전투의 상흔과 교훈을 평화의 이념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은 역사학 교수 출신의 오타 지사(1990~1998)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오키나와는 1995년 '평화의 초석'을 건립하고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편협한 민족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군국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기존의 평화기념자료관 이전을 결정하고 오키나와 전투의 진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념관을 건립했다. 그리고 1994년에는 전쟁의 기억과 교훈을 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운동단체인 '오키나와피스네트워크'가 발족되어 오키나와 평화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오키나와의 평화운동은 오키나와 전투의 역사해석에서부터 출발하여 미군기지 반대운동으로 발전해나갔다.

오키나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평화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평화의 초석' 관련 사업으로서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고 있다. 평화기념자료관 사업을 통해 오키나와 전투의 역사적 교훈을 차세대에 전달하고 오키나와의 마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며, 일본 평화헌법의 원리와 정신을 교육하고, 오키나와 평화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해 오키나와 전투 전몰자 추도식에서 지사의 이름으로 평화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 평화상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비폭력, 인간안보의 실현을 목표로 전쟁과 분쟁억제는 물론이고 빈곤·난민·환경문제 등 인류의 평화와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국내외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된다.⁵⁾

5) 오키나와 평화상의 역대 수상자를 살펴보면, 2002년 제1회 수상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활동단체, 2004년 제2회 수상자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의료지원

2002년 오키나와는 내부적인 평화문화의 정착을 뛰어넘어 외부세계에 구원의 손을 펼친다는 생각으로 특수비영리법인인 ‘오키나와평화협력센터’(OPAC)를 조직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협력과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총선거 선거활동 감시 사업, 동티모르 의회선거 및 대통령선거 선거활동 감시, 동티모르 청년지도자 및 아프가니스탄 청년행정관 초청사업, 동티모르 제대군인 사회복지지원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3) 오스나브뤽⁶⁾

독일 오스나브뤽시의 평화도시 선언의 역사적 계기는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과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의 기억 두 가지로 요약된다. 오스나브뤽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30년 전쟁’을 종식시킨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지이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비밀경찰 지부가 위치해 있어서 유대인 학살이 자행된 곳이기도 하다. 오스나브뤽시는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일인 10월 25일을 ‘평화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1991년 독일 오스나브뤽의 시장에 당선된 한스-위르겐 뢰프는 평화문화를 시정부의 정책이념으로 채택하고 ‘평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활동을 해온 의사연합단체, 2006년의 제3차 수상자는 라오스에서 언청이 무료 수술을 통해 인간안보에 공헌해온 언청이 지원센터이다.

6) 고희성,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본 평화운동과 동아시아,” 『제주4·3과 동아시아 평화운동』, 제주4·3 제56주기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2004년 3월 27일.

했다. 2001년 오스나브뤽 시정부는 지역 내 대학 및 시민단체들의 참여 속에 '평화문화 조성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 해인 2002년 시의회에 이를 보고하고 평화도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오스나브뤽시는 특히 관용의 문화 조성을 최대의 정책 목표로 삼아 다양한 이민자와 난민들을 포용하고 유럽의 통합에 앞장을 서고 있다. 오스나브뤽시의 평화사업 추진 방식은 각종 시민단체, 종교단체, 문화단체, 복지단체, 교육단체 등 시민사회 영역을 네트워크화하고 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레마르크 평화재단'과 '레마르크 평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평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시장 명의로 2년마다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작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레마르크 평화상'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의 주도로 제3세계 극빈국에 대한 지원·구호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국제적인 아동구호단체인 '인간의 대지' 독일 본부가 오스나브뤽에 위치해 있다. 아우슈비츠에서 비극적인 삶을 마친 유대인 화가 누스바움을 기리는 '펠릭스 누스바움 하우스(Felix Nussbaum Haus)' 미술관을 운영하여 평화문제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망명작가 보호 모임'이라는 단체는 정치적 박해를 받는 외국의 작가들을 1년씩 오스나브뤽에 초청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 영화 및 문화 축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유럽 청년대회 격년제 개최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4) 제네바

유럽 대륙의 심장부에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는 200여개의 유엔 산하 특별전문기구와 각종 NGO들이 집결해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이다. 도시인구 4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157개국의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분쟁지역의 평화협상 개최지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첫 정치협상도 이곳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근년에는 북·미 핵 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 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제네바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구교의 박해를 피해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한 1536년부터이며, 이후 제네바는 유럽 자유사상의 요람이 되었다. 제네바가 세계인권과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본 고장으로 발돋움 하는 데는 적십자 운동의 창시자인 앙리 뒤낭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1864년에 적십자 국제위원회가 제네바에 설립되었다. 1919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주창으로 창설된 국제연맹 본부는 제네바에 본부를 설치했다. 이는 제네바의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엔 유럽사무소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일종의 유엔 유럽본부로서 뉴욕 유엔 본부에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7천개의 크고 작은 국제회의가 열리고 회의참석자 수만 2만 명에 달한다. 제네바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호반도시로 번영을 누리고 있으며 알프스와 쥐라산맥, 레만호수를 배경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5) 유네스코 지정 평화도시

유네스코는 도시폭력의 근절, 실업자나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모범적인 환경운동, 모범적인 문화진흥, 모범적인 시민교육 등의 기준을 충족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개 지역(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아랍, 유럽)별로 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수상도시 리스트를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쿠바의 아바나 등 9개 도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등 7개 도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의 올롱가포 등 7개 도시, 아랍 지역에서는 이집트의 샴엘-셰이크 등 7개 도시, 유럽지역에서는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 등 8개 도시가 19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평화도시로 선정되었다.⁷⁾

유네스코 평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네덜란드의 데프트(Delft)시는 환경과 문화 2개 분야에 서 보스니아에 대한 국제적 지원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했다. 헝가리의 팩스(Pecs)시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질적 인종집단의 분리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다문화적 예술도시를 건설했다. 이집트의 샴엘-셰이크(Sharm el-Sheike)시는 황무지를 이용하여 고도의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모범적인 환경관리를 행하는 국제적 관광도시를 건설했다. 콩고의 롬바시(Lumbashi)시는 문명퇴치, 성병과 에이즈 예

7) 그러나 현재 유네스코는 예산 부족으로 평화도시 선정 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방,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초중등교육 정상화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모범을 보였다.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Vilnius)시는 1994년에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지역주민 전체가 동참하여 도시구획 정리 및 미화사업, 문화재복원 사업, 범죄퇴치 운동 등을 전개하여 역동적인 문화도시로 새롭게 태어나 다른 지역사회의 모델이 되었다.

6) 기타 도시들

호주의 호바트시는 인구 25만명의 태즈메니아 주도로서 온화한 기후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해양도시이다. 환경론자인 데이비드 벨라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도’라고 극찬한 바 있다. 호바트시는 이러한 환경적 여건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 원주민과 개척민의 공존, 세계 섬지역의 평화적 유대를 모색하는 도시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 도시는 초콜릿 산업과 가구제조업 등 경공업이 발달해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관광 수입과 카지노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태즈메니아 대학을 중심으로 환경관리 및 도서지역연구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NGO 중심의 평화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교류증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태즈메니아주와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1948년에 내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한 후 헌법에 군대를 둘 수 없다는 평화헌법 조항을 삽입하여 평화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해 오고 있다. 1980년대 초에 경

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IMF체제하에서 무려 15년간 제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인내심을 보여 사태를 극복해 냈다. 1987년 당시 코스타리카의 대통령 오스카 아리아스는 중남미 6개국 간의 평화현장을 제안하여 중남미의 평화정착에 앞장섰고, 그는 이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높은 교육수준과 민주적인 선거제도 및 관행, 고도의 복지정책 등을 통해서 모범적인 선진민주국가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커피와 바나나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구조를 관광산업 및 근대적인 산업체제로 전환하고 신자유주의 모델을 수용했다.

3. 평화도시의 평화산업 및 유엔기구 유치

1) 오키나와의 평화관광사업⁸⁾

1994년에 설립된 '오키나와피스네트워크'는 전쟁의 기억과 교훈을 보존하는 자원봉사 평화가이드를 주도하여 오키나와 평화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업여행사에 의해 진행된 이전의 오키나와의 버스타어는 오키나와의 전투의 참상을 보여주는 전적지 방문을 생략하고 위락 시설 일변도의 코스를 선호했다. 제32군 사령부, 히메유리 간호원 기념비, 지휘부의 자결장소 등을 주로 견학한 후 오키나와가 일본의 하와이임을 강조하면서 리조트 코스로 발길을 돌

8) Laura Hein & Mark Selden(ed.), Islands of Discontent(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3), pp. 83-89.

렸다. 이에 맞서 오키나와 사회는 ‘오키나와 피스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오키나와 주민들의 피난처와 평화기념자료관 등을 중심으로 미군기지 견학까지를 포함하는 평화교육 관광코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1987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1997년 ‘오키나와 피스네트워크’에 의해 개정된 오키나와 가이드북은 방문지의 지도, 사진, 개념, 수송, 시간 배정까지 해설하고 있으며, 민간인 피난처, 히메유리, 비문 탐구, 핵기지, 통신기지, 반전지주운동 등 7개의 주제로 3일 코스와 반일 코스 평화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에는 ‘오키나와 피스네트워크’를 포함하여 9개 자원봉사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상업관광회사 역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 증대와 오키나와의 평화촉진 노력, 본토의 진보적 교사들의 협조에 힘입어 참여 학교와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정부의 역사왜곡과 여행자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의 교훈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특유의 문화 및 자연을 함께 소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2) 코스타리카와 뉴질랜드의 생태관광사업

(1) 코스타리카⁹⁾

코스타리카는 중미의 스위스, 자연보호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나라로,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의 메카로

9) 김선희,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정보』(1995), pp. 102-106.

각광을 받고 있다. 풍부한 동식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생물종이 다양하고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천혜의 자연과 생태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관광입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산업인 바나나 재배와 커피 생산을 재치고 관광이 외화소득 1위로 부상했다. 에코투어리즘은 전체 관광객의 약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리조트 목적의 관광객이다. 전 국토의 25%가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코스타리카만큼 환경보전 지역 면적이 큰 나라는 없다.

환경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법률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정되었다. 예를 들면, 만조시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구역은 국유지로 하고, 해안선 50미터 이내에는 일체 건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했으며, 50~2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후 호텔이나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유지라 하더라도 서식하고 있는 야생의 동·식물 모두를 국가의 관리 하에 두도록 하는 획기적인 야생동물관리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리조트 개발에 따라 생태관광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태관광의 활성화 그 자체가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2) 뉴질랜드¹⁰⁾

뉴질랜드는 일찍부터 생태관광 사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잘 정

10) 최재우, “뉴질랜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2004), pp. 286-299.

비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역 환경의 보전, 주민 이익의 보장, 관광객 학습체험의 욕구 충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크게 다음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지형 및 지질 탐구 프로그램: 와이토모(Waitomo) 반딧불 동굴관찰 등
- 식생 관찰 프로그램: 카우리(Kauri) 나무 관찰 등
- 야생동물 관찰 프로그램: 오타고(Otago) 반도의 야생관찰 등
- 문화 및 역사 탐방 프로그램: 마오리족 원주민 마을 등
- 트레킹 프로그램: 밀포드(Milford) 트랙 트레킹 등
- 기타 자원 봉사 및 학술탐사 프로그램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공원 트레킹 프로그램과 소규모의 민영 생태관광업체가 운영하는 자연체험 프로그램으로 크게 구별될 수 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지정 지역은 주요 트레킹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새 관찰이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으로 인원제한이 이루어지는데, 5명에서 20명이 표준이며 40명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역 주민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되며, 전문 학술적인 분야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사전 예약을 필요로 하며, 프로그램의 소요시간은 1시간짜리 짧은 것에서부터 4~5일 이상이 소요되는 장거리 트레킹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소규모 자가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며 약간의 고용

인들도 대부분 가족이거나 시간제 근무이다. 초기단계에서는 종종 운영상의 미숙과 자본조달의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수익금의 대부분은 지역주민이 직접 관리하며 자원 보존 및 연구개발에도 충당된다.

3) 태즈매니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지역(WHA) 관리와 활용

태즈매니아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섬으로 된 주이며, 남한보다 약간 작은 면적에 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태즈매니아는 호주와 남위 40도의 배스(Bass) 해협을 두고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빙하기를 거치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서 독특한 동식물의 보고일 뿐 아니라 빼어난 경관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원주민인 애보리진의 문화와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 섬의 20% 이상을 세계유산지역(World Heritage Area: WHA)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으로, 4개의 자연유산 기준과 2개의 문화유산 기준을 충족시킨다. 프랭클린-고든 강 국립공원(The Franklin-Gordon Rivers National Park), 크래들 산 및 세인트 클레어 호수 국립공원(The Cradle Mountain-Lake St Clair National Park)을 대표로 총 19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태즈매니아 관광청은 특별관심여행(Special Interest Travel: SIT)과 외국인 개별여행(Foreign Independent Tour: FIT) 시장을 우선 순위에 놓고 소규모 고급 여행상품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태즈매니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성향을 보면 평균 7~8일의 장기체

류를 하며 골프, 트레킹, 하이킹 등의 체험 및 SIT, FIT 일정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태즈매니아 북부의 스코트데일(Scottsdale)과 세인트 헬렌스(St. Helens)는 5개 관광 루트 개발을 통해서 연간 180만 달러의 관광 수입에서 5년 후 900만 달러의 관광 수입을 거두는 보기 드문 성공을 기록했다.¹¹⁾ 태즈매니아 섬문화축제 행사도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고 있다.

태즈매니아는 WHA 관리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3년에 중앙정부에 의해서 ‘세계유산자원보호법’이 제정되고 5개년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주정부가 자연보호구역 관리를 담당하지만 예산의 절반은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있다. 세계유산지역 관리를 위해 정부위원회(Ministerial Council) 및 자문기구(WHA Consultative Committee)도 조직되었다. WHA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중앙정부 소속 2인과 주정부 소속 2인으로 구성되는 정부위원회이다. 정부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시 그것을 채택한다. 정부위원회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 중 절반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주정부가 임명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WHA의 계획수립과 운영관리에 조언을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주로 생태론자들이 참여하는 반면, 지방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은 개발업자나 WHA 지정을 반대하는 1차 산업 대표자들, 기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다.

그런데 WHA 지정으로 인한 지역사회 내의 내부적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WHA 지정에 따른 여러 규제 조치에 불만을 보

11) 서구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도시마케팅,” 『비즈니스저널』, 2005년 9월호, p. 85.

이고 있으며, 1차 산업 종사자와 개발업자도 마찬가지로 불만을 표시한다. 3만년의 역사를 갖는 애보리진(원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당국은 일부지역을 할애한 후 공동관리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지 주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WHA에 대해 강력한 보호정책을 주장하는 반면, 현지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현지답사를 포함한 4일간의 회의일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파트너십과 공동관리 전략을 채택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지를 모으고 있다.

4) 유엔평화대학 유치¹²⁾

현재 각국 정부는 유엔 관련 기구 유치를 통해 국제적 위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동시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엔 부설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유엔 테마를 브랜드화하여 환경마을, 평화마을, 인권마을, 예술마을, 영어마을, 미디어센터, 세계평화전시장 등을 조성하고, 유엔 총회연수 및 각종 컨벤션을 개최함으로써 문화, 교육, 관광의 명소로 각광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역내 외국인 학생의 국내 유입과 국제적 수준의 교육 및 영어학습 시장 수요를 개척하게 된다.

유엔 관련 국제교육기구로는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 학문화기구), 유엔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 유엔평화대학

12)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의 UN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국가리더십 제고 및 IT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KPOPRA 연구 2006-25(2007. 4).

(United Nations-affiliated University for Peace) 등이 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영역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를 추구하는 유엔기구로서 1945년 창립되었다. 유엔대학은 국제학문공동체의 교량 역할 수행, 국제연합 조직을 위한 두뇌집단 양성, 개발도상국가 지도자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1973년 유엔 총회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캠퍼스나 학생은 없다. 국제기구 유치를 염원해온 일본 정부가 1억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동경 시부야 지역에 설립되었다.

유엔평화대학은 유엔 및 국제기구 전문가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산하의 유일한 학위수여 기관이다. 1980년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고 인권, 평화, 분쟁 조정 등 10여개의 석·박사 학위를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설립 이후 69개국 출신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세계 37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석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졸업생들은 국제기구 공채시험 1차 시험이 면제되며 각종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턴십 기회가 제공된다. 졸업생들은 유엔을 비롯하여 지구촌 곳곳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인 졸업생은 3명인데, 이들은 현재 유엔 거버넌스 센터 연구관, 유네스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엔평화대학은 현재 코스타리카, 뉴욕, 워싱턴, 제네바, 토론토, 에티오피아, 필리핀에 캠퍼스 혹은 협력 캠퍼스나 사무국을 두고 있다. 제1캠퍼스는 코스타리카에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명예총장직을 맡고 있으며, 반기문 총장이 자동으로 명예총장 자리를 승계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필리핀 마닐라 대학에 유엔평화대학 프로그램 자금을

전액 출자하고 장학금 및 부대비용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의 설립을 준비 중이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평화추구 상징성과 눈부신 경제성장 및 문화적 저력을 배경으로 2005년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한국유치에 성공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부지 공여 의향서를 확보하여 캠퍼스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는 서울에 캠퍼스를 두고 평화와 갈등, 국제기구, 인권, 성, 환경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국내대학과 연계하여 국제관계, 국제법, 평화학, 미디어 등 분야에서 이중 학위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5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SCAP)는 산하 조직으로서 아·태정보통신교육훈련센터(APCICT)를 한국의 인천 송도에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아·태정보통신교육훈련센터는 국내 최초의 유엔 기구로서 향후 회원국의 IT 교육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기여할 것이다.¹³⁾

5) 제네바와 비엔나의 국제기구 유치

(1) 제네바

제네바는 현재 수백 개의 국제기구를 위해 연간 1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37억 달러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제네바에는 유엔 유럽본부를 비롯하여 22개의 주요한 국제기구와 170여개의 각종 비정부기

13) 한국 정부는 2006~2010년까지 1천만 달러의 현금 및 현물(정보통신부 250만 달러 현금, 인천광역시 500만 달러 현금 및 250만 달러 현물) 기여를 약속했다.

구가 소재하고 있다. 국제기구 직원은 19,000여 명이며 NGO의 직원은 2,400명이다. 국제기구와 NGO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는 연간 2,492회이며, 회의 참석차 제네바를 찾아오는 인원은 연간 130,000여 명이다. 호텔과 각종 서비스업 부문에서 1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9·11테러 이후 국제기구 경비 강화를 위해서 연간 2,7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에도 디지털 연대기금, 스톡홀름협약 사무국, 에이즈·말라리아·결핵퇴치 글로벌 기금 등의 국제기구 유치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제네바는 지속적인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적이다. 새로 제네바에 들어서는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50년간 무이자 차관을 제공한다. 재정적 지원 외에도 국제기구와 그 직원들을 위한 특권과 면책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2) 비엔나

오스트리아는 양차 세계대전에서 두 번 다 독일과 한편이 되어 패전국의 피해를 경험했다. 전후 10년간 신탁통치를 받은 오스트리아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고심하면서 영세중립국을 표방했다. 그러나 주변 국가가 알아주지 않는 영세중립국 선언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제기구, 특히 유엔 산하기구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1957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엔나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비엔나에 ‘비엔나 인터내셔널 센터’(VIC)를 건설한 후 그것을 유엔에 년 1실링에 장기 임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¹⁴⁾ VIC에 입주한 유엔 국제기구는 모두 14개

로 총 직원 수가 4,000명에 달한다(IAEA가 2,300명임). 매년 VIC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국제회의가 수천 건에 달하며 공식회의의 참가자 수도 수만 명이 넘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지대하다.

6) 피스 보트의 운영 사례¹⁵⁾

피스 보트(Peace Boat)는 평화와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호의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적 비정부기구로서 선상 여행을 평화교육의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동경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유럽 사무소를 두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체 NGO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등 다수의 국제적인 평화네트워크와 제휴를 하고 있다.

피스보트는 1983년에 일본의 일부 대학생들이 정부의 제국주의 역사 은폐에 항의하여 인근 국가를 대상으로 전쟁의 역사를 직접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배를 임대하고 여행한 것이 사업의 계기가 되었다. 피스보트는 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일본 전역에 10개 자원봉사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팀이 별도로 운영되며 이들은 방문 지역 사전조사와 전달물품 수거 기타 모든 행사 계획을 수립한다. 여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피스보트 여행에 수반된 제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고, 모든 수입은 피스 보트 활동에 재투자된다. 31,000톤의

14)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의 UN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국가리더십 제고 및 IT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p. 140.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유엔 산하기구 본부 건물 중에서 그 수려함과 기능성에 있어서 VIC를 최고로 꼽는다.

15) 피스보트 홈페이지(<http://www.peaceboat.org/english/index.html>) 참조.

토파즈(Topaz)호는 195미터의 길이에 1,600명의 승객과 500명의 선원 수용할 수 있다.

피스보트는 매해 3개의 세계여행 코스와 1개의 아시아지역 단기 여행 코스를 운영한다. 세계여행 코스는 800여 명이 참가하고 3개월이 소요되며 15~20개 국가를 탐방한다.¹⁶⁾ 항상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고베로 귀환하는 코스이며, 방문 지역은 인권·개발·환경·전쟁 등 평화의 주제와 관련된 도시들이 선정된다. 그동안 방문한 한국의 도시는 부산, 인천, 제주(1989년), 원산 등이 있다.

각국에서 초빙된 50명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워크숍, 강의, 외국어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선상 교육활동을 준비한다. 방문 지역의 역사와 문화, 평화 이슈 등을 교육하기도 한다. 모든 참가자들은 선상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체적인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기항지에서 활동은 방문 지역 시민들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방문 지역 시민운동 지원행사 프로그램, 방문 지역 현실의 이해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 구호물자 전달 등이 있다. 선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현지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지역특산품 시장을 개설한다. 가령, 필리핀에서는 수제품 의복과 가방, 타이티에서는 코코넛 기름, 크로아티아에서는 수공예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16) 제58차 여행은 2007년 6월 9일~9월 20, 제59차 여행은 9월 23일~1월 10일, 제60차 여행은 2008년 1월 12일~4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4. 시사점

평화도시의 근본이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따라서 사회 복지와 국제구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수익사업에 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평화도시의 국제적 위상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서 평화산업의 개념에 접근한다면, 대체적으로 두 개의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의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기대이며, 다른 하나는 고유의 평화 개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즉 평화관광의 시도로 귀착된다.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의 경우, 단순한 입지적 환경조건 외에도 무이자 차관, 건물의 무상임대, 직원들을 위한 특권 및 면책 조항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상황의 변화 혹은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장소 이전이 가능하다. 유엔의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기구 역시 점증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유엔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가능성을 탐색하는 노력과 블루 오션(blue ocean)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관광의 경우 역사문화관광과 생태관광으로 크게 양분해 볼 수 있으나 어느 하나 만으로는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를 상호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로의 이익 환원이 절대적인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의 경우에 자연유산을 손상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제주 평화관광산업

1. 평화관광산업의 모델

1) 평화산업과 평화관광

평화산업은 관광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대안관광(alternative forms of tourism)이 새로운 평화산업의 한 분야로 등장했으며, 기존 관광에 새로운 의미를 두고 관광을 사회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을 통한 평화의 창출 및 확산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지역이나 문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광 자원화의 차원에서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존 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을 통해 평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

평화는 기본적으로는 타자와 다른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관광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과 풍습, 문물을 구경하는 것에 머물 뿐 목적지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와 관광간의 연관성이 무시되어 왔다. 대안관광으로서 ‘책임 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이 제시되면서, 관광객들이 방문지에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사람과 문화, 환경을 깊은 이해를 가지면서 발전적 문제의식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서의 생

태관광이 지역주민의 경제적 개발이익과 상충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이 상호 모순될 수 있는 이익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관광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관광이 평화와 국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광은 관광객과 관광지 주민들의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직접 접촉을 통해 세계의 다른 지역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국제관광을 통한 평화추구 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Peace through Tourism)¹⁷⁾에서는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 환경의 질 개선, 그리고 역사적 유산의 보존을 통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공헌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역사의 이해, 지역 고유문화의 이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의 평화관광 사례는 제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¹⁸⁾ 대표적 사례를 보면, 원폭 피해를 평화적으로 승화시켜 지역의 관광프로그램의 일부로 발전시킨 일본 히로시마 사례는 제주의 전적

17) 관광을 통한 평화추구 국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Peace through Tourism)는 1986년 창립되었는데, 관광을 통해 지구촌 사람들간 그리고 자연과의 평화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www.iipt.org> 참조.

18) Caroline Anson, "Planning for Peace: the Role of Tourism in the Aftermath of Viol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8(1999), pp. 57-61; Freya Higgins-Desbiolles, "Reconciliation Tourism: Tourism Healing Divided Societ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vol. 28(2003), pp. 35-44; Stephen Litvin, "Tourism: the World's Peace Industry,"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7(1998), pp. 63-66.

지 관광과 4·3역사문화관광의 가능성을 일깨워 준다. 예를 들면, 원주민에 대한 이해를 위한 호주의 관광 프로그램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대표적 평화관광 프로그램이다. 호주의 태즈매니아 관광 프로그램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생태관광을 개발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평화관광을 통한 평화산업의 육성 사례들을 참고할 때, 제주에는 고유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전통, 그리고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 평화교육 인프라 등의 발전적 접목을 통해 ‘제주형 평화관광’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형 평화관광은 기존 관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량관광에서 가족관광, 개인관광, 테마관광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일종의 대안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2) 왜 제주형 평화관광인가?

제주형 평화관광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윈윈(win-win) 상황을 설정하고 관광의 고부가치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평화교육을 통해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한다. 제주에는 이미 관광지로 개발되어 상당한 관광 인프라를 갖춘 상태이고 잘 보전된 문화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관광의 최적지이다. 따라서 제주의 관광의 한 형태로서 평화관광을 차입, 승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세계적인 관광 추세는 책임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발

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연친화적이며 평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 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관광추세의 맥락에서 볼 때도 인간과 인간간의 평화, 인간과 자연과의 평화, 그리고 제주와 세계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제주형 평화관광의 가능성과 추진 모델에 대한 탐색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제주형 평화관광’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역사문화관광과 생태관광의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배경에서 보듯이, 제주는 삼무정신, ‘4.3사건’ 등 고난의 승화, 정상회담의 장, 청정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국제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정책에 힘입어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아래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세계평화의 섬’의 스토리와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제주형 평화관광의 개발을 위해서 제시되는 역사문화관광과 생태관광은 대안 관광으로 등장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사랑이자 자연사랑에 기초하여 관광을 통한 평화 신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기초한다. 기존의 관광 프로그램을 평화의 신장, 특히 다른 지역의 사람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다 넓은 의미의 평화 추구로 연결시켜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제주의 입장에서 관광을 신장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보존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을 통하여 평화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평화실천을 위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 역사문화관광 모델

전통적으로 제주인의 삶에 배어있는 도전과 적응,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생겨난 삶의 지혜와 특색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삼무정신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제주의 고유한 전통적 평화의 문화 모델이다. 마을별 공동어장과 공동목장은 개체적 대동주의에 입각한 공동체적 상호의존의 평화적 삶의 방식이다.¹⁹⁾

역사적인 제주의 배경 즉, 몽골의 지배, 이재수의 난, 일제 강점기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 ‘4·3사건’의 희생 등 고난의 제주사를 평화적으로 승화할 때, 평화교육과 평화관광의 역사문화적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제주의 관광은 이슈별 관광 루트의 개발과 지도 활용, 그리고 단순한 볼거리 관광이 아닌 ‘알거리’ 관광을 위한 이야기 발굴 및 정리 등이 요청된다. 예를 들면, 평화산업의 관광루트로서 평화 유린(과거) → 평화 추구(현재)로의 진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군사시설 → 평화박물관 → 4·3유적지, 학살터, 잃어버린 마을, 4·3평화공원 등 → 제주국제평화센터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제주 역사 이야기라는 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9) 송성대, 『제주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제주: 도서출판 각, 2001).

(2) 생태관광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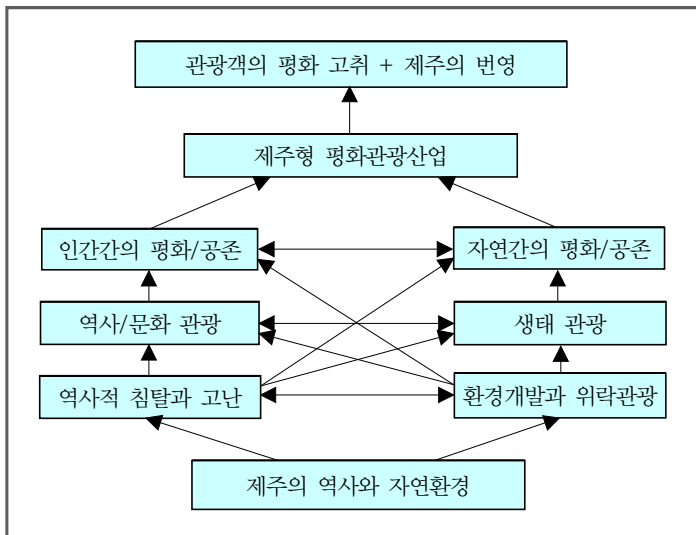
2002년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과 2007년 한라산, 일출봉과 용암동굴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제주에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실현되는 장이자 생태교육의 현장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책임 있는 관광으로서 제주의 생태관광은 가치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보존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기초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은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서 제주의 생태관광은 환경 파괴를 가져오는 전통적 위락관광에서 벗어나 환경 친화적이며 생태 존중적인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문관광단지와 골프장 중심에서 오름과 꽃자왈 등의 훼손과 보전의 사례 발굴 및 전시, 예레동 생태마을 프로그램, 생물종 다양성의 체험 등을 통해 관광 프로그램의 질적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슈별 관광루트 개발과 지도 활용 및 '알거리' 관광을 위한 다양한 구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평화산업의 관광루트로서 환경 개발(전통·위락 관광)→환경 친화(생태관광)로의 진화가 요구된다. [관광단지(중문)→골프장]→오름, 꽃자왈의 훼손과 보전의 사례→예레동 생태마을→영천(유네스코 생태계 보전지역)→한라산(유네스코 자연유산)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제주 생태 이야기라는 틀로 제공할 수 있다.

(3) 제주 평화관광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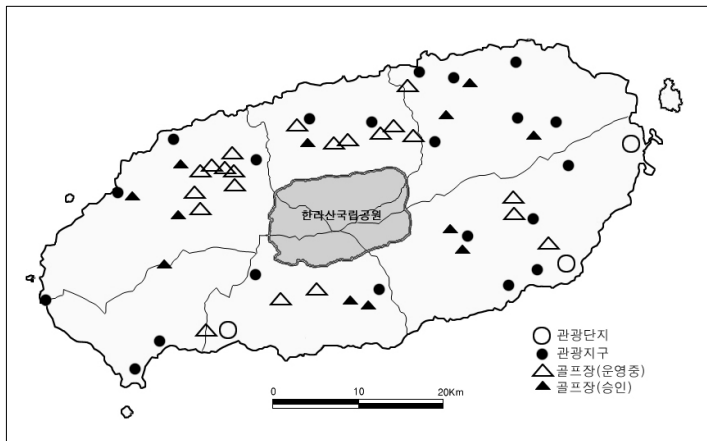
제주 지역의 역사, 문화와 자연환경 특성에 기초할 때, 제주형 평화 관광산업을 위해서 역사문화관광과 생태관광의 두 가지 모델이 제시 될 수 있다. 제주는 이들 두 가지가 좁은 섬 지역에 모두 포괄되어 있어 각 모델 별 루트를 통한 평화관광을 육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포괄하는 제주형 평화관광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문화관광과 생태관광이라는 두 가지 모델을 서로 연계시킬 때 제주형 평화관광은 <그림 4-1>과 같이 모형화 할 수 있다.



<그림 4-1> 제주형 평화관광산업

3) 제주 평화관광산업 발전의 토대와 방향 및 가능성

제주에서 관광을 통한 평화산업 발전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 2005년 세계평화의 섬,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중요한 토대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향후의 관광수요는 관광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는 어떤 관광을 했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과 최근의 관광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차원에서도 역사문화관광과 생태관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 2007년말 현재

이런 측면에서 제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단지 및 지구 개발을 통한 위락지 형태의 관광 육성정책(〈그림 4-2〉 참조)과 함께 곳자왈 지역에 골프장이 건설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대안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체관광 감소와

개인관광 증가 같은 관광객의 양과 질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지역 특성이 배제된 위락적 성향의 골프관광 증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주요 관광지의 관광대상물들이 형상에 치우쳐 있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기존 관광 프로그램에 역사문화관광과 생태관광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 찾기와 관련하여,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관광과 생태관광에 제주적인 특성을 보다 강조하고 이를 통해 평화관광이라는 경쟁우위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일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역사문화관광

1) 왜 역사문화관광인가?

제주의 독특한 역사가 반영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평화문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화와 관광의 유기적 연관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역사와 제주도민의 삶의 흔적을 모티브로 하여 역사문화관광의 방향과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강인한 생활력으로 평화를 지향해온 제주도민의 삶의 흔적과 관련하여 역사를 바탕으로 한 설화 및 신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어시설 및 생활유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민 모두가 시대적 상황의 희생자이므로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새로운 제주 4·3 평화문화를 정립하고, 나아가 평화를 문화적으로 공유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평화산업의 한 축으로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2) 제주도 역사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SWOT분석

제주도의 역사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SWOT분석은 <그림 4-3>과 같다.

강점(Strength) ● 오래 이어진 섬 역사흔적 및 그 문화 ●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 ● 독특한 생활양식 ● 고유한 언어 구사 ● 공동체 사회 문화 향유 ● 한라산을 구심점으로 해변, 중산간, 산간으로 나누어진 생활공동체의 뚜렷한 구분	약점(Weakness) ● 네거티브 역사로서 상대적인 거부감 유발가능성 ● 지역주민의 강한 피해의식 ● 역사현장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뚜렷함 ● 공동체 역사의 활용에 대한 낮은 주민인지도 ● 예전 제주도 관광산업과의 차별성, 변별성을 도출할 전문 인력의 태부족 ● 관광 관련업계에 대한 역사문화 부문의 교육 전무함
기회(Opportunity) ●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인식 확산 ● 제주 관광업계의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의지 ● 08년의 '세계섬학회 학술대회' 등 제주 개최에 따른 여러 섬 지역 및 나라에 홍보기회 확보 ● 이미 갖춰진 관련 인프라시설 ● 뚜렷해진 관광객의 시대 변화적 양상 ● 세계자연유산 등재 확정에 따른 제주 인지도 상승기대	위협(Threat) ● 매우 힘든 접근성 · 항공좌석의 태부족 ·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항공노선의 태부족 ● 새로운 제주관광 산업창출의 매우 훌륭한 테마라는 도민차원의 고부가가치 중요성 인식부족 ● 다크 투어리즘을 비선호하는 관광시장의 추세

<그림 4-3> 제주도 역사문화관광 산업 SWOT분석

3) 역사문화관광의 인프라

(1) 평화 관련 역사유적

제주는 아시아의 중요한 해로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그리고 한반도의 변방인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침탈이 행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는 적극적으로 방어시설을 구축하여 남녀 구분 없이 지역방위를 위해 힘쓰는 한편, 평화를 지향하여 외교를 통한 안정을 꾀하였다. 방어 군사시설인 성과 연대 및 봉수대 등의 시설물이 일찍이 고려조부터 조선조 중기에 이르도록 축조되어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제주 지역의 성은 크게 읍성, 진성, 장성 등으로 구분된다. 제주지역어로는 ‘잣’이라고도 하는데, 읍성은 도읍의 둘레를 에둘러 읍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고 진성과 장성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 이들 방어시설인 성과 연대 및 봉수대 등의 시설물들은 주로 바닷가에 길게 축조되었는데, 그 연대는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1948년 안팎에서 일어났던 ‘4·3사건’에까지 이른다. 관군이 처음 쌓기 시작하여 삼별초군 입도 이후 완성되고, 조선시대에 이르면 왜구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인 보완 축조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지며, 이를 ‘4·3사건’때에도 개보수하여 이용하였다고 한다.

서귀포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읍성으로는 표선면 성읍리의 정의현성, 성산읍 고성리의 고성의현성(古旌義縣城), 대정읍 보성, 인성, 안성리 일대의 대정현성 등이 있다. 진성으로는 지금은 흔적조차 없는 대정읍 하모리 일대에 쌓았다는 모슬진성, 성산읍 성산리 일

출봉 발치계의 성산성, 성산읍 수산리의 수산진성 등이 있다. 그리고 장성으로는 대정읍 일과리 바닷가의 일과리 환해장성, 남원을 태흥리 바닷가의 태흥리 환해장성, 성산읍 신평리의 신평리 환해장성, 성산읍 온평리의 온평리 환해장성이 있다.

〈표 4-1〉 평화 관련 이야기가 있는 제주 역사유적

유 적	소 재 지	비 고
삼성혈	제주시 삼도1동	탐라국 건국 신화 상의 유적 및 신화 있음. 주변국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정치설화도 있음
혼인지와 동굴집자리 유적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탐라국시조들이 벽랑국 세공주를 맞아 목욕재계하고 혼인한 연못과 신방을 차렸다던 동굴집자리 유적, 신화 있음
황날, 화성개, 쾌성개 포구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벽랑국 세공주가 탐라국에 입성한 신화와 관련된 자연포구들. 신화, 현장있음
수산진성과 진안할망당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수산초등학교 울타리 동쪽	방어시설 및 이에 얽힌 인신공희(人身供犧)신화, 당 있음
정의현청과 안할망당 (관청할망당)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관현 율타리 안	조선시대 제주지역 관가와 관련된 시설 및 신화, 당 있음
대정현성과 수월이못(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방어시설 및 지역관기에 얽힌 유적, 설화 있음
제주성과 가라cut물	제주시 오현단 일대	방어시설 및 성교란과 관련된 유적, 설화 있음
별방진과 별방포구 [문주란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도로의 바닷가	제주여정과 관련된 방어 시설 및 포구에 얽힌 이야기, 우리나라 유일의 아열대식물인 문주란 자생섬이 있음
환해장성과 김통정장군 당, 우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온평, 신산리 해안도로	고려 말의 삼별초의 난과 관련한 항몽방어 및 왜구방어시설, 당, 신화 있음
항파두리성과	제주시 애월읍 고	삼별초가 건축한 방어시설 및 장수 김통정과 관

장군물, 고내리당	성리, 고내리	련된 신화와 당, 평화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제주 여자아이 설화 있음
--------------	---------	--

〈표 4-1〉과 〈표 4-2〉에서 보듯이, 역사유적 및 관련 유적과 유물, 신화들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러한 제주의 방어유적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제주평화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제주의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표 4-2〉 제주방어유적 현황

성	진	봉 수	연 대
제 주 성		사라봉수, 도원봉수, 수산봉수, 월당봉수	수근연대, 조부연대
	화북진		별도연대
	조천진	서산봉수	조천연대, 연포연대, 함덕연대
	별방진	입산봉수, 왕가봉수	무주연대, 좌가연대, 입두연대
	애월진	고내봉수	남두연대, 애월연대
	명월진	도내봉수, 만조봉수	귀덕연대, 우지연대, 죽도연대, 마두연대, 배령연대, 대포연대, 두모연대
정 의 성		토산봉수, 달산봉수, 남산봉수, 독자봉수	별포연대, 소마로연대, 천미연대, 말등포연대
	수산진	수산봉수, 성산봉수, 지미봉수	협자연대, 보목연대, 우미연대, 금로포연대
	서귀진	삼매양봉수, 예촌봉수, 자배봉수	연동연대, 보목연대, 우미연대, 금로포연대
대 정 성		구산봉수, 호산봉수, 저별송악봉수	변수연대, 마희천연대, 대포연대, 별로천연대, 당포연대, 산방연대, 서림연대
	모슬진	모슬봉수	무수연대
	차귀진	당산봉수	우두연대

자료출처: <http://jejusamda.com/>

〈표 4-2〉의 제주 방어유적들 가운데 진을 제외한 성과 봉수 및 연대 대부분은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거나 복원되어 있다. 방어 유적 가운데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38개 연대의 위치와 현재 상태 가운데 대표적 시설 몇 가지를 제시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관광자원 활용가치가 높은 대표적 연대 시설

방어유적명	위치	상태
서림연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275-1번지 선 공유수면	이 연대는 1977년 보수하였는데, 하부 9.4m×9.8m, 상부 8.5m×8.6m, 높이 3.9m
배령연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649번지 연대동산	원형(圓形)으로 축조되었으나 많이 훼손되어 하부 직경 4.9km, 상부 직경 1.6m, 높이 1.9m만이 남아 있음.
애월연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애월초등학교 서쪽 600m 거리 속칭 '연디왓'	안에서 450m쯤 떨어진 동산 위에 축조되었는데, 상부 8.3m×8.2m, 하부 9.3m×9.4m, 높이 4.8m로 도내 연대 중에서는 비교적 웅장한 연대
대포연대	서귀포시 대포동 2506번지 해안절벽 벼랑 위	현재는 바다쪽으로 길이 7m, 높이 1.5m의 기초석만 남아 있음. 주변경관이 장관을 이룸
당포연대	서귀포시 하예동 1729번지 포구 동쪽 '연대왓'	많이 훼손되어 기초석만 남아 있으나 주변경치가 아름답음
수근연대	제주시 용담동 2290번지 해안도로변	잘 복원되어 있음
남두연대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780-1번지 해안도로변	잘 복원되었음
우지연대[쇠 못연대]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3977번지 장로동(長路洞) 입구 서북쪽	1976년 고증(考證)을 거쳐 복원, 비교적 원형대로 보존이 잘돼 있으며 같은 해 9월 9일 제주도기념물 제 23호로 지정되었음
조천연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980번지	조천 포구와 인접한 곳에 타원형으로 된 조천 성과 함께 연북정, 비석거리가 있고, 그 북쪽으로 대략 300m 정도를 더 가면 해안에서 약 50m정도 떨어진 높은 언덕에 연대가 있음.

소마로연대[쇠모루]*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332-6번지 '한지동' 동쪽 연덕뱅디	지방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어 있음. 이 연대 일대는 정의현의 형방 홍석기(洪碩基)와 관련된 전설이 있음.
협자연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7번지 신양리 십지코지	긴판석으로 층층히 쌓아 횡력(橫力)을 견딜 수 있도록 축석하였으므로 원형이 잘 보존되었음. 해안절벽과 푸른바다. 선돌바위 등 주변 경관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여, 다른 관광 자원과 연계된 곳으로 도내 연대 중에서는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임
말등포연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355-1번지	도내 38개 연대 중 가장 원형대로 보존된 연대

자료출처: <http://jejusamda.com/>

- *1) 소마로란 명칭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으나, 소떼를 방목하던 들판이라 하여 '쇠모루'라 부르면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음
- 2) 문장에 능하였던 홍석기가 당시 위미리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그 보고문을 일목요연하게 잘 구사하여 쓴 연유로 목사로부터 연덕뱅디의 일부를 상으로 받고, 정의현의 별방(刑房)이 되었다고 함.

평화와 관련한 제주도내 역사문화관광의 현장이자 시설로서 <표 4-4>에서 제시되는 자원들을 활용,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평화관광의 인프라로 사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표 4-4> 역사문화관광 현장 및 관련 시설

이름	소재지	비고
항몽유적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고려조 말, 김통정을 우두머리로 삼은 삼별초 잔여세력의 항거 현장
추사적거지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조선조 말, 정치가이면서 학자였던 추사 김정희 적거지
만세동산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제주도민 일부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하고자 1919년 만세를 불렀던 동산

항일기념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만세동산과 관련된 기념시설
송악산 진지동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이수동 (송악산)	일제가 대동아 전쟁말기 제주도를 최후 보루로 삼고 조성했던 군사시설
알뜨르비행장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이수동 (송악산) 인근	일제가 중국 등 대륙침략 및 대동아 전쟁을 위 하여 제주도민을 강제동원하여 건설한 비행장 시설 및 격납고
백조일손지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인 물들을 색출, 학살한 이들을 집단 매장한 현장
강병대교회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한국전쟁 당시 훈련소 시설의 일부로 건설된 교회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송산동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술가 이중섭이 가족과 함께 피난와 살았던 거처를 중심으로 건립된 기 념미술관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시 삼도1동	제주인의 삶의 흔적과 제주섬의 형성근거 및 자 연자원을 전시해 놓은 자료관을 겸한 박물관
평화박물관	서귀포시 한경면 청수리	일제에 의하여 구축해 놓은 진지동굴을 근간으 로 체험 및 관광을 겸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말등포연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355-1번지	도내 38개 연대 중 가장 원형대로 보존된 연대

(2) 여성 관련 설화-유적 인프라 및 활용

가) 조선시대 여성 관련 유적지 사례

첫째, 수산진성(水山鎭城), 대정현성(大靜縣城), 정의현성(旌義縣城)과 여정(女丁)을 들 수 있다. 소재지는 성산을 수산리 579-1, 580번지로 수산초등학교 울타리 일원, 대정읍 안성, 인성, 보성리 일원, 표선면 성읍리 남문일대이다. 이들 성이 제주여성의 역사유적으로 제

시된 이유는 1600년대에 이러한 방어시설에서 제주여성들이 군인으로 복무했다는 기록이 고문헌에 전해지기 때문이다.²⁰⁾

일찍이 제주여성이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다시 말해 공적인 사회조직원으로 지역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복무하였다는 사실은 이제 돌이켜봐도 매우 주목할 만한 역할 수행이었다. 이 사례는 제주여성이 오래 전부터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였음을 더듬어 볼 귀중한 사료이다. 지금까지도 국방의 임무는 주로 남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반해, 남성우월주의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여성도 똑같이 그 대열에서 제몫을 해냈던 것이다.

둘째, 조선조 초기 인신공희(人身供犧) 신화가 남아있는 수산진성과 진안할망당을 들 수 있다. 소재지는 성산을 수산리 수산초등학교 울타리 동쪽이다. 수산진성은 우도 부근에 자주 나타나는 왜구를 소탕하기 위하여 1439년(세종 21)경에 축성되었다. 하지만 1597년(선

20) ①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편저(編著)한 『남사록(南槎錄)』에는 지역방위 여군(女軍), 즉 여정(女丁)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김상헌은 1601년에 선조(宣祖) 임금으로부터 어사의 직을 받고 제주도에 파견되었던 관헌으로 전직이 성균관 전직(典籍)이었다.

“... 本州城中 男丁五百 女丁八百 女丁者 濟州之語也”

“본주의 성 안에 남정은 5백 (명)이고 여정은 8백 (명)이 (있다).

여정이란 말은 제주지역어이다.”

라고 여정에 대한 설명을 해 놓고, 뒤이어 여정이 담당하는 지역방위임무가 어떠한 것인지도 적어놓았다.

“대개 남정은 매우 귀하여 만약 사변을 만나 성을 지키게 되면 민가의 튼튼한 여자를 골라 살받이터 어귀에 세워 여정이라고 칭하는데 삼음이 한가지이다.”

② 1701년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제주도를 순력하며 보고들은 것을 화공을 시켜 그림과 글로 기록한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와 『남환박물』에도 진성에 근무하는 여정에 대하여 써놓았음. 결절한 기질에다 거침없이 행동하는 여성을 일컬어 남제주 지역에서 일컬어지는 ‘여청년’은 여정의 음이 와전된 것이다.

조 30)에 이경록 목사는 우도에 가깝고 그 일대 바다의 뱃길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성산 일출봉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면서 폐성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음에도 오직 성산성을 쌓는데 주력하던 그는 병을 얻어 세상을 하직함에 따라 마침 성안에 식수가 없음으로 요새로서 여건이 미비하다하여 다시 1599년(선조 32)에 본래대로 수산진성으로 환원하였다고 한다.

제주의 성들은 쌓은 재료에 따라 토성(土城), 석성(石城) 등으로 구분하는데 수산진성은 둘레가 1,164척, 높이 16척에 이르는 석성(石城)이다. 동서에 각각 문이 있었고, 성안에는 우물과 객사, 군기고(軍器庫)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지금은 우물도 매립되어 버리고 객사와 군기고는 흔적조차 없지만 성은 온전히 보존되고 있다. 이 성은 아직도 원형에 가깝도록 견고하게 남아있어 일부는 현재 수산초등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돌담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수산진성의 동쪽에는 '진안 할망당'이 있다. 성벽을 의지하여 올랐던 숲속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이 당은 성을 쌓을 때에 얹힌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군사요새지였던 수산리에 진성을 쌓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꼭 완수해야 하는 중대한 과업이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신화는 매우 비장하게 엮어졌다. 열세 살 잔나비띠 여자 아이가 희생 제물로 바쳐져 축성된 성이 수산진성이며 진 안에 그 희생된 영혼을 모셨기에 '진안할마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셋째, 조선시대 대정현성 밖의 수월이못(수월이물)을 들 수 있다. 소재지는 대정읍 안성리 대정현성 북쪽 약 1km 지이다. 구전에 의하면 옛날 보성, 인성, 안성리가 모두 대정고을이었을 때 '수월'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재치 있고 예에 능한 관기(官妓)가 서울에서 들어와 대정고를 대정현청에 속하였다 한다. 수월이라는 한 여성의 삶의 질곡이 연못으로 변하여 시공을 초월하면서 우리 여성들에게 잘 살라는 교훈을 주는 듯한 물자리이다.

넷째, 조선시대 정의현성과 관청할망당을 들 수 있다. 소재지는 표선면 성읍리 일관현 올타리 안이다. 조선조 초기 제주섬을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할 때는 지금의 성산읍 고성리에 정의현청이 들어섰다. 하지만 정의현청 소재지가 너무 동쪽에 치우쳐 있다하여 정의현 관할의 중간쯤 되는 위치인 진사리, 즉 지금의 성읍리로 현청을 옮겼다. 이때가 1422년(조선조 세종 4) 12월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도안무사 정간(鄭幹)은 이 성을 쌓는 것에 대한 조정의 병조가 명한 공문을 근거로 삼아 책임 감독관에 제주판관 최치염(崔致廉)을 임명하고 그의 지휘아래 제주 삼읍의 백성들을 총동원하여 일사불란하게 부역하게 한 결과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쌓은 성의 둘레는 2,520척, 높이 13척에 이르렀는데 후에 증축하여 둘레를 2,986척이나 되었다. 1899년의 정의군읍지(旌義郡邑誌)에 의하면 성 둘레 2,986척, 높이 13척, 동서남에 문이 3, 성안에는 우물이 2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조성된 정의현성 안의 정의현청 중의 하나인 일관현 깊숙이 ‘관청할망당’은 외지에서 본의 아니게 시집온 여성에 대한 지역민의 배려와 그에 대한 화답 등을 고려해보면 이미 오래 전에 제주도민의 열린 살림 위에 아로새겨진 외지 여성의 ‘돌보아 주는 미덕’이 시공을 초월하여 차고 넘치는 여성유적지이다. 지금도 예동지 따남아기를 수

호신으로 모신 성읍리 일관현 안뜰의 '관청할망당'을 현지 주민들은 '관청할마님'이라고도 부르면서 특히 공무원 가족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가는 당이다.

나) 여성신화 관련 유적지 사례 및 관광자원 가능성

첫째, 제주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 관련 유적지가 있다. 성산을 성산리 일출봉의 등경돌(징경돌), 성산을 신양리 섭지코지 일대 바다, 그리고 표선면 표선리 표선백사장 일대와 당개 (설문대)할망당이 그 예이다.

설문대는 역사 이전에 신화(神話)로 존재하는 '상징적 의미의 최초의 제주여성'이다. 신화상 제주도를 창조한 이 설문대 신화는 제주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어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설문대 영혼은 하룻밤 사이 온 마을의 소와 도끼를 동원하여 깊은 바다를 매워 모래밭을 조성한 이후로 마을사람들은 그 모래밭 끝머리 포구근처에 설문대를 위해 할망당(堂)을 설립해 대를 이어 그의 공적을 기린다고 한다.

설문대가 제주 섬을 창조하는 초입 부분과 표선리에서 벌인 토목공사 부분을 제외한 행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 배경은 흥미롭게도 거의 모두 제주여성의 일상적인 생활사 에피소드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것도 평범한 인물과 구분되지 않는 여성, 특히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 섬을 창조한 신(神)이면서도 다른 신화에 나타나지는 창조의 신들에서 보여지는 절대적인 권위나 권력 따위를 지니지 않았다. 신화상으로는 여성성이 풍부한 인물로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을 통해 '제주의 전통적이며 전형적인 여성'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있다. 따라서 설문대에게서 ‘일하는 여성’인 제주여성과 ‘노동적인 생활인’인 제주여성을 만나게 되며,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평화의 여신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설문대 신화는 수렵생활을 하던 시절에 모계중심(母系中心)으로 꾸려지던 제주인류사회의 일면이 설문대 신화에 기호화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신화에 나타나는 성(gender)은 주제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생활의 주도 혹은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 만들기’로서 삶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다.

둘째, 탐라국 왕비가 된 벽랑국 세 공주가 제주섬에 상륙한 유적이 있다. 관련 유적으로 성산읍 온평리 일대를 중심으로 황노알 일대, 혼인지와 바위동굴 집자리, 진드르 본향당 등이 있다.

탐라국 개국신화(開國神話)에 의하면, 제주 섬에 본격적이고도 조직적인 인간의 사회생활이 도래하여 나라를 열고 수렵생활에서 농경체제로 전환하는 첫 장이 벽랑국 세공주가 등장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신화에 따르면, 벽랑국의 세 공주는 오곡씨앗과 더불어 마소를 가져왔는데, 지금도 황노알 바닷가에는 그 때 세공주가 가져온 마소가 물으로 나오면서 밝은 바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신화에 나타나는 지명인 ‘황노알[황날]’의 경우, 가락국 김수로 왕의 신화에서 보여지는 우물자리 ‘알영’ 등과 더불어 신성한 장소를 일컫는 고대어라고 관련 학계 학자들은 주장한다.

셋째, 산방덕이와 산방굴사가 있다. 지금도 산방산 중턱의 산방굴사(山房窟寺) 천장에서는 심 없이 약수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물이 산방덕이란 바위의 여신이 흘리는 눈물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동굴 안

깊은 곳에 굴 천정까지 닿은 커다란 석상을 닮은 바위가 우뚝 서 있는데 이 바위가 바로 산방덕이가 돌로 변한 모습이라고 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산방덕이 섬 없이 흘러는 눈물로 이뤄지는 산방굴사의 샘을 하늘에서 땅으로 샘이 거꾸로 솟구친다하여 '거꾸리샘'이라고도 한다.

조선조가 중반에 들어서 중앙집권을 강화할 무렵인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주 삼읍을 순력할 때 수행한 화공 김남길에 남긴 탐라 순력도(耽羅巡歷圖)의 '산방배작(山房盃酌)'은 바로 이 굴에서 잠시 쉬면서 주변 경관을 관광하고 주연에 임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또한 산방굴사 동쪽 암벽에는 산방덕의 눈물을 두고 정의현감을 지낸 구영석(具齡錫)이 새긴 마애명이 있는데, [石勢龍頭壓/ 禪居烏夢空/ 霜雲生瀉底/ 靈液滴房中] 라고 쓰여 있다. 이 신화상의 유적은 바로 옆에 '용머리', '송악산', '형제섬', '가파도', '마라도' 등 신화가 깃든 자연문화유산을 거느리고 있어서 이와 같이 풍부한 신화유적과 자연유산이 어우러져 평화문화 관광자원을 형성하고 있다.

넷째, 마라도와 애기어깨 할망당이 있는데, 대정읍 마라리, 마라도 장시덕 동산이 그 소재지이다. 마라도는 1883년 전까지는 원시림이 섬을 덮어버린 정글이었다. 지금은 사람 키를 넘는 나무들이 거의 없으나 1701년에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이형상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 의하면 마라도의 한자표기가 '摩羅島' 즉, 갈(여기에서는 남쪽)마, 덩굴우거질 라, 섬 도 자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에는 섬 가득 숲이 울울창창(鬱鬱蒼蒼) 한 풍경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추론해 보건대 마라도라는 지명은 '남쪽의 숲이 우거진 섬'이라는 뜻으로 붙여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마라도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한 것은 공식적으로 1883년(조선조 고종 21)부터이다. 이때에 마라도, 우도 등 제주도 인근 섬에 대한 개경 허가가 내려졌다. 그 때에 김(金)성오 일가, 나(羅), 이(李), 한(韓)씨 등 몇 가족이 섬에 입주하여 울창한 숲을 불태우고 밭을 일구는 한편 여성들은 물질을 하였다. 마라도는 이 섬의 본섬인 제주 섬과 마주보는 위치에 ‘애기어째 할마님’을 신으로 모신 당이 있다. 그 신화의 내용이 너무나 애달고 처절하여 이제도 가슴이 저려온다. 마라도에 사람이 터잡고 살기 이전에 생존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었던 마라도 첫 주민인 애기어째인 그 어리디 어린 ‘할마님’의 수덕으로 인하여 물 한 방울 샘솟지 않아 메마르고 척박한 섬이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이 당에 얽힌 신화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입촌조 조상의 후예인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모슬포와 가파도가 가장 잘 보이는 바닷가 동산 위에 ‘애기어째 할망당’은 두 평 남짓한 공간을 돌담으로 둥그렇게 둘러쳐 있고 상석이 놓여있다. 마라도가 관광지로 유명해지면서 내도객이 넘치는데, 이 당이 있는 장시덕은 사람의 버릇없는 접근을 막는 금기시되는 영역으로 아직까지도 설정되어 있어 더욱 유명하다.

다섯째, 동백나무 울타리 숲이 있는데, 버duc할망 돛박술 제주도 기념물 39호 사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그 소재지는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2리 903번지 외 6필지이다. 조선조 후기 현맹춘이 현존하는 제주 최고이자 최대의 동백나무 울타리 숲과 산책길을 조성했다. 이 숲은 일을 하되 후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당장 눈

앞의 생활을 지혜롭게 영위한 제주여성의 삶의 흔적이다. 따라서 제주여성의 근면성, 미래지향성, 일상생활에서의 평화추구성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적지를 끼고 길고 가느다란 오솔길이 둥글게 감싸고 있어 산책로도 매우 인상적이다.

4) 4·3역사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4·3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주 4·3사건에 대하여 참여정부에서 사과가 이뤄졌으며 이를 중요한 하나의 토대로 하여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혹은 협력하여 사건의 사실규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해 발굴, 진상 규명보고서 발간 및 관련 시설 건설, 연구기관 설치 등 사업을 병행해 오고 있다.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단체와 제주도민 유족회 등에 의하여 그 본질 및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의 일환으로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이해를 돕는 관련 지역을 '순례', '역사탐방'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여행행사'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4·3 사건 관련 여행은 제주 주민 직접희생자의 자취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평화를 지향하는 현지 주민, 내방객, 관광객 일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3사건의 본말은, 역사적 차원에서 보면 당시 세계정치사의 판도를 가르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 즉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으

로 나누어지는 메가트렌드(mega-trend)에 휩쓸려 제주도와 제주주민이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하여 희생 제물로 상징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 시대의 국제정세와 대한민국 건국과정이 배제된 흑백논리의 과다한 적용으로 인하여 4·3사건의 현장인 제주 섬과 제주주민의 피해의식을 고착화시키는 인식 즉,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지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문화 및 그에서 비롯된 역사문화관광산업 등이 펼쳐질 여지가 있다.

(2) 제주 4·3 역사문화관광의 가능성

“우리 모두 시대적 상황의 희생자”라는 데서 출발하여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새로운 제주 4·3 평화문화를 정립할 때이다. 더불어 평화를 문화적으로 공유하고자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나아가 평화산업의 한 축으로서 4·3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4·3사건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한 구체적인 평화문화관광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적 평화관광 루트를 재구성하며, 이와 관련하여 평화관광 사업자 및 참여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시한다. 나아가 제주 4·3이 제주의 역사문화관광의 한 축에 활력을 불어넣어 제주도의 전통문화예술 및 이를 빚어내는 일상생활 안에서의 ‘평화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주 4·3역사문화관광이 상품으로 시장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소비자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삶의 패턴, 즉 ‘일하면서

즐기고, 즐기면서 일하는' 일명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의 성향을 지닌 문화관광 지향적인 소비자의 취향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요구된다. 4·3 역사문화가 가진 특색,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대중성 확보를 위한 홍보전략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제주에서의 4·3역사문화관광의 가능성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4·3역사문화관광의 가능성은 외국의 선진사례를 통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찾을 수 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지역, 최초로 원폭 피해를 입은 일본 히로시마시의 평화문화 시설 및 행사, 베트남이 도이모이의 일환으로 시작한 관광산업으로서 베트남 내전과정의 시설에서부터 프로그래밍한 통일전쟁과정의 전적지인 호치민시 외곽의 구찌터널 및 하노이 시에서부터 호치민시 외곽까지 이어진 일명 '통일대장정루트' 등은 호응도가 높은 선진 사례이다.

〈표 4-5〉 NGO 및 언론매체가 구축한 4·3 평화문화 인프라

이름	주관(최) (기관)	비고
유적지 기행	(사)제주4·3연구소, (사)제주민예총	4·3행사 시
(마당, 거리)극	(사)제주민예총	4·3행사 시
미술, 사진 등 작품 전시	(사)제주민예총	4·3행사 시
음악(공연)제	(사)제주민예총	4·3행사 시, 기타
문학(낭송회, 시화전, 책 발간 등) 행사	(사)제주민예총(제주작가회의)	4·3행사 시, 기타
방송(다큐멘터리, 기타)	제주지역 및 중앙 일부 방송사	4·3행사 시, 기타

또한 4·3역사문화관광의 가능성은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이려니와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의 NGO와 언론매체가 구축한 4·3평화문화 인프라의 활용에 이어 제주도의 인문적·지리적 특성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3) 제주 4·3 역사문화관광을 위한 제언

4·3역사문화관광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2007년 4월 한 달 간 제주도의 4·3 사건 제59주년을 맞아 여러 문화관련 단체들이 거행했던 행사를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표 4-6> 2007년 제59주년 4·3 행사 일정표

날짜	사업명	일정	장소	주최
3. 30	4·3 증언본풀이마당	13시	열린정보센터 6층	(사)제주4·3연구소
3. 31	4·3 추념 시화전	31일~7일	제주4·3평화공원	제주작가회의
	4·3천도제	10시	제주4·3평화공원	관음사
4. 1	4·3 사진전	31일~5일	문예회관 제2전시실	탐라사진가협의회
	4·3 해원 방사탑제	10시	신산공원방사탑	제주4·3도민연대
	제4회 전도 4·3 어린이 웅변대회	13시	제주도청4층강당	제주4·3도민연대
4. 2	4·3 위령제 사진전	1일~4일	제주4·3평화공원	탐라사진가협의회
	4·3 평화공원 위령제	14~15시	제주4·3평화공원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제8회 행방불명인진혼제	15시30분~ 16시30분	주정공장 옛터	제주4·3희생자 유족회
	4·3희생자유해발굴 사 업 홍보전시	15시30분~ 16시30분	주정공장 옛터	(사)제주4·3연구소
	4·3 전야제	19시	신산공원	4개단체 (기획: 민예총)
4. 3	위령제 식전행사	10시	제주4·3평화공원	제주민예총

	4·3 사건희생자 범도 민위령제	11시	제주4·3평화공원	봉행위원회
	4.3희생자유해발굴 사 업 홍보전시 및 유해관련 접수창구 운영	11시~13시	제주4·3평화공원	(사)제주4·3연구소
	4·3천도제	17시	관음사	관음사
	4·3항쟁 59주년 4·3거 리곳	15시~19시	제주북교, 관덕정	제주민예총
	4.3희생자유해발굴 사 업 홍보전시 및 유해관 련 제보 접수 창구 운영	14시~18시	관덕정 일대	(사)제주4·3연구소
	4·3 미술제	3일~8일	문예회관 제1전시실	탐라미술인협의회
4. 4	4·3 평화음악제	19시30분	해변공연장	제주민예총
4. 7	4·3 해원상생굿	10시	빌레못굴	제주민예총
4. 8	4·3 역사순례	10시	제주서부지역일대	제주4·3도민연대
4. 14	4·3 문학기행	10시	터진목 학살터 중심	제주작가회의
4.21~ 4. 29	4·3 평화인권마당극제	별도시간표 참조	제주시 일원	제주민예총
4. 27	4·3 학술대회	10시	열린정보센터 6층	(사)제주4·3연구소
2007 연중	청소년 4·3유적지기행	10시	4·3 유적지 일원	제주4·3희생자 유족회
	4·3유족회 4·3역사기행	연중	4·3 유적지 일원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자료: 2007년도 4·3 관련 행사 유인물 및 팸플릿, 제주의소리, 2007. 4. 1

〈표 4-6〉은 2007년 4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제59주년 4·3 행사 일
정표'인데,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며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행사를 풍성하고 규모 있게 꾸리기 위해 타 지역 문화예술계 단체 및
국제적인 관련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음을 미

튀 짐작할 수 있다. <표 4-7>은 4·3 평화인권 마당극제 일정표이며, <표 4-8>는 제주작가회의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제14회 4·3 문학제’ 중의 문학기행 일정표로서 이와 같은 문화예술행사는 각 종목별로 구색을 갖추어놓고 있다.

〈표 4-7〉 4·3 평화인권 마당극제 일정표

일정	구분	공연명	장소	출연 단체
4. 21	길놀이	길놀이	제주시청→ 놀이마당 오후 5시	제주지역연합품물패(제주) 제주민예총 놀이패 한라산(제주) 극단 함께사는 세상(대구) 극단 갯돌(목포) 극단 달오름(일본 오사카) 극단 자갈치(부산) 노동문화예술단 일터(부산) 나무닭움직임연구소(서울) 마당극단 좋다(대전) 민요패 소리왔(제주) 하타 카노코(일본 도쿄) 놀이패 신명(광주)
	열림굿	생명살림굿	놀이마당 오후 6시	
	개막공연	사월굿 헛묘	놀이마당 오후 7시	
4. 22	공연1	절레꽃 피면	놀이마당 오후 6시	
	공연2	밥	놀이마당 오후 7시	
4. 26	공연3	4.24의 바람	소극장 오후 7시	
4. 27	공연4	둥글어진다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소극장 오후 3시	
	공연5	팔칠전	놀이마당 오후 7시	
4. 28	특별공연1	열사굿, 지나가리라	놀이마당 오후 6시	
	공연6	귀신은 뭐하나	놀이마당 오후 7시	
4. 29	특별공연2	삼승할망 꽃놀래	놀이마당 오후 4시	

	특별공연3	4.3진혼무 -순간의 왕	놀이마당 오후 6시	
	폐막공연	일어서는 사람들	놀이마당 오후 7시	
4.23 ~25	부대행사	워크샵		

자료: 2007년도 '제주 4·3 사건 제59주년' 관련 행사 유인물 및 팸플릿

〈표 4-8〉 제주작가회의 제14회 4·3 문학제 프로그램 문학기행

돌아오라! 바람 속에, 파도 속에 잠긴 이름이여.

일 시: 2007년 4월 14일 오전 10시

집결지: 신산공원 '4.3 해원방사탑' 앞

대 상: 제주작가회의 회원 및 일반 제주도민 및 기타 동참을 원하는 모든 이
코 스:

- 제주시 신산공원 "4.3 해원방사탑"
- 다랑쉬 "잃어버린 마을과 다랑쉬 굴"
- 성산포 "터진목" 학살터
- 구, 성산초등학교 (서북청년단 주둔지 사무실)
- 오조리 "식산봉" 오름
- 종달리 "두문포"
- 하도리 "금봉사"
- 동복리 "바람타는 폭낭, 굴왓 학살터"
- 김녕리 "마당궐"

문제는 4·3 사건을 위무하거나 그 흔적을 더듬는 소위 '4·3 사건 기억하기' 행사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4·3역사문화관광의 가능성은 이러한 문화예술 행사와 '평화의 섬 제주'를 동시에 체험하는 관광상품화 시도 및 그 홍보를 어떻게, 누가 주체가 되어 기획해 내고 그 결실을 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세계평

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와 '4·3 사건'의 이미지를 몸과 마음으로 깊이 체험하여 평화를 만끽할만한 프로그램을 기획해내는 작업을 담당할 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 ② 4·3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현장에 풀어놓는 작업을 해낼 실무자를 양성, 확보하는 것, ③ 4·3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받아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관광업계를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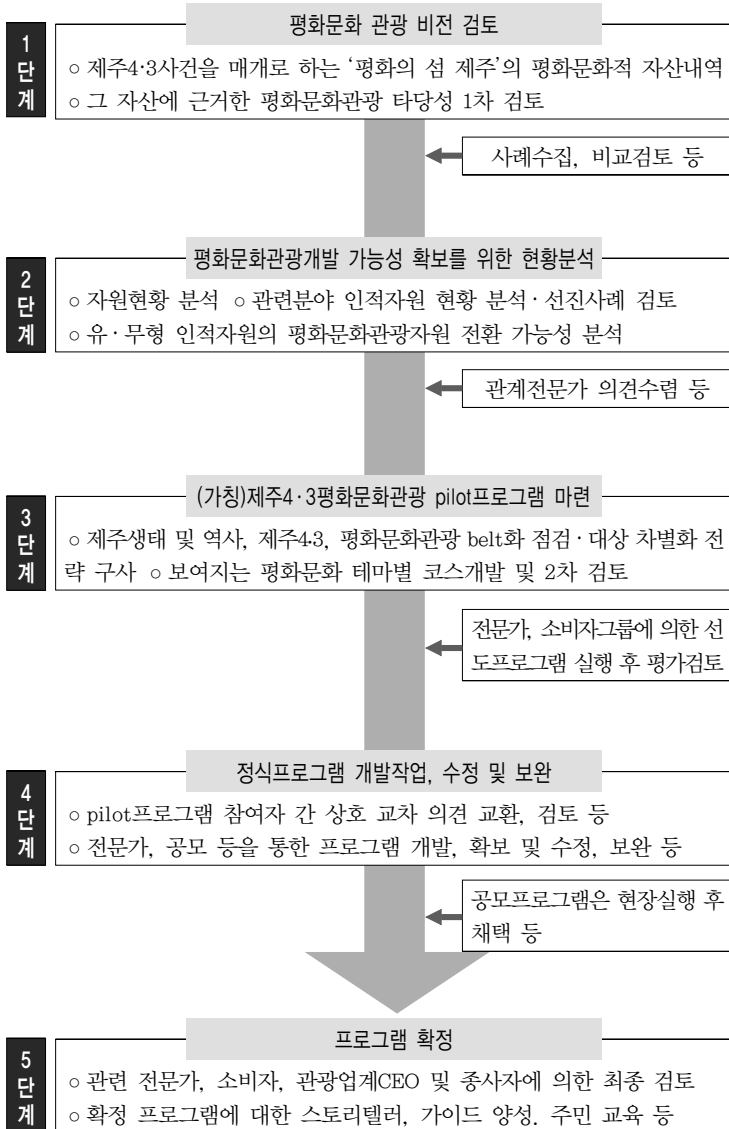
그러면, 제주 4·3 역사문화관광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그림 4-4>와 같이 단계별 추진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단계별 추진 과정의 예를 제시해보면 <표 4-9>와 같다.

<표 4-9> 평화문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별 (계획)추진의 예

추진 과정	주요 내용
기본 자료조사	-관계자로 수집·검토, 관련사례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등
관련분야 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련 관광지 답사	-관련분야 관계자 대상 개인별, 그룹별 인터뷰 등 -현재 진행되는 관련 관광코스 답사를 통한 상품 체험
분석을 통한 모델 개발	-제주4·3사건을 테마로 한 평화문화관광코스 모델 개발 -제주4·3사건 평화문화형 관광 모델 운영 방안 제시 -제주지역 평화문화 형태 모델에 적용 가능한 관광교육과정 개발 제시(관련 사업자, 안내원, 스토리텔러, 코스 기획자 등 전문가에 대한 양성 교육 등)
pilot 프로그램 운영 후 수정·보완	-선도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운영 후 나타난 문제 점, 강점, 약점 등 검토, 처방 마련
최종 프로그램 확정, 보급	-통일된 이미지의 제주평화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확정, 현장 보급

주요 아이템이 제주4·3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성요소는 제주사람의 전통적인 공동체 및 삶의 방식인 생활문화에서 차입해야 하며, 평화



〈그림 4-4〉 제주 4·3 평화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별 추진방법

추구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광에 참여하는 최종 목표는 지적·정서적으로 풍요로움이 한층 상승되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면서 진행할 것이다.

- ① 이를 충족시킬 만큼 지적 가치가 보장되는가?
- ② 심미안을 충족할만한 정서적인 풍요로움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가?
- ③ 프로그램 구성상 콘텐츠들이 편견에 의하여 혹시라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거나 비어있지는 않는가?
- ④ 관광 시간을 오락적으로 충분히 즐길 만큼 흥미로움 등이 담보 되어 있는가?
- ⑤ 최종적으로 이를 관광한 당사자에게 각인시키고자 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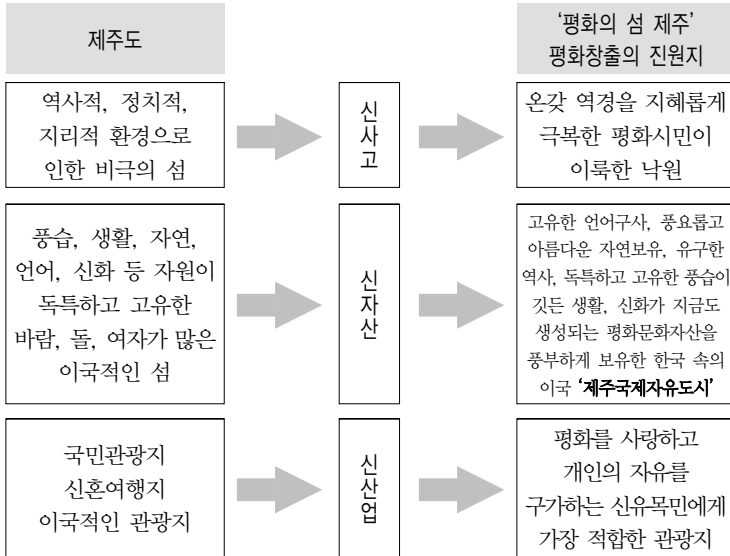
이 주요 아이টে을 상품으로 제시하는 관광업자, 현장 안내자, 현장 해설자 등과 현지주민 간에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동시에, 이 주요 아이টে과 관련한 관광업계 및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평화문화 메신저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 구성의 예(제주 바닷가 마을의 경우)

〈표 4-10〉 평화문화 관광 프로그램 구성의 예

주 아이템	주요 내용	비 고
제주섬 주민 공동체와 제주4·3 평화문화 체험관광	1. '평화의섬 제주'의 바닷가마을 잠수 [해녀]공동체 참여하기 - 잠수마을 일상생활 공개,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잠수의 물질(불턱, 잠수바다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어촌계 등 특화된 공동체 참관 등 - 잠수굿 등 축제의 재구성, 공개 - 기·제사 등 가족공동체가 확대된 마을 공동체 공개 이에 대한 관광객의 소극적 관람, 적극적 체험 등 선택 부여 2. 제주4·3 사건 관련 현장 답사 3. 진성,장성 등 역사유적답사 4. 공동체 일상의 웰빙 체험(해수,갯섬목욕/해조류채집 및 건조, 가공 등) 5. 평화문화시설 관람(굿 기매 전시회, 어촌생활박물관, 잠수자료전시관[해녀박물관], 제주평화연구원 등) 6. 평화공동체 만들기 및 체험(*테우 건조, 승선 체험, 물질 체험, 제주 사람처럼 살기 체험 등)	1.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참여 마을 혹은 공동체, 단체 등과 협약체결 필수 2. 참여 마을, 공동체는 마을 특성을 잘 알려줄 스토리텔러 및 가이드 확보 필수. 3. 프로그램은 제주평화문화가 중심이 되는 - 제주섬의 주민 공동체의 특성을 부각시켜 제주4·3사건에서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미지 메이킹하여, - 마을 혹은 공동체는 '찾아와 함께 하려는 관광객'을 환대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긴 시간 동안 머물도록 유도, 이를 계기로 평화문화 관광을 통한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중, 질과 양이 보장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임

(4) 제주역사문화관광을 위한 이미지 제고의 예



〈그림 4-5〉 제주역사문화관광을 위한 이미지 제고의 예

5) 제언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이를 관광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으로 가시화된 장소 혹은 유·무형의 문화 자원이 평화의 이미지를 한껏 구가하면서 동시에 적극·상시적으로 관광객에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패턴과 역사문화관광 패턴은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 즉 원론적인 가치부터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적, 공연장, 체험장 등 현장과 휴게 시설, 식당 등 편의시설이 이동거리 내에 배치되어 쉽게 접근하고 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동원 가능한 인력으로서의 인적자원, 시설, 이동 수단 간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사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 항시 진행되는 회의산업, 방문자 프로그램, 기존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확보하고, 관광객의 선호도를 미리 파악하여 어떤 경우에도 대처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삼시에 변경·재구성해내는 능력 배양과 그에 따른 인력이 상시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예비 인력, 예비 프로그램 등이 항시 준비되어 대기상태에 있도록 잉여 소프트-뱅크(soft-bank)를 갖춰야 할 것이다.

현대의 관광을 주도하는 관광객 다수는 지적·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나 한 곳에 진득하게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여기에서 저기로', '이 체험을 통하여 다음 체험으로 옮겨 다니는' 유랑 기질이 다분하므로, 이들의 관광 욕구를 충족할만한 정서상의 제주관광지 조성이 또 다른 필수 조건으로 요구된다.

태평양의 동아시아 구석진 귀퉁이 바다 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섬으로서의 제주도는 네거티브 역사의 범주에 속하는 '4·3사건'을 승화시킴으로써 '세계 평화의 섬 제주'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세계 속에 제주'로 승화됨과 동시에 평화의 메신저로 활약하게 되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를 유념하여 평화를 창출하는 진원지로서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역할에 알맞은 역사문화 관광의 성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 섬의 역사와 전통과 삶의 문화의 범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를 꾸리는 평화문화관광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원풍경(Original Landscape)을 메인 캔버스(Main Canvas)

로 삼고, 디지털시대에 향수를 자아내는 아날로그적인 체험을 통한 제주만의 독특한 아이디어 관광을 주도할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역사 문화관광에 대한 지적·오락적 상승효과를 만족시켜 줘야 할 것이다.

제주관광 클러스터의 일환으로 제주생활사 문화관광과 제주 4·3 역사문화 관광을 제시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① 평화를 찾아오는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만나는 공간, ② 사람과 문화, 평화가 공존하는 공간, ③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인의 친선을 촉진하는 민간교류 공간, ④ 전통적이면서도 누구나 친밀하게 찾아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관광자원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독특한 자연경관, 고유한 생활문화 및 예술이 관광산업으로 거듭나 지역경제를 창출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화 및 그 문화를 특화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교육현장에 도입함으로써 진정한 평화시민 및 지역의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생태관광

1) 제주 자연생태관광 육성의 가능성

제주는 관광객들에게 책임 있는 관광을 즐기며 자연의 고귀함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 등 평화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제주가 평화의 섬이자 평화관광의 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생태관광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요인지에 관한 관광객 대상(전체 267명)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할 필요

가 있다.²¹⁾ 제주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① 자연체험개발(37.8%), ② 테마관광지개발(17.6%), ③ 위락시설개발(15.7%), ④ 스포츠시설확충(12.4%), ⑤ 쇼핑분야(10.9%), ⑥ 기타(5.6%)의 순이었으며, 생태관광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서는 ① 오름 등 새로운 생태관광분야(36.3%), ② 자연관찰을 위한 휴양림분야(35.6%), ③ 농어촌체험관광(13.5%), ④ 철새도래지 등 탐방분야(11.2%), ⑤ 기타(3.4%) 등의 순이었다.

생태관광의 유형에 따라 제주도내 주요 생태관광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경관(성산일출봉, 지삿개 주상절리, 산굼부리 등 오름), 야생동물서식지(하도리 철새 도래지, 창홍 양어장 등), 식생군락지(비양도, 비자림, 난도문주란 자생지 등), 자연문화축제(고사리 꺾기대회, 들불축제, 감귤축제 등), 해양생태자원체험(종달리 조개잡이 체험), 지질자원(만장굴, 수월봉(화산분출) 등) 등이 분포되어 있다.

위의 설문 자료에 근거하여 제주형의 일반적 관광 및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제언하면 첫째, 악천후 상황 발생시 관광객들의 실내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대형몰이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장소가 필요하다. 둘째, 지하수와 공항 등 제주의 관광 수용능력을 고려하면서 파괴되기 쉬운 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노하우의 집적이 요구되며, 특히 훼손되지 않은 자연생태계의 보존이 절실하다. 셋째, 대량관광을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광수요에 부응한 평화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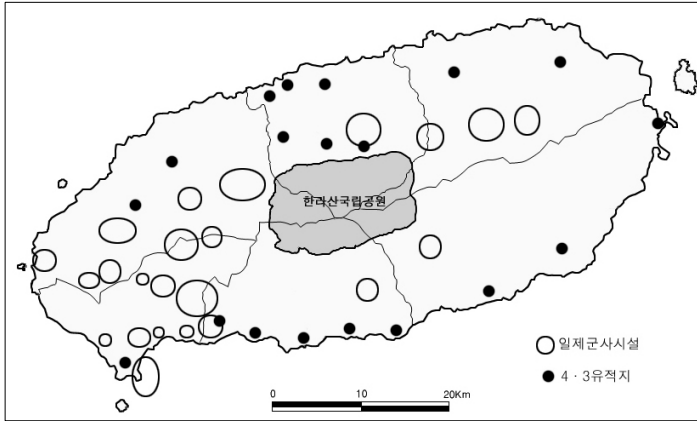
21) 최용복,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국토연구』, 제36권(2003), pp. 97-110.

새롭게 증가하는 관광수요로 배낭여행객, 젊은 모험객, 학생을 포함한 가족단위 관광객, 가치 추구 여행객, 성인 자연 애호가, 특별한 관심이나 흥미를 가진 그룹(조류관찰객 또는 환경보전단체) 등이 있다. 이러한 관광 및 탐방객은 각자 출발 전에 사전 자료 수집을 하겠지만, 제주도에서 수준 높은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자료는 ‘아는 만큼 보인다’를 실현시켜 주어 기대 또는 기대이상의 관광 만족도를 제공하며 동시에 성취감과 학습효과를 만들어 만족도를 배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제주도 평화관광 자원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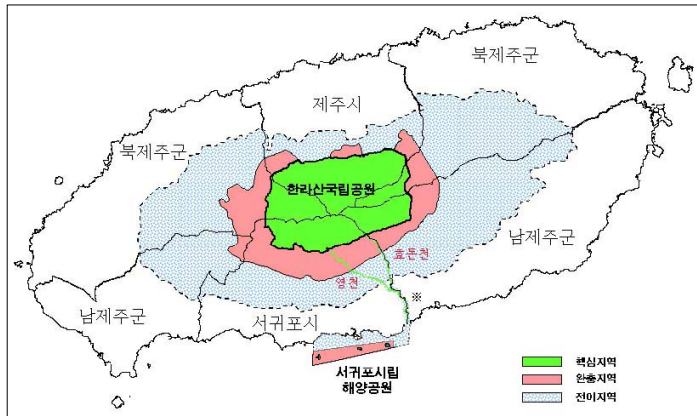
제주는 다양한 대안관광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제주형 생태관광을 만들어 낼 기본 요소·대상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요망된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연 이해, 자연 보존, 자연 즐기기 등 환경교육의 일환으로서 한정된 자원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과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한라산, 일출봉, 용암동굴)과 오름, 마라도, 꽃자왈 등에 대해 보존과 활용이라는 이율배반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제주도민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

제주 평화관광의 자원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4·3 및 일제 강점기 군사시설(〈그림 4-6〉 참조),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 보전지역(〈그림 4-7〉, 〈그림 4-8〉 참조), 오름, 꽃자왈, 용암동굴 등(〈그림 4-9〉, 〈그림 4-10〉 참조) 등이 있다.



출처 : 황석규, “전쟁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이동, 배치, 편제, 전략 등에 관한 군사사회사적 의미,” 『사회와 역사』, 제72집(2006)와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제주 4·3 유적지 기행』, 서울: 학민사, 1998)를 선별·수정.

〈그림 4-6〉 주요 제주 4·3유적지와 일제 강점기 군사시설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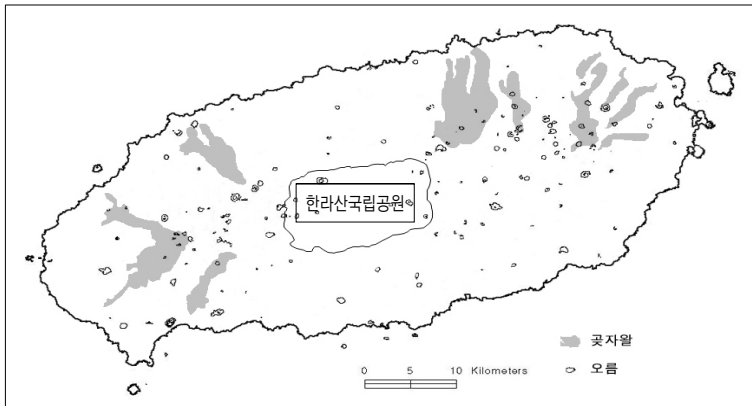
출처: 김태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2003).

〈그림 4-7〉 유네스코 지정 제주생물권보전지역: 한라산과 영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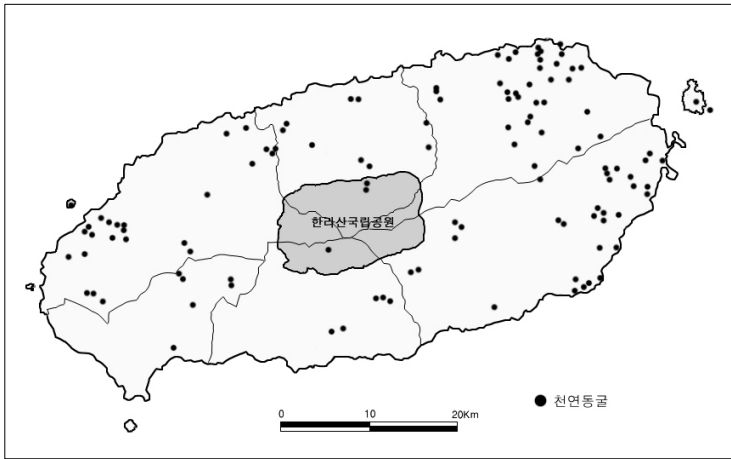
출처: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whc.unesco.org/>)

〈그림 4-8〉 세계자연유산 지역: 한라산, 성산일출봉, 용암동굴지대



출처: 제민일보 곶자왈 특별취재반, 『제주의 허파 곶자왈』, (도서출판 아트 21, 2004); 제주도, 『제주의 오름』(1997)을 수정.

〈그림 4-9〉 제주도의 오름, 곶자왈 분포



출처: 김범훈, “제주도 용암동굴의 보존 및 관리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그림 4-10〉 제주도의 용암동굴 분포

3) 제주 평화생태관광 대상물의 내용

제주형 평화관광 모델의 발전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면, 단기적 전략으로는 초기에 역사문화관광 모델과 생태관광 모델을 각각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상물의 역사문화와 생태적 내용을 정리, 발굴하고 평화관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장기 전략으로는 이들 역사문화 모델과 생태관광 모델을 혼합한 제주형 평화관광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생태관광의 단기와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내용 선별 및 구성이 필요하다. 평화생태관광은 가치, 보존, 활용, 교육 등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맞는 수준별 자료 집과 지도를 제작하여 관광객들이 스스로 활용하거나 안내를 받으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출간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합·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자연생태 이야기, 제주의 오름, 한라산의 인문 지리, 한라산 데이터 북, 제주도 지질여행, 제주도의 천연동굴 및 유사한 역사문화관광의 경우도 다양한 자료들이 출간되어 있으나, 이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통합·재구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제주도의 관련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관광객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한라산

한라산은 형성과정(제주도 개관), 지질특성, 고도에 따른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다.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선정 이유인 다양한 화산지형, 특히 대륙 지질판의 주변부 해양 환경에 형성된 순상화산은 비교적 드문 경우이다. 계절별로 변하며 나타나는 느낌과 색깔의 다양성, 폭포, 여러 가지 형상의 암석 형성, 주상절리 절벽, 호수 정상부 등이 경관적·미적 자연미를 보여준다. 여기에 관리가 잘되고 있음도 중요하게 평가된다. 따라서 한라산의 가치와 더불어 휴식년제의 도입, 훼손과 복구작업 등은 생태보존 및 환경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다. <표 4-11>과 같은 기타 한라산의 자연적 요소들도 관광요소로 가치가 있다.

〈표 4-11〉 한라산의 자연적 요소

자원	주제 및 내용	주제 및 이슈
한라산(체), 백록담	순상화산, 산정화구호의 특징	담압 또는 자연풍화에 의한 화구 정상부의 훼손, 화구호의 물 감소
어승생악, 성판악, 물장오리 등	측화산(오름)의 형성 과정과 특성	구성물질에 대한 물이해로 개발의 대상으로 간주(예: 스키장)
선작지왓, 만세동산	고산 초원지대의 특성	지구온난화로 인한 식생 변화
구린굴	고산지역의 용암동굴	고도별 용암동굴 특성 차이
구상나무/왕벚나무	세계적인 희귀수종	멸종화 되어가는 이유
섬새우란/제주양지꽃 등		불법 채취
노루/제주족제비 등		과잉보호로 인한 개체수 증가 또는 적정 개체수의 이슈

출처: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의 인문지리』(2006)를 수정·첨가

(2) 일출봉

일출봉은 분화구 자체로는 현무암 화산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즉 화산폭발로 마그마가 물과 접촉하면서 폭발력이 커지고 또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산산이 부서져 흑색유리와 같은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것이다.²²⁾ 그런데 세계자연유산 선정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일출봉이 형성된 후 파도에 의해 대다수의 외부구조가 침식되면서 내부구조를 보여주는 화산재층의 침식 절단면을 만들어 놓아 화산 분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데에 있다.²³⁾

아일랜드의 섯시분화구나 하와이의 다이아몬드헤드도 유사하지만

22)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지질 여행』(2003).

23)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Republic of Korea, <http://whc.unesco.org/>

절단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는 세계자연유산이 단순히 귀하다, 소중하다, 보존해야 한다는 것 이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현장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3) 용암동굴

유네스코 자연유산 선정시 다수의 검토자들이 제주도의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특징으로 용암동굴계를 주목한 바 있다. 거문오름 동굴계는 길이, 규모, 복잡미묘한 통로, 잘 보존된 내부 용암의 특성, 풍부하고 멋진 이차 석회 구조의 형성, 용이한 접근가능성, 그리고 이들의 과학적·교육적 가치로 인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제주 용암동굴에 나타난 석회구조물은 유사석회동굴 특징으로 중유석의 경우 석회암동굴과 유사한 흰색이지만 용암동굴의 것은 지표 위 조개껍질의 석회 성분이 녹아내리며 석회동굴에 배어들어 응고된 것으로 성인이 완전히 다르다. 거문오름 동굴계에는 만장굴, 뽕뒤굴, 영천굴, 김녕굴, 당처물동굴이 포함된다.

(4) 오름

제주도의 360여개 오름은 제주의 경관으로 중요하며 지질적 특성상 화산쇄설물이 쌓인 약한 지형이기 때문에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생화산구를 말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적 특성, 형성과정의 자연적 특성, 경관적으로 제주의 독특성, 제주다움을 보여주는 상징적 경관이며 지형이다.

제주의 오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²⁴⁾

- 환경적 가치: 지하수를 함양하고, 바람을 잠재우며, 울창한 삼림의 대기정화 기능.
- 생태적 가치: 동식물의 보고로 제주 생태계의 유지 기능.
- 역사적 가치: 목마장, 방어시설, 도피처, 방어·군사시설, 학살터 등의 장소.
- 문화적 가치: 묘지, 민간신앙의 대상, 설화·전설의 대상물.
- 위락적 가치: 제주인과 관광객들의 탐방 및 트래킹 대상.
- 경제적 가치: 오름 관광코스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 학술적 가치: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은 형성과정과 활용 등에서 순수 및 응용 학문분야의 관심대상.

(5) 꽃자왈²⁵⁾

꽃자왈은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로 쪼개지며 생긴 제주도만의 독특한 요철 지형이다. 자연림과 가시덩굴이 혼합 식생하는 자연의 보고로,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하며, 다양한 식생의 서식지이자 빗물이 스며들어 지하수를 함양하는 지역으로 중요하다. 꽃자왈 지대는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암괴들이 매우 두껍게 쌓여 있어 아무리 많은 비가 올지라도 빗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어 맑고 깨끗한 제주의 생

24) 제주도, 『제주의 오름』(1997).

25) 제민일보 꽃자왈 특별취재반, 위의 책.

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한다는 점에서 마치 ‘스펀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을 통해 유입될 경우 지하수는 오염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

꽃자왈은 자연림과 가시덩굴이 혼합 식생하고 있어 경작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모지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록수들이 주로 분포함으로써 한겨울에도 푸른 숲을 자랑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소비해주는 장소이자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라산에서 중산간을 거쳐 해안선까지 분포함으로써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완충지대 역할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되지 않던 꽃자왈이 특히 골프장 개발지의 일부가 됨에 따라 개발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제주도내 시민단체와 도민들은 제주의 허파 꽃자왈을 생태자원으로 보전하고 이를 도민의 공유된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해 ‘꽃자왈 한평사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4) 제주의 평화생태관광을 위한 준비 예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제주 관광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존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보통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이다.²⁶⁾ 예를 들면, ‘관광지에 대한 해설체계가 관광지마다 잘되어 있다’, ‘관광가이드의 안내내용’, ‘관광안내책자의 내용’, ‘관광안내책자 구입용이’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보

26)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진흥 기본계획: 기본과 기초의 확립』(2000).

통이다”라고 평가한다. 대안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 책자가 없고 그나마 일반관광용 안내책자는 대량관광을 겨냥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생태자연관광과 역사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자료 제작 그리고 이에 따른 특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평화생태관광이란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광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을 통해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며, 나아가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여 해당 지역사회와 더불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태평화관광을 위해서는 사전, 진행, 사후에 준비와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사전단계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즉 공급자인 제주도는 오프라인 자료나 책자뿐만 아니라 웹에서 다운 가능하게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새로운 관광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만큼 탐방호기심, 동기유발, 학습효과까지 고려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웹서비스, 특히 웹GIS를 통해 일부 간접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자인 관광객들에게 생태자연관광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평화생태관광을 위한 지침(예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환경부·강화도시민연대)의 전파와 이에 기초한 제주에서의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 방문하는 지역을 사전에 학습하도록 노력함
- 관광이 환경적으로 책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수용함

-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과 보전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고 지원함
- 방문하는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
-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숙지하고 있는 지역가이드를 선택함
- 방문지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들이 환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함
- 여행 경험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생각함

둘째, 진행단계에서는 관광객에 충분한 자료 제공(무가·유가) 또는 가이드(평화관광)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단체관광의 경우 20명 이하가, 그리고 가이드 해설의 경우 해설가 1인당 10명이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후단계에서는 마지막에 질문과 해설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평화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등을 고민하게 해야 할 것이다. 환경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 자신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평화를 위한 행동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한편,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평화관광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 확장 및 이의 발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접근으로 훼손으로부터 잘 보전하는 것을 순서대로 보여주면 스스로 평화교육이 되지만, 이 외에도 몇 가지 유형을 더 개발하면 좋을 듯하다. 예를 들면, 보전을 위한 방법에 대한 논쟁, 즉 한라산 정상부의 자연풍화를 막아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등의 보다 전문화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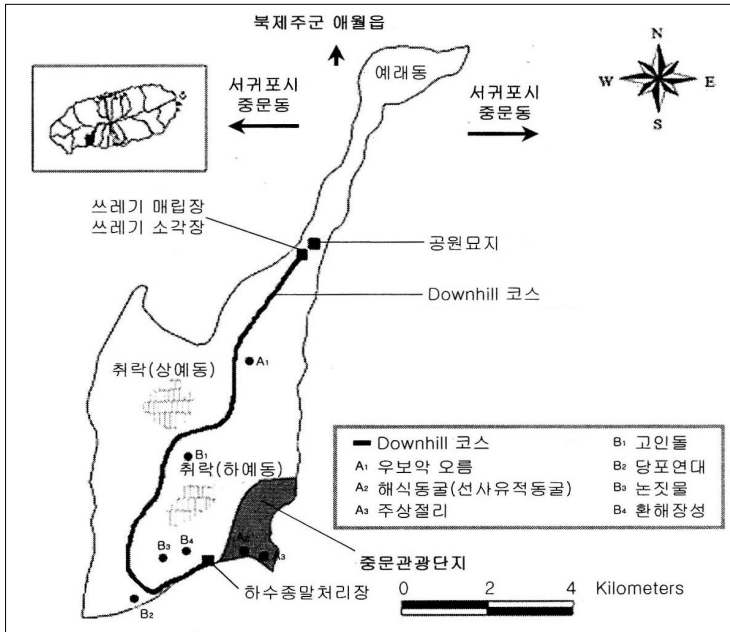
제도 다루어 봄으로써 생태·환경교육 측면을 강조하는 형태가 가능하며, 특히 학생층을 겨냥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제주 평화관광 예시: 생태관광으로부터의 발전

(1) 예래동 생태마을

예래동 생태마을은 마을 주관으로 대중관광객이 아닌 대안관광객을 겨냥하여 관광지로 개발한 대표적 사례이다. 시설 개발은 기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최소화하면서 마을내 자원을 목록화(역사유물로 동굴유적과 고인돌, 환해장성, 당포연대, 자연자원으로 주상절리군, 우보약 오름, 시설물로 쓰레기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생태적인 취락구조를 유지·조성하고 관광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주민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체험형 다운힐'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타고 중산간 지역에서 해안 지역까지 내려오는 체험형 관광상품이다. 코스의 시작으로 쓰레기 처리장, 종착점은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중간에 오름, 역사, 자연자원을 보면서 동시에 환경오염시설을 접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환경교육을 유도하고 있다.

예래동의 사례를 평화생태관광으로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생태자연관광코스로 육성하면서 오름의 형성과정과 특성, 하천 생태계, 해안가의 주상절리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생태마을로 발전·유지



출처: 제주 예래생태마을(<http://www.yerae.dom/>)

〈그림 4-11〉 예래동 생태마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마을 만들기의 과정을 접하면서 지역단위의 생태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프로그램을 생태+역사·문화로 묶어 이를 공간적으로 다른 지역과 연계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인근의 일제 군사 시설인 알뜨르 비행장, 백조 일손지묘의 4·3유적지 등으로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적·공간적 관광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화관광지도를 더불어 제공하여 관광객이 지도를 보고 주변지역의 생태와

역사·문화를 찾아 갈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내용자료들이 포함된 생태자연과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료집도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의 단체관광을 위한 안내자 교육 및 안내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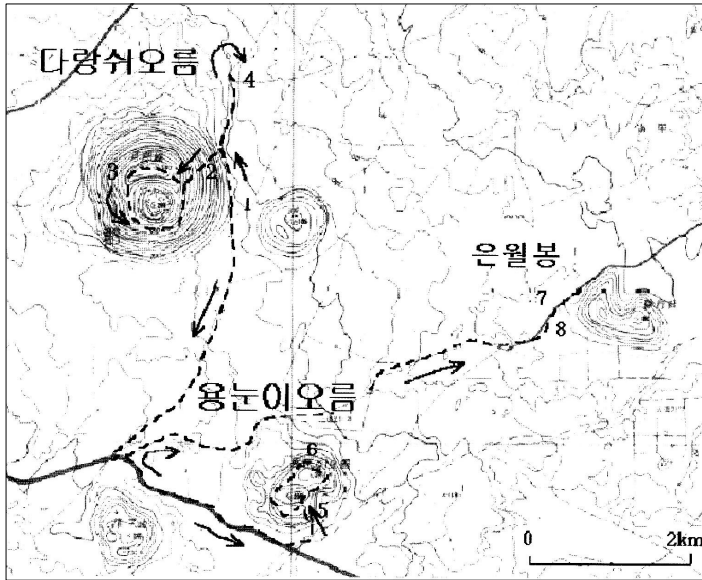
생태자연관광과 역사문화관광을 제주평화관광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토대로 이를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스를 통해 관광객이 스스로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개발·파괴·고난으로부터 보전·개선·사랑으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지역에서의 참여와 학습,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생태자연관광과 역사문화관광은 평화관광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오름을 대상으로 기존 생태관광을 평화관광으로 발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자연해설 내용을 잘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주는 자연해설 내용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의 생태관광 및 국립공원 자연해설 등을 평화관광으로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생태 및 국립공원 내용에 더하여, 평화내용을 추가하면서 기존의 것과 연계시키며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예시로서 '오름(스코리아콘)의 이해와 보존 목표' 프로그램을 제기할 수 있다.²⁷⁾ 코스는 다랑쉬 오름(모식적인 스코리아콘) → 용눈이 오름(변형된 스코리아콘) → 은월봉(훼손사례를 통한 보존심

리 자극)으로 하고, 프로그램에 해설지점(view point)을 설정하고 설명문을 준비해야 한다.



출처: 고은경, 위의 글.

〈그림 4-12〉 오름 생태관광 경로도 예시

먼저, 다랑쉬오름은 전형적 스코리아콘이며 북동사면 등산로이다. 30도 정도의 안식각에 등산로 경사가 급하고 등산로의 식생이 벗겨져 있어 약한 구조의 스코리아콘 속성임을 알 수 있다. 다랑쉬오름 정상에서는 주변의 오름군을 관망할 수 있고 원형 분화구가 달처럼 둥글

27) 고은경, “제주도의 오름 생태관광 해설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게 보여 다랑쉬라 부르고 있다. 북쪽 소로를 따라 가면 송이채석장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취약한 스코리아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용눈이 오름은 말발굽형오름으로, 용암류가 흘러나오며 산정부 일부가 파괴되어 다른 종류의 오름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은월봉은 제주도 오름의 개발에 따른 파괴와 도로공사로 일부가 절개되어 있다. 밭농사가 은월봉 하단까지 개간되어 오름의 절개면이 노출되어 있다.

오름 생태관광을 평화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 ① 관광 중 자연스럽게, ② 관광 후 교육 방식, 또는 ③ 자료집 제1면 뒤에 평화관련 내용·설문을 제시하여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설문에 답하며 평화가 고양되게 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평화생태관광을 위해 필요한 준비로 첫째, 오름은 화산쇄설물이 쌓여 있는 상태로 취약한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광객의 관리가 요구된다. 국립공원과 달리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소화해야 한다. 둘째, 관광 이전과 이후의 자료와 내용을 구비, 전시, 교육하고 또 간단한 필기가 가능한 방문객 센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조화가 요구되며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해설자를 주민들 중 선발하여 교육수료 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오름의 경우 대표적인 몇 곳을 트래킹하고 나머지 오름들은 지나가며 경관을 보도록 한다. 앞선 생태탐방의 기억을 적용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안내·설명·자료가 충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넷째, 오름 생태관광의 해설프로그램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오름을 즐김과 동시에 오름을 보존하고 아껴야 한다는 자극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오름을 오르는 트래킹과 달리,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름을 바라보는 태도와 가치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상에서 예시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예래동 생태마을과 오름탐방은 평화관광으로 발전시키기에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공급(제주도) 측면의 준비에서 유의할 점은 관광객들에게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해 교육적 접근이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오류가 있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제시할 자료는 수준별로 기본적인 것(애니메이션 형태도 한 방법)에서 비교적 전문적인 내용까지 깊이가 있어야 하고, 심화된 내용으로는 논쟁적인 내용·주제도 제시하여 관광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수요(관광객) 측면에서의 수용 자세까지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웹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충분한 자료를 제주도에 도착하며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관광객을 이러한 평화생태관광으로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은 수에서 조금씩 대상을 늘려가는 접근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동호회 관광객으로 시작이 되겠지만 가족단위 또는 대학생 테마여행 그룹을 대상으로 시행해 보고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차후 수학여행단으로 해당 학교와 연계하여 그룹으로 분산·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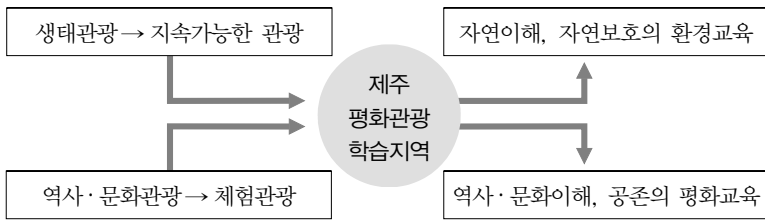
6) 제주 평화생태관광: 제주 평화관광 학습지역

지속적인 평화관광을 위해 고려할 다른 측면은 지역소득의 창출 + 관리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제주도 생물권 보전 지역과 세계자연유산지역은 관리·보전과 더불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동시에 보존을 병행하는 관리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보존을 유지하는 방법은 관광객들에게 탐방 중에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와이 하나우마 베이의 경우 하루 입장객의 허용치를 설정하고 입구에 전자 카운트다운 미터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보존 의식을 배양시키고 있다. 이는 관광에서 고부가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언급되는 체류관광과도 연계되어 관광과 환경이 윈윈(win-win)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가 평화관광을 위해 가지는 강점으로 입도가 제주공항과 제주항 2곳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에 도착하면서부터 쉽게 자료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더 앞선 방법으로는 이들 자료들과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일찍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제공이다. 특히 개별 또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제주 평화관광으로 유도하는 자료 및 안내지도 등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최종 목표는 제주를 평화관광 학습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긴장을 풀고 즐기는 기존의 관광과는 달리, 배우고 보고 익히는 긴장 속에서 접근하는 역전 관광 모델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보는 만큼 안다'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역사평화

관광, 문화평화관광, 자연평화관광, 그리고 혼합형 평화관광을 제주 평화관광학습지역에서 경험·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 평화관광 학습지역은 〈그림 4-13〉에서 보는 바처럼, 생태관광과 역사문화관광을 제주에서 체험, 경험하며 자연이해와 역사문화이해를 증진하게 되고 자연보호의 환경교육과 인간 공존의 평화교육을 받게 되며 평화교육을 인식, 체득하게 될 것이다.



〈그림 4-13〉 제주 평화관광 학습지역 모형

제주를 평화관광 학습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경우 관광객들로부터의 요구와 경험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 향상시켜야 하며 더불어 지역자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평화관광 학습지역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관광객의 상호작용의 결과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자료는 지역 탐방을 학습할 제주 평화지도와 이와 연계된 다양한 수준의 자료이다. 관광객이 생태 또는 역사문화를 선택 또는 이들을 아우르는 장기 복합형 평화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자료들(예: 제주의 이름,

자연생태이야기, 한라산의 인문지리,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등)을 평화를 진작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내 탐방·체험 가능한 대상물을 보여주는 평화관광지도를 기본적인 자료로 제작하고, 이것들을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평화의 섬 등의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탑재하고 프린트 물로도 제작해야 한다. 특히 지도형태로 자료를 제작하여 실제 활용이 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또는 기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7) 제주 평화관광산업 발전의 가능성과 방향

관광을 통한 평화산업은 위락만이 아닌 책임 있는 관광, 생태관광 등의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관광객들로 하여금 평화의식과 태도를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관광을 통해 활성화하게 되는 대안적 산업이다. 평화교육과 인식은 인간과 인간간의 평화, 인간과 자연간의 평화·공존으로 확대시켜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문화에 대한 경험을 통해 고취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는 생태관광과 역사문화관광의 결합을 통해 평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화산섬의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며 삼무의 삶을 영위해 온 평화의 전통이 있고,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과 자연문화 유산을 가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제강점기 군사기지화와 4·3사건을 겪으며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이를 승화함으로써 제주 세계평화의 섬 선포에 이르렀다.

관광에서 일고 있는 생태관광과 관광의 질을 추구하는 욕구들, 그리고 가족단위 관광의 증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관광수요가 아직은 위락에 기울어져 있어 평화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대안관광(생태관광, 체험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이 생겨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이들 대안관광을 제주형 평화관광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비를 통해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와 세계 자연유산 보전지역에 기초하여 제주형 평화관광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는 좁은 지역에 생태와 역사문화가 집결되어 있어 매우 유리하다.

평화관광산업을 위해서는 지역 공급자와 관광 수요자의 학습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광대상물에 대한 자료개발, 관광방법, 인식 향상 등의 방법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두 가지 방향의 평화관광 발전이 가능하다. 제주는 작은 섬 지역으로 생태자연관광과 역사문화관광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현재는 미미한 수요만 있지만 이를 대상으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수용한 개선(지역주체적 관리마인드, 지속적인 창조 및 개선)을 진행하면 평화교육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평화관광 안내책자와 관광지 해설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상품성의 극대화와 관광수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광의 교육적 가치의 홍보와 특히 국가 차원의 홍보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단순한 관광상품으로 팔 것이 아니라 환경교육의 장으로 상품화하는 전략이 요구된

다. 이는 평화관광으로 명명,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평화생태 관광과 역사문화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각각의 발전 및 양자의 통합을 통하여 평화관광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로써 제주 평화 관광 학습지역으로서의 성격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평화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크루즈관광산업

1) 크루즈산업과 평화 크루즈산업

관광의 수요와 공급은 관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들로 인해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이나 자연 재해는 관광활동을 저해하지만 평화와 같은 정치적 기운은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제주는 2007년 6월 27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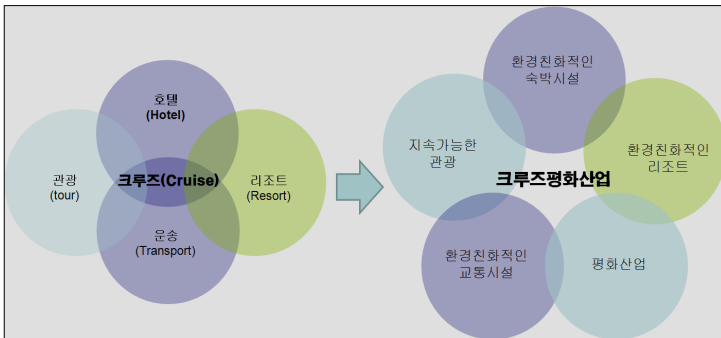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기·전쟁·폭력 등의 제거와 함께 세계 경제·문화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정치적 의미에서만 평화의 평화가 아니라 문화·사회적 측면의 평화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인들이 직접 만나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크루즈와 국제회의가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크루즈 산업은 세계

평화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메카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크루즈 산업은 기항지를 통한 관광의 개념을 강조하고 수익창출에 목적을 두는 데 반해, 평화 크루즈산업은 크루즈를 통해 남북한·동북아·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상호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제주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크루즈산업과 평화 크루즈산업의 개념 차이

일반적으로 운송개념을 지니는 웨리여행객선과는 달리 크루즈는 운송보다 순수 관광목적의 선박여행으로 숙박·음식·위락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려한 관광지를 안전하게 순항하는 여행이다. 크루즈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과 숙박·음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위락활동을 제공하는 리조트 및 관광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그림 4-14〉 크루즈산업과 평화 크루즈산업의 공유개념

이에 반해 평화 크루즈산업은 “리조트 및 관광의 개념과 함께 크루즈를 활용하여 세계인이 문화를 공유하고 인류 평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산업”이라 규정할 수 있다. 기존의 크루즈의 개념과 평화 크루즈산업의 개념을 그림으로 비교하면 〈그림 4-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평화 크루즈산업의 향후 전망

크루즈여행은 일반여행과는 달리 SIT의 한 분야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지금까지는 일반 패키지여행 또는 위락추구여행에 비해 선박 여행에 관심이 있는 일부 계층만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크루즈 여행수요는 일반여행을 경험한 계층이 차기 여행상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여행상품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 가능성은 크루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인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새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크루즈산업 자체가 인류 평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준다는 의의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평화산업으로 성장시킨다면 평화 크루즈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2) 평화 크루즈산업의 영향

기항지에서의 평화 크루즈산업의 영향은 고소득층의 도시 관광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적 형태의 국제 관광과는 달리 비교적 무해하고 지속가능하며 연성적인 관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평화 크루즈산업은 적극적 의미에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계인의 상호 문화 이해의 장을 형성하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러한 평화 크루즈산업의 영향을 관광적, 사회·문화적, 생태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1) 관광개발 측면

국민소득과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형태도 점차 변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관광상품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과 도서 등을 중심으로 한 해상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면이 바다인 제주는 해상관광자원의 개발에 있어 아직도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천혜의 해상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자원을 좁은 제주 공간에서 해상으로 확대하여 다양화함으로써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화 크루즈산업의 개발은 새로운 관광상품으로서 제주관광에 대한 수요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를 모항으로 하고 금강산 등 다른 지역과의 연계가 이뤄졌을 때에는 평화산업으로서의 의미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제주 관광상품은 신선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특히 여가를 이용하여 관광지를 탐방하더라도 숙박, 상가시설 등이 집단을 이루어 도시적 분위기를 떨쳐 버리지 못함으로써 여행을 통한 해방감을 만끽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평화 크루즈산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일상의 생활범주를 벗어나 바다라는 자연 속에서 평시와는 전혀 다른 생활과 함께 새로운 관광경험을 맛볼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 크루즈산업은 현대인의 자연 회구성, 특히 해안 도서 등 바다를 향하는 관광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자유감, 해방감을 통해 개인차원에서의 해방감과 함께, 같이 선박을 이용하는 세계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관광 성향이 동적인 관광으로 변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반시설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화 크루즈산업은 주요 기항지의 관광명소를 탐방하고 해수욕, 조개줍기, 바다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정적 관광과 동적 관광을 결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활동하는 관광, 참여하는 관광으로 변화하는 관광 성향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상품이다.

(2) 사회·문화적 측면

기항지 체류시간이 평균 8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매춘이나 원주민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거나 비교적 갈등에 이룰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일반적인 관광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매우 적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평화 크루즈산업은 단순한 관광만이 아니라 관광을 통한 평화 메시지 전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기 때문에 관광객과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제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크루즈 사업은 해안지역에서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전통을 상품화하고, 문화변용을 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평화크루즈산업은 크루즈사업과는 달리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인류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 생태학적 측면

크루즈는 에너지 사용으로 해양생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보고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크루즈의 오염은 통상적으로 기름누출, 생활하수, 쓰레기를 일컫는데 화재나 예상치 못한 날씨로 인한 크루즈의 난파에 의한 환경의 파괴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발주되는 선박의 기관은 가스터빈이 장착되고 있으며 화재안전시스템의 개발과 항해술의 발달, 규모의 대형화로 이를 극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 기항지 체재가 8~10시간 정도여서 희귀동물을 위협하거나 보호식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적어 다른 관광행태에 비해 자연파괴가 적다. 기항 시 자연자원의 파괴나 해양오염을 거의 야기시키지 않는 편이나 앵커에 의해 산호초 해양생물의 파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항공여행을 제외한다면 크루즈는 관광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4) 경제학적 측면

크루즈 관광객들은 선상에서의 소비활동을 포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체류기간 동안에 기항지 주변관광이나 쇼핑 등의 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외화획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밖에도 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터미널의 이용, 도선과 예인 하역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 외 선박운영 관련서비스, 연료, 선박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크루즈선이 기항하게 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선 운항에 따른 조세수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크루즈 선사에 부가되는 직접세와 선박연료, 식자재 등의 구매에 부과되는 간접세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크루즈 관광객의 기항지에서의 서비스나 크루즈 선사의 각종 물품구매 등 기항지에서 크루즈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출은 외국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환전과정에서 환전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크루즈 관광을 통해 발생한 관광객 및 승무원의 소비활동은 해당 지역에서의 제품의 추가적 생산과 서비스 활동의 증가로 나타나고, 이것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 및 승객의 증가는 해당 지역에 쇼핑시설, 놀이시설 등 각종 문화관광시설의 확충을 가져옴으로써 크루즈 관광객을 포함한 외래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정부의 크루즈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1) 고급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

소득 증가에 따라 여가소비의 대상이 내륙·산악 중심에서 해양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나, 국내 인프라와 관련 장비산업이 취약하여 저변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기반시설 확충 및 제도적 기반마련 등을 통해 증가하는 국내외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약 3,170여개의 섬과 360여개의 해수욕장, 12,000km에 달하는 해안선 등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에 적합한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해양관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연안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수단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부터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그러나 국내 요트계류시설은 부산·통영·진해 등 3개소에 불과(일본 570여개)하고, 크루즈 기항 전용 부두도 부산항 1선석('06년 9월, 완공) 밖에 없는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또한 대부분의 해양레저장비는 수입에 의존하는 등 국내 장비산업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다. 고가의 장비로 인해 해양관광·레저스포츠가 특정계층만 즐기는 활동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형성되어 있다. 그간 육상레저 위주의 정부정책에 따라 해양레저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해진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마리나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지역별 적정 수준의 시설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이 2008년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리나 대상지역 선정기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개발방향, 규모 결정 및 개발주체별 투자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자체별 소규모 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군특산업으로 지원하기로 했다.²⁸⁾

- 해양레저선박 항행구역 제한 완화: 현재 평수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길이 12m 미만의 해양레저선박의 항해구역을 다도해와 연 근해까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확대(2007년 11월 시행)
-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에 부합하는 보험상품 개발: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수상레저 기구(20마력 미만 모터보트, 30마력 미만 고무보트) 보유자가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협공제를 활용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 공유수면 점·사용료 경감: 수상레저 사업자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충무마리나의 경우 운영수입의 50%)인 공유수면 점·사용료 경감방안 검토(2008년 상반기)
- 마리나 지원 법적 기반 강화: 항만법상 친수시설로 분류되어 법적 지원 기반이 취약한 마리나 상업항·여항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레저, 관광항)으로 분류 규정(2008년 하반기)
- 국민체육진흥기금(연100억원 내외 규모로 체육시설 지원-용자기간 10년, 연 4.0%)을 활용하여 민간 해양레저스포츠 사업자의 시설 설치 및 임대장비 구입자금 지원
- 소형선박 등록제 도입: 선외 추진기간을 탑재한 5톤 미만의 소형 범선·모터보트도 선박법상 등록(선박소유자는 선적항을 정하고

28) 2005년부터 목포시, 함평군, 고성군 등 3개소에 대해 99.5억원(총사업비 208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해야 함)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 관리 강화(2008. 1). 현재 5톤 미만의 소형범선과 추진기관의 탈·부착이 용이한 선외기 모터보트는 선박(기선)으로 인정하지 않아 등록대상에서 제외.

(2) 크루즈 관광

크루즈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외국 크루즈선 국내기항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기항 크루즈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고부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2007년 말 감면 종료되는 국내기항 국제 크루즈선 항비(항만 이용비용)의 감면기간 연장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박 입·출항료의 50% 감면과 접안료 및 정박료 각각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5만톤급 크루즈선 입항 시(12시간 기준) 총 899만원이 감면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통과여객 인정을 위해 현재 항공권 소지자에만 적용되는 통과여객 제도(Transit without Visa)를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크루즈선 기항 전용부두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개에 불과한 크루즈 전용부두는 8만톤급 1선석을 완공(2006년 9월)한 부산항 크루즈 부두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제주항(8만톤급)을 비롯하여 2020년까지 인천항, 평택·당진항, 목포항, 여수항 등 총 6개 무역항(8개 선석)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국적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고용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외항여객선의 외국인선원 고용범위는 선사별로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과 협의하여 고용비율 혹은 선원수(통상 50:5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 유도를 통해 이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적 크루즈선사가 민간 선박편드를 활용하여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선박을 임대해 사용하고 돌려주거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할 것이다.

4) 제주의 평화 크루즈산업 여건

(1) 자연적 여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로서는 열대지방 같은 크루즈 상품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주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가지고 있어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아름다운 섬과 기암이 관광자원으로 해안 주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동·서·남·북 해안을 연계한 단거리 연안 크루즈 관광코스의 개발과 계곡과 바다, 그리고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단거리 여행코스를 개발한다면 크루즈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지정되었으며 계속적으로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자연유산 지정은 제주의 아름답고 귀중한 자연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만이 아

나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제주와 제주지역 주민들이 자연의 평화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2) 사회 · 경제적인 여건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개인소득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인식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 패턴이 최근 들어 크게 바뀌었으며,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 더욱더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 및 여행활동이 다양하게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 관광의식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생활여건 개선과 의식구조의 변화로 과거의 즐겁게 노는 것보다도 새로운 경험을 획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즉, 보는 여행에서 체험하는 여행으로 여러 장소를 둘러보는 경유형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 행태를 보더라도 SIT 여행의 증가로 인하여 단순한 관람형 여행이 아니라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여행이 증대되고 있다. 9·11 이후 관광과 관련하여 안전과 평화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으며, 정치적 안전이 바로 관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

(3) 정치 · 외교적인 여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대륙을 통한 교통운송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현실에 있으며, 특히 제주는 이러한 연계 교통수단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래 관광객의 출입구는 오직 항공과 해운에 의해서만 가능한 처지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정치와 세력 사이에서 가

장 복잡하고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며 주변에 중국시장 12억 명, 일본시장 1억 2천만명, 인도시장 8억명의 이동 인구를 가진 관광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은 정치적·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평화 크루즈산업을 통해 이러한 목적 달성 및 여행수지 흑자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국제자유도시는 제주가 평화 크루즈산업을 진행해나가는 데 기폭제로 작용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을 때 평화산업과 경제적 이득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성공시킬 수 있다.

(4) 산업적인 여건

현재 몇몇 대규모 재벌 기업들이 Inhouse Travel Agent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본 규모 면에서는 선진국 여행사들과 비교하여도 결코 손색이 없으나, 다만 이들 여행사 대부분은 그 설립 역사가 짧아서 경영기법이나 여행상품 기획력에서 선진국 여행사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어 향후 선진국 여행사들의 본격적인 진출을 앞두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해양기술면에서 세계 유수의 선박 건조 조선술을 갖고 있고 선진국과 합작투자 또는 기술제휴를 통해 크루즈선을 건조하고 정비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경제성 있는 크루즈선의 건조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선진국 여행사들과 대등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크루즈를 이용한 기획 여행상품의 개발로 여행시장 점유율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5) 제주의 평화 크루즈산업 발전방안

(1) 평화 크루즈산업의 기반마련

평화 크루즈산업은 국민 관광성향과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지금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로, 실시한다면 제주를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변화시키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관광수익 창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의 1, 2차 산업구조에 관광서비스산업을 부가할 수 있는 크루즈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존 항구에 전용터미널이나 도킹시설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크루즈 이용객의 편의제고와 매력적인 첫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 입항 항구의 특성에 적합한 관광시설을 개발하고 배후지역의 품물 및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및 정책 마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관광진흥법, 해운법 등 다양한 관리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지원, 관리운영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크루즈 기반시설의 설치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고 평화 크루즈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문화관광부에서 일원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평화 크루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여건에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투자의 활성화 방안과 세제·금융 상의 진원을 통한 민간유치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크루즈 여행객에 대한 비자발급, 체류기간, 세관 통관 문제

등 출·입국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 또는 시설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여행객의 이용을 확대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종합적인 계획수립

해양자원을 포함한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의한 토지이용이 관리되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또 외국선사가 국내 전용항에 기항하게 하는 유치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4) 크루즈선박 건조산업과 지원

크루즈선박의 건조산업이 대형화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로 국내에서 크루즈선박의 건조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정부 경제개혁에 의해 관광산업이 무역업으로 변경되었듯이 선박 건조, 세제 등도 크루즈산업의 틀 속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크루즈사업의 근거법 정비

관광진흥법의 관광유람선업의 세분화와 시설요건 신설, 크루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크루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행 국내 관련법인 해운법과 관광진흥법상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 또한 관광진흥법 상의 업종에도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광유람선업의 규정이 있으나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역시 법적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크루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근거법의 정비방안은 해운법을 정비하는 방안과 관광진흥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때 크루즈사업 여건개선측면에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크루즈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6) 크루즈 선내 부대시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크루즈 관광사업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에 포함하고, 크루즈선의 부대시설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관련사항을 총괄하지 못하고 일일이 부대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인허가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16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일괄처리토록 하고 관리·승인은 특별자치도에 위임하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7) 카지노업의 허가기준 개선

카지노 시설은 국제 크루즈선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오락시설인 동시에 크루즈선사의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각국의 규제에 의해 대부분 공해상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크루즈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광진흥법 제20조 1항2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이나 2만톤 이상의 연근해 크루즈선 내로 한정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8) 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

공해상을 통과하는 국제 크루즈선에서 뿐만 아니라 연근해 크루즈 선에서도 관세법 등 관련법에서 크루즈 선상 내의 면세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 제주 피스보트(Peace Boat) 제안

(1) 취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후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 해양관련 프로그램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관광유람선을 이용하여 평화 관련 도시들을 순방하는 이른바 평화 크루즈 사업은 태평양을 향한 관문인 제주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세계평화의 섬' 구축과정에서 민간 부분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한 국내외적으로 효과적인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내의 경우 환경재단과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바, 이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하거나 혹은 이들과 협력하여 동 사업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환경재단의 사례: 제49회 Peace Boat

Peace Boat는 1983년 역사교과서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는 상황 하에서, 일본의 침략 역사를 시인하고 아시아의 미래 평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일본의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990년 이후 평

화·인권·환경을 주제로 80여개 국을 방문해 오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평화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제49회 Peace Boat는 한·일 공동으로 학자, 학생, 시민단체, 일반시민, 언론인 등이 참여하여 행사를 추진했고, 도쿄-부산-인천-단둥-상해-오키나와-나가사키 항로를 2만 4천 톤급 여객선 후지마루호를 이용, 2005년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항해했다.

제49회 Peace Boat 행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에서는 일반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재한 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했고, 중국에서는 조선족 홈스테이를 체험하고, 난징대학살 현장과 역사박물관 방문하였으며, 상해에서는 환경실태를 견학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생태체험을 하고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으며, 나가사키에서는 원폭피해 현장을 방문했고, 선상행사로서는 요리경연대회, 선상운동회, 각종 공연과 영화제, 장사익의 노래교실, 연주회, 특강 등이 이루어졌다.

(3) 부산시의 사례: 평화와 희망의 뱃길

광복 60주년을 맞아 동북아 4개국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부산-연변-블라디보스톡, 후쿠오카-상해 항로를 200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 사이 항해했다. 평화와 희망의 뱃길 행사의 주최는 국무총리실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은 부산광복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그리고 후원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공사였다. 평화사절단은 대학생(100명), 시민단체(70명), 시민사절단(150명), 어린이사절단(47명),

문화사절단(47명), 사업관계자(76명) 등 총 500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국제학술행사, 선상 행사, 기항지 행사, 기착지 행사로 나누어지며, 해당지역 동포사회 방문과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주요대학 방문을 통한 대학생들과의 교류, 문화체험과 역사인식을 통한 글로벌 시대 지도자 양성 등이 이루어졌다. 선상 행사로는 평화강좌, 한국무용, 노래교실, 선상불꽃놀이, 전통무예체험, 웰빙교실, 건강교실, 미술교실, NGO 워크샵, 미니 콘서트, 위령 굿, 선상벼룩시장 등이 포함된다.

(4) 새로운 항로의 제안

최근 몇 년 동안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일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주, 오키나와, 남경, 대만의 4자가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움이 계속 개최되어왔고, 이를 계기로 4개 지역 평화운동가들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태이다. 이러한 관계를 배경으로 이들 3개 지역의 협력을 얻는다면 새로운 평화크루즈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다. 제주, 오키나와, 대만, 남경을 연결하는 새로운 평화 크루즈를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동북아 평화협력관계 구축 사업에도 기여하게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국제적인 Peace Boat 운영사례를 보면, 평화교육과 국제연대를 취지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 2003년의 경우, 100일 여정으로 21개 항구를 평화전문가와 통역사들이 같이 승선하여 주로 분쟁지역이나 재해

지역 도시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선상에서 기항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세계사회포럼과 연계하여 행사를 진행시키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관심을 보여 주었다. 또한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제주와 여수 그리고 주변지역을 잇는 크루즈 프로그램 개발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7) 아시아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ASEAN 국가협력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크루즈산업 워킹그룹’은 2007년 3월 13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The 20th Annual Seatrade Cruise Shipping Convention에서 아시아 지역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포털사이트 www.cruiseasean.com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포털은 아세안 국가의 크루즈 목적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세안 회원 각국의 관광특징 또한 제공될 것이다. 아세안 크루즈 워킹그룹은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해 구성된 조직체로서 약 2년여 기간 활약하여 왔다.

제주지역 평화기반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크루즈산업 워킹그룹’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 크루즈 공급측면을 보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및 홍콩을 기반으로 한 스타크루즈의 단기 크루즈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잇는 한·중·일 중심의 크루즈 상품 전망도 밝은 편인데 서구지역 주요 크루즈 선사의 경우 중국지역의 크루즈 운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제주의 경우도 한·중·

일 연계 크루즈 상품이 실제 판매된다면 지리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제5장 제주 평화기반산업

1. 국제금융산업

1)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국제금융산업

동아시아와 동북아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은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역사적·정치적 환경과 경제발전의 차이가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인식하고 있다. 제주 국제금융산업은 동북아개발은행의 유치²⁹⁾와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추진³⁰⁾으로 축약된다.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추진은 동북아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면서 자본 및 경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평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결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산업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동북아개발

29) 동북아개발은행의 유치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전략임.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지역의 국제금융산업육성방안에 대한 검토』(2006. 6)을 참조하시오.

30) 역외금융센터의 유치는 제주대학교 국제금융연구센터, 제주금융포럼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임. 제주발전연구원·한국채권연구원,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2006. 10); 제주대학교 국제금융연구센터·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제주금융포럼 주관 국제세미나, 『외국역외금융센터의 성공사례와 제주국제금융센터가 나아갈 방향』(2007. 4. 21)을 참조하시오.

은행'이라는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제주도의 평화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나아가서는 경제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다.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인력, 물자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 제도이다. 제주도의 국제금융산업은 지역적인 비교우위를 가지면서 제주지역의 경제를 번영시키면서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산업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국제금융산업의 SWOT분석

강점(Strength) • 동북아금융허브전략의 보완 • 입지적인 여건: 한중일의 중간지점 • 섬이면서 청정지역이고 관광지라는 이점(대부분의 역외금융센터의 특징) • 동북아평화에 기여(특히 동북아개발은행) • 국제자유도시 이상에 부합 • 국내금융시장의 교란요인 최소화 • 제주도 산업구조의 개편(고부가가치화) • 고부가가치 관광 및 국제회의산업 발전 • 교육·의료산업의 발전	약점(Weakness) • 제주도민들에 대한 홍보부족 • 재정부의 반대
기회(Opportunity) • 동북아지역에 역외금융센터가 없음 •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향상(조세피난처, 불법자금세탁 등의 오명 제거) • 중국 민간인의 해외 투자 허용과 일본의 낮은 이자율 •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공동체의 필요성 인식	위협(Threat) • 일본 오키나와가 선점할 경우 대외신인도 향상에 어려움 있음 • 재정부가 시장접근성을 내세워 인천 송도지구에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

3) 국제금융산업 육성의 필요성

(1)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조성

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로 정의한다. 이중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된다.

홍콩, 싱가포르 등 제주도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들의 경우에도 국제금융산업의 발전이 이들 도시들이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이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을 위해 국제금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노력이며 국제금융산업의 뒷받침이 없는 국제자유도시는 반쪽자리에 불과하다.

(2) 국가균형발전

제주도의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낮은 1차 산업 및 서비스산업, 내수산업,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개방되면 될수록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제주도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는 낙후를 면치 못하는 구조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 체결과 저가관광의 확산으로 인한 제주 전통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침체에 대한 새로운 대체산업이 필요하다. 국제금융산업은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역경제와 사

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낙후되고 있는 제주 지역경제의 획기적 발전, 나아가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계획에도 부합할 것이다.

(3)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

우리나라 정부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동북아금융허브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규제완화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 중심의 국제금융시장은 규제완화를 함에 있어서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가 철폐될 수 있을 정도로 금융규제가 거의 없는 역외금융업을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각종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서울 중심의 자산운용업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다국적기업들의 재무본부를 유치하거나 혹은 법인이나 정부기관만을 고객으로 하는 법인은행업을 유치함으로써 제주역외금융센터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지역의 실물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4) 타당성 평가

(1)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차원

우리나라 국제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금융센터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동북아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홍

콩, 상해, 동경에 필적할 차별적 방안의 제시가 미흡하다. 역외금융업과 동북아개발금융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은 서울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기존의 규제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의 동북아 금융허브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금융센터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획기적 규제완화 및 상법, 외환거래법 등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금융시장 불안과 금융기관 간 이해상충 유발 가능성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대폭적인 규제완화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과제를 제주에서 제한된 역외금융업으로 한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될 수 있다. 자산운용업에 특화된 서울의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는 규제가 완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에서 이루어지며, 그리고 상품의 운용과 관리는 서울의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서울금융시장과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특화금융허브 발전 전략에는 동북아지역의 금융허브로 발전해 나가는 데 촉진제 역할을 담당할 역내 개발금융수요 관련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 ‘동북아개발 금융허브’는 기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발전전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차별화된 금융허브 발전계획이다. 서울은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선도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로 육성하고 제주를 ‘동북

아개발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 이원적 금융허브 발전체계는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아시아 3대 금융허브(홍콩, 싱가포르, 서울)로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입지적인 여건 차원

동북아개발은행의 유치 및 동북아개발 금융허브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geopolitical)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이다.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 그리고 한반도 본토와도 분리되어 있는 제주는 역내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립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어 동북아 개발을 주도하게 될 동북아개발은행의 지정학적 최적지로 판단한다. 또한 제주는 중앙정부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로서 국내외 규제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금융활동이 가능하고 역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정치 중립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역외금융센터가 들어선 곳은 대부분 관광지이면서 섬이고 청정지역이다. 제주도는 이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여 입지적으로도 아주 좋다. 특히 성공적인 역외금융센터가 있는 곳에는 가까운 곳에 대규모 국제금융시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주도 근처에는 서울, 동경, 상하이, 홍콩 및 싱가포르 등의 국제금융시장이 존재하고, 특히 서울, 동경, 상하이 등은 거대한 실물기반을 갖추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이다.

Boston Consulting group에 따르면 백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7.2백만 명에 달하고, 최근 인도와 중국의 백만장자는

매년 15%씩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중국이 최근에 민간의 해외투자를 허용하였으므로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³¹⁾ 이 수요를 서울국제금융센터와 같은 정규시장보다는 역외금융센터에서 수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중국 투자자들의 역외금융센터 이용이 최근 3~4년간 급속하게 늘고 있으며 일부 역외금융센터(특히 저지섬)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서비스대책으로서 중국어 작성 서류 제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3)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세계평화의 섬’ 차원

동북아개발은행의 유치를 통한 동북아개발 금융허브의 건설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에도 부합한다. 한·중·일 3국을 주축으로 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과 동북아 금융허브의 건설은 북한, 극동러시아, 중국, 몽골 등 역내의 경제적 후진지역의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한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자본협력의 장소로 만들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일조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이미지에도 적합하다.

(4) 국제자유도시 차원

제주도는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31) “News Analysis,” The Economist, Feb. 24 2007.

하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하였으므로, 동북아 개발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필수적인 '동북아 개발금융허브'는 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에 가장 적합하다.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 역시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필수적이므로, 국제자유도시의 취지에 적합한 산업이다.

(5) 국내금융시장의 교란요인 최소화 차원

'동북아개발 금융허브'는 기존 국내 금융시장과는 분리된 별도의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으로서 국내금융시장에 거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국내금융산업에서 외환관리 및 증권업 등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는 국내금융시장을 크게 교란시킬 것으로 재경부 등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에서는 규제 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규제 완화가 제주국제금융센터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규제 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제주국제금융센터에서 실험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5) 파급 효과

(1) 산업구조의 개편 및 경제 활성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에는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국제금융센터가 라 부안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외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엄

청나다고 볼 수 있다. 제주국제금융센터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경우 10년 이내에 금융부문에서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IT·법무·회계 부문에서도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그 결과 국제금융산업은 제주경제에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제금융산업은 첨단기법을 요구하는 산업으로서 신속한 자금결제, 실시간 거래정보 확인 등 대규모 데이터통신 환경을 요구하므로, 전산과 통신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회계·법률·첨단 정보통신산업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를 촉진하고 첨단 지식기반 산업중심으로 지역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³²⁾

금융기관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인구 유입이 나타나고, 고소득직종의 인구 유입으로 소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금융자금의 유입으로 지역 개발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조달비용이 감소하고 투자의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다. 제주국제금융센터의 건설, 금융기관 이전에 따른 건설 및 관련 산업연관 효과 등으로 지역내 생산이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2)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및 국제회의 산업의 발전

국제금융산업의 발전은 관련 고소득 전문인력과 세계 갑부들의 왕

32) 1987년 아일랜드는 더블린에 역외금융센터를 세웠으며, 당시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20년이 지난 2007년에는 5만 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2년 더블린 역외센터에는 10,700명이 고용되었고, 법인세 수입도 7억 유로(약 1조 원)에 이르렀음. 더욱이 더블린이 국제금융만이 아니라 IT, 영상, 음악 분야에서도 세계 최첨단을 걷게 되었다. www.ifsconline.ie 참조

래를 증가시키며, 나아가서는 각종 국제회의나 세미나의 활발한 개최를 촉진하여 관광산업과 국제회의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특히 국제금융센터에는 고임금 금융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회의, 세미나 등을 위해 금융전문가들과 세계 갑부들의 왕래가 잦아짐으로 인하여 여행업, 숙박업, 음식업 등 고소득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제주도를 명품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

(3) 교육 및 의료산업의 발전

금융산업은 첨단기법과 첨단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는 산업이므로 여타 산업들에 비해 고도의 지식과 기술들이 필요하다. 초창기에는 이런 지식과 기술들을 갖추고 있는 고급 전문인력이 외부로부터 조달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교육산업이 팽창하게 된다. 교육산업에서의 교육 유형은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이 대종을 이루게 된다.

고소득 전문직종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함에 따라 국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며, 또한 외국 의료법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의 대거 유입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교육 및 문화시설이 크게 확충되면서 생활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

(4) 지역의 위상 제고

첨단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제

고되는 한편 세계적으로도 지역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다. 즉 제주도가 세계적인 역외금융센터로 알려지게 될 것이고, 더불어 세계적인 명품관광지로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

(5) 세수입의 증대와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제고

현재 제주도가 선박등록사업으로 적잖은 세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역외금융업의 발전은 금융기관의 설립에 따른 직접적인 과세기반의 확충 외에도 고용 및 소득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세수의 증가, 즉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의 증대로 중앙정부의 세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등록세, 재산세 등의 부과로 제주도의 재정수입도 크게 증가한다.

6) 추진 전략

(1) 기본방향

제주지역 내 국제금융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막대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내 국제금융산업 육성이 동북아금융허브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제금융산업 육성지로서 제주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방들보다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2) '동북아개발은행'의 유치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제주와 서울의 이원적 금융허브 발전전략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북아개발 금융허브'의 건설을 제주 국제금융산업 육성의 기본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개발 금융허브'의 핵심내용은 그동안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설립 논의가 이루어져 온 동북아개발은행(NEADB: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을 제주에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개발금융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동북아 개발은행은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지역개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구상되고 있는 역내개발 국제기구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은 6자회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북한의 낙후된 경제를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북핵문제와 연결시킨다면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협조를 얻기도 훨씬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추진전략 제1단계는 다음과 같다. 동북아개발 금융허브 건설의 성패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및 제주유치에 달려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건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는 지자체와 전 도민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동북아개발 금융허브의 최적지가 제주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금융협의체(NADFC)³³⁾, 한·중·일 3국의 경제부처, 중앙은행, 감독기구간의 각종 회의 등을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함으로써 제주가 동북아 3국의 금융경제 협력의 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아시아 지역의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제주 유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향후 제주에 설립될 ‘동북아개발 금융허브’가 실질적인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전문금융인력의 양성 및 금융정보통신 인프라 등 금융 하부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세부추진전략 제2단계는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자지분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여 동 은행의 제주지역 유치를 촉진한다. 한·중·일 3국 공동의 동북아개발 연구소를 제주에 설립하여 3국의 학자들이 모여 동북아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정보를 제주에 축적한다.

세부추진전략 제3단계는 동북아 및 서구선진국의 민간 개발금융기관의 유치를 통해서 제주를 실질적인 ‘동북아개발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 관련 역내국들의 공공개발기관 및 연구소 등이 제주에 유치되고 금융관련 하부구조가 구축되면서 동북아개발 금융에 관한 경험과 정보가 제주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동북아 개발관련 민간 개발금융기관의 제주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³⁴⁾

(3)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추진

가) 추진과제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을 위한 과제로 첫째, 중앙정부 설득이 중

33)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중국개발은행, 일본 미즈호 은행 등이 동북아개발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4년 5월 결성되었다.

34) 1-3단계 세부추진전략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제주본부, 앞의 책을 참조하시오.

요하다.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서울국제금융센터와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서울국제금융센터를 보완 및 지원하는 소위 이원적인 금융허브이며, 따라서 제주국제금융센터는 단순히 제주만을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국제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내 경제의 발전에 일조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해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전 세계 역외금융센터로 물리고 있는 중국자본을 유치하고, 이 중국자본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이 시급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의 창출이 낮은 1차 산업과 서비스산업이 대중을 이루는 제주도 경제의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시킴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이 없는 제주도 경제의 장기적인 낙후성을 해결할 방법으로서 최선이며, 전국적인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 역외금융센터 모두가 조세피난처이고, 불법자금의 세탁되는 곳이라는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드시 불식시켜야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이 가능할 것이다. 금융안정포럼(FSF), IMF와 세계은행, OECD 등의 규제 압력이 역외금융센터의 몰락 혹은 쇠퇴보다는 역외금융센터에서의 금융거래의 투명화를 촉진한다. 특히 케이만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성공적 역외금융센터들은 이런 국제기구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독립적인 금융감독청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자금의 세탁

을 원천적으로 막았으며, 그리고 거래투명성을 확보시키면서 투자자들의 자금과 소득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국가의 세무당국에 제출함으로써 탈세 내지는 절세를 어렵게 만들었다.³⁵⁾

제주국제금융센터 역시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외 금융기관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독립적인 금융감독청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혹은 보다 강화된 금융감독), 현재 금융실명제가 실행되고 있으므로 거래투명성이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으며 또한 원하는 국가의 세무당국에 투자자들의 자금과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조세피난처라는 오명도 얼마든지 탈피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법자금세탁방지 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에 가입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³⁶⁾

셋째, 역외금융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홍보해야 한다. 각종 금융기관의 유치 및 활동에 따른 소득창출과 고용증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금융관련 교육기관의 설치, 전문인력 왕래에 따른 관광수입 증대, 생활환경의 개선, 재정수입의 증대 등을 홍보함으로써 역외금융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 법령의 제·개정의 필요성으로, 기존 국내법과의 상충

35) 제주대학교 국제금융연구센터·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제주금융포럼 공동주관 국제 세미나, 『외국 역외금융센터의 성공사례와 제주국제금융센터가 나아갈 방향』(2007. 4. 21)에서 P. Byles, "The Cayman Islands Story: How One of the World's Leading Offshore Centres Struck the Right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Commercial Success to Maintain its Competitive Edge" 참조하시오.

36) FATF에의 가입 추진 현황에 대해선 이병윤, "자금세탁방지 FATF 가입추진현황," 금융연구원 주간브리프(2007. 12)를 참조하시오.

부분을 해소하고 미비된 법령을 신설하는 작업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국제금융센터 개설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하고 추후 개별 법령들을 순차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필요한 입법전문가는 OECD 등 국제기구 등에 파견된 재정부 등의 여유인력을 제주로 유치하여 확보해야 한다.

나) 추진 기본방향³⁷⁾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첫째,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서울금융시장을 보완하는 역외 금융센터로서, 처음부터 금융업무 전체를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제주가 시작한 선박등록 및 선박투자회사 유치 등 가능한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단지 방식으로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업무의 시너지 효과, 금융감독의 효율성 및 자원조달 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된 독립된 금융업무단지로 건설하는 방안이며, 이 방안은 후발주자로서 단기간에 역외금융센터 추진을 성공시킨 더블린과 라부안 모델을 벤치 마크한 것이다.

셋째, 금융감독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불법자금세탁과 같은 불법금융행위나 탈세, 금융투기 등을 국제적 기준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그리고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독자적인 금융감독기구

37) 제주발전연구원·한국채권연구원, 앞의 책, pp. 178-189와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다.

를 설립해야 한다. 제주국제금융센터 내에서의 탈세 및 자금세탁 활동 방지를 위해서 금융정보분석원 지부를 설치하며 향후 주고객이 될 중국 및 일본 기업을 위해서 이들 양국 정부와 자금거래정보교환 협정의 체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청의 설립은 불법자금세탁, 탈세, 금융투기 등의 금융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의 금융감독원 내에 별도의 강화된 기구를 마련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넷째, 도의회에 입법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제주국제금융센터가 오직 낮은 세금에만 의존하는 조세피난처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금융제도 및 상품 개발 도입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예컨대, 다국적기업의 재무본부에 역외은행업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 역외회사의 해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주국제금융센터 입주직원의 주택 및 교육수당 등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제구축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제주국제금융센터 입법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구체적인 설립방안

‘제주국제금융센터’의 구체적인 설립방안으로 첫째, 복합업무빌딩의 건설을 들 수 있다. 제주국제금융센터를 1차적으로 1,000억 원 정도의 복합업무 빌딩으로 건설하되, 제주도의 재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 개발센터, 시공사,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따르면 제주도가 투자한 자금은 최소한 5년 이내에 회수됨으로써 제주도의 재정부담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³⁸⁾

둘째, 더블린 국제금융서비스센터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제주국제금융센터에는 신설되는 금융감독기구(혹은 보다 강화된 금감원의 지부), 제주도개발센터, 역외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무실과 직원 아파트, 체육 시설과 회의장, 쇼핑센터와 위락시설, 우체국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셋째, 연구소 및 교육기관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 국제금융센터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국내 유명 연구기관들의 연구원들을 지원받아 제주국제역외금융연구소(JIOFI)를 설립하며, 제주대학교에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고, 국제금융 관련 과정을 대학원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⁹⁾

라) 대표적인 업무

‘제주국제금융센터’의 대표적인 업무로 우선, 선박등록 업무가 있다. 선박등록은 역외금융센터의 초기단계 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국적취득조건부 선박만이 제주에 등록되고 있으나 파나마 등 외국에 등록되고 있는 선박, 소유주가 중국과 일본인 선박, 향후 소유가 늘어 날 요트 등의 등록을 유치함으로써 외화수입의 증대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선박펀드에 의해 확보된 선박은 전부

38) 단지형태의 제주국제금융센터의 구체적인 건설과 운영 방안 및 대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한국채권연구원, 앞의 책, pp.189-194를 참조하시오.

39) 제주대학교에는 국제금융연구센터가 2007년 1월에 이미 설립되었다.

파나마에 등록됨으로써 외화유출을 조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제주 특별자치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외은행업무 또는 법인은행업이 있다. 역외금융센터에서 은행들은 다국적 영업을 하는 한정된 고객(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들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외국의 법인이나 외국 정부에 대부한다.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은행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 중앙은행 결제망 가입 등이 필요가 없으며 외국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여건을 봐 가면서 국내 다국적 영업 기업에게도 역외은행 면허를 줄 수 있다. 단, 개인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

셋째, 법인의 국제자금관리업무가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역외금융센터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 자회사(또는 전문서비스공급업체가 대행하기도 함)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영업하는 기업집단 간의 자금대부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현금을 역외의 자회사에 집중시키는 현금 풀링(cash pooling)을 통해 현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전 세계 자회사 또는 영업본부들의 현금관리, 자금의 조달과 대차, 환헷지 등을 역외센터의 자회사(혹은 전문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것이다.

실물부문이 튼튼한 서울, 동경,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등에 있는 다국적회사들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법인의 국제자금관리 업무는 실물부문의 금융비용을 낮추어줌으로써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동북아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뮤추얼 펀드 및 헛지 펀드 등록업무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국제펀드나 헛지 펀드의 90% 이상이 역외금융센터에 설립 등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별펀드에게 편리하도록 테일러 메이드식 입법서비스 제공과 면세혜택에 있다. 동북아금융허브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손쉽게 판매하고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역외금융센터가 필요하다.

다섯째, 보험업무가 있다. 보험회사들이 역외금융센터에서 재보험이나 captive 보험에 참여한다. 특히 captive 보험은 최근에 만들어진 신종보험이며, captive 보험사는 일반 보험회사들이 받아들이기를 꺼리거나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매우 위험스런 모기업의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이다. 국제적인 영업활동으로는 보험의 직접 인수, 보험중개, 재보험 및 captive 보험, 위험의 증권화 및 위험파생상품, IT부서 같은 back office 활동, 재무관리, 자금조달관리, 금융지원부서 관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유동화업무가 있다.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부실채권 등 자산가치는 있으나 유동성이 낮거나 혹은 위험성이 높은 자산들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이들 자산유동화의 매개수단이 되는 유동화회사도 참여기관의 국적이 복수일 경우 역외금융센터에 설립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 역외금융센터에 주어지는 혜택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시 역외금융센터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조세

혜택과 규제완화가 대표적이다. 우선, 조세혜택의 경우 역외금융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거나 혹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주도가 벤치마킹하려는 아일랜드의 역외금융센터는 처음에는 국내보다는 더 낮은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했으나, 최근에는 24%에 이르는 국내법인세율을 12.5%로 낮추면서 역외금융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1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국제금융센터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들의 유치를 위해서는 12.5%의 법인세율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투자진흥지구에서 적용되는 최초소득이 발생하는 3년간 법인세 100% 면제와 그 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되어도 좋을 것이다. 역외금융센터에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영세율의 소득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선 낮은 소득세가 적용되거나 많은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조세피난처라는 오명은 사실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거의 영세율의 소득세가 적용되는 상황으로부터 유래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실명제가 실행되고 있으므로 원하는 국가의 세무당국에게 투자자의 자금과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정을 맺는다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규제완화의 경우 외환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기 때문에 외환의 유출입이 대단히 자유로우며,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역외금융센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소위 금융혁신이 역외금융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역외금융센터에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렇지만 불법자금세

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역외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관리가 국제적으로 최근 강화되는 추세이다.

바) 성공적인 역외금융센터의 특징

역외금융센터가 성공할 경우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거대한 주변금융시장의 존재이다. 런던 국제금융시장 주변에는 저지섬과 더블린 역외금융센터가 있으며, 뉴욕 국제금융시장 주변에는 케이만 아일랜드, 버뮤다 등의 역외금융센터가 번창하고 있다. 역외금융센터가 큰 국제금융시장과 보완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컨대, 서울금융시장에서 금융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만들어지면, 그 상품의 법적 주체는 제주국제금융센터에 등록하고, 그 금융상품의 실제 판매 및 관리는 서울의 모금융회사가 맡아서 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둘째, 영미식 불문법(common law) 제도이다. 불문법 제도는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제도이지만, 중앙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세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셋째, 부패하지 않은 좋은 행정이다. 특히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관계가 대단히 좋은 특징을 갖고 있어서 민간부문, 특히 금융부문의 요구를 정부가 신속하게 수용하여 입법화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금융감독 및 국제협력시스템의 강화이다. 금융감독체계의 강화, 정보교환체제 수립, 방대한 조세협약 체결 등 국제적으로도 협력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립시키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

(4) 제주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정부의 반대이유와 제주도의 입장⁴⁰⁾

가) 유해조세제도와 OECD 국가들의 강력한 제재

OECD 유해조세 판정기준은 ① 비과세하거나 낮은 유효세율 적용, ②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조세혜택 적용(ring-fencing), ③ 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의 결여, ④ 과세정보 교환거부 등 네 가지 조건 중에서 ①+②, ③, ④ 중 하나일 때 유해조세로 판정된다.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는 OECD의 유해조세제도(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s)로 판정되어 2002년 폐지된 제도로 이를 다시 부활하기는 곤란하다. OECD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건의 내용을 수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부터 강력한 제재(협약파기 등)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금융센터에서는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만이 투자가 허용되므로 투자소득에 대해서 면세혜택이 부여될 것이며, 역외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내외국인 법인 모두에 대해 동일한 법인세 혜택이 부여되므로 ②항에 저촉되지 않는다(역외금융업의 특성상 내국인은 역외금융자산에 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현행 금융실명제가 제주국제금융센

40) 제주도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제주대학교 국제금융연구센터와 제주금융포럼의 입장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구성원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터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③항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국제간 과세정보의 교환은 필요로 하는 국가와 과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협정을 맺으면 될 것이므로 ④항 역시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다. 다만, 제주국제금융센터에서는 투자자 소득에 대해 면세,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율 12.5% 혹은 3년간 100% 면세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①항이 문제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OECD에서 유해조세판정 업무를 담당하는 Tax council에서 2006년 작성한 OECD Progress Report에는 명확하게 “면세 혹은 낮은 세율 그 자체만으로는 차별적인 조세제도가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는 데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⁴¹⁾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제주만의 특별세감면이 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유해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명성과 정보교환 원칙만 지켜지면 차별적 세감면(ring fencing 포함)이 자동적으로 유해한 제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6년도 OECD보고서는 과세여부, 세율결정, 조세시스템 구조 선택에 대해서 OECD회원국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투명성의 원칙과 효과적 과세정보교환 원칙을 지키는 한 세율의 선택은 개별국가의 주권결정사항이라고 하여 역외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거나 비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ring fencing을 유해한 조세제도로 보지 않고 있다. OECD는 2000년 당초 낮은 세율과 ring fencing을 유해한 조세제도 판정의 기준으로 삼았

41) OECD, “The OECD’s Project on Harmful Tax Practices: 2006 Update on Progress in Member Countries”(2006), p. 3 n.4.

다가 2002년 미국 오닐 재무부장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서 두 조항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미국 델라웨어주 등 여러 개 주가 유해판정을 받게 되어 있었다.

최근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OECD의 권고 및 규제강화를 역외금융센터들이 수용한 결과, 역외금융센터의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또한 선진국 투자자들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역외금융센터의 오명을 탈색시키고 역외금융센터를 변영시키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규제는 일종의 도전이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고 해결하는 역외금융센터들만이 변영하고 있으므로 OECD의 규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OECD의 규제강화는 제주도에 역외금융센터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나) 1국가 2금융감독시스템

역외금융센터 추진을 위해 별도의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할 경우 1국가 2금융감독시스템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원적 감독체계를 이용한 cross-border supply 등으로 인해 감독의 혼란이 일어나고 실효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 역외금융센터의 순기능보다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의 증가 등 역기능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이원적인 금융감독체계가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면, 금융감독원이 역외금융센터의 불법자금거래와 탈법행위 등을 철저히 감독하면 될 것이다. 이원적인 감독체계를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전문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며, 더블린의 경우 처음에는 독자적인 감독청을 만들었으나 국제적인 신뢰도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통합되었다.

다) 인적자원, 접근성, 돈세탁방지법, 경제효과 등의 문제

제주는 인적자원 확보나 금융시장 접근성 등의 제반여건 측면에서 취약하다. 조세피난처 식의 역외금융센터를 조성할 경우 현행 금융실명제법, 돈세탁방지법 등과 상충문제가 발생한다. 조세피난처 식의 국제금융센터는 실제 고용창출과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을 통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극히 제한적이다.

이들 문제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인력의 조달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 이를 당장 확보될 수 없으나 외부(국내외)에서 얼마든지 조달 가능하며(다른 작은 국가의 역외금융센터는 전문인력을 미국, 영국 등에서 수확한 금융인력들을 스카웃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국내 및 제주도에서도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2007년 10월부터 자산운용협회와 제주대학교 국제금융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하여 '펀드 매니저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제주에서도 자산운용업에 필요한 펀드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둘째, 대규모 금융시장과의 접근성 문제의 경우 서울, 동경, 베이징, 상하이와는 1~2시간의 거리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최적지이다. 전 세계의 성공적인 역외금융센터(더블린, 맨섬, 저지섬, 버뮤다, 바하마, 케이만 아일랜드 등)는 런던, 뉴욕으로부터 1~4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다. 인천의 송도지구에 역외금융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서울에

근접하여 좋을 수 있으나, 법인세 인하 혜택, 지방세 감면 등에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법인세가 인하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더블린 이 대표적인 사례임). 또한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고, 북경, 상하이, 도쿄 등의 금융시장과의 접근성에서도 제주에 비해 크게 유리한 점이 없다.

셋째, 조세피난처의 우려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투자자의 배당, 이자, 증권매매이익 등에 대한 면세는 과거에 조세피난처라는 불명예를 역외금융센터에 안겨주었으나, 최근에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액과 투자소득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국가의 세무당국에 제공함으로써 해당국이 조세를 부과할 근거를 가지게 됨으로써 제주국제금융센터에 대해선 조세피난처라는 말은 적용되지 않다.

넷째,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당연히 제주국제금융센터에 적용되며, 금융실명제 때문에 세무자료를 필요로 하는 국가의 세무당국에 제공할 수 있으며, 물론 이 정보는 당연히 과세자료로만 이용이 한정될 것이다.

다섯째, 불법자금세탁의 경우 세계 대부분의 역외금융센터에는 금융감독청이 만들어지고, 자금이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서 테러와 마약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불법자금의 세탁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제주국제금융센터의 경우 독립적인 금융감독청이 설립되어야 하거나 혹은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

도를 제주가 그냥 따르면 투명성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정보 교환 문제는 기존에 국가간 조세협정을 주요 국가들과 확대해서 체결해 나가면 해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센터 설립 후 10년까지는 페이퍼 컴퍼니 중심으로 운영되고 또한 대외신인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제적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더블린의 경우도 설치 후 10년간은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였으나 대외신인도가 쌓이면서 2000년대에 갑자기 역외금융업이 팽창하였고, 이와 더불어 연관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2006년 1인당 GDP가 5만 150달러(세계 5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국제금융센터의 자산운용업이 활성화되고 제주국제금융센터가 이를 보완하면서 지원하고, 또한 제주국제금융센터의 대외신인도가 상승하면 설립 후 10년 이후부터는 경제적 효과가 더블린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와 역외금융센터의 실현 가능성

기존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수립 당시 역외금융센터 또는 기장센터 등은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역외금융센터의 실현 가능성도 회의적이다. OECD 협약 등으로 인하여 세계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역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수요도 거의 없다. 현재 국내 진입을 타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역외금융업보다는 연기금, 퇴직연금 등 국내에서의 자산운용수요가 주된 관심이다.

이들 문제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자산운용업에 특화하는 서울국제금융센터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금융상품의 개발은 서울 본사에서, 판매는 제주 자회사에서 그리고 운영은 서울의 본사에서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미래에셋증권이 벨기에에 자회사를 세울 것이 아니라 제주에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하거나, 장하성펀드가 더블린에 본사를 둘 것이 아니라 제주에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의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명품 자산운용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12월의 ‘동북아 금융허브전략’ 작성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규제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역외금융업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시장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예컨대, 아일랜드는 역외금융업을 더블린에 유치하고 20년 만에 서유럽에서 최선진국(1인당 GDP 2006년 추정치 50,150US\$)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최근 역외금융업을 하는 섬나라들은 1인당 GDP가 세계에서 최상위권(리히텐슈타인, 버뮤다, 바하마, 케이만 아일랜드 등)에 속하고 있다.

OECD 협약 등으로 세계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곤란한 것은 없다. 금융소득에 대해서 파격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과 동등한 법인세율을 적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블린도 처

음에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으나, OECD의 권고를 수용하여 법인세율을 12.5%로 상향 조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산업의 법인세율도 대략 3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였다.

2006년도 OECD보고서는 과세여부, 세율결정, 조세시스템 구조 선택에 대해서 OECD회원국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투명성의 원칙과 효과적 과세정보교환 원칙을 지키는 한 세율의 선택은 개별국가의 주권결정사항이며, 따라서 OECD 협약이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중국이 민간인들에게 해외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역외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넘쳐날 것이며, 또한 일본 국내 예금이자율이 0%에 근접하기 때문에 일본의 부자들의 역외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역시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국제금융센터가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중국과 일본의 역외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끌어들이기는 용이할 것이며, 그에 따라 국내자산운용사와 외국의 자산운용사들의 제주국제금융센터 유치도 대단히 쉬울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라부안에 역외금융센터를 유치하면서 라부안과 쿠알라룸푸르가 이슬람금융의 허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제주국제금융센터는 궁극적으로 서울국제금융센터의 성공을 가능케 하며, 그에 따라 20년 이내에 제주와 서울이 명실상부한 동북아금융허브가 될 것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이 법제도와 같은 자국내 사정으로 역외금융센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 시점이 설치의 최적기라고 생각된다.

7) 결론

국제금융산업은 앞으로 100여년에 걸쳐서 제주도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차세대 주력산업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이상 실현의 기반이며,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경제교류의 장이 되면서 동북아의 평화정착에도 크게 공헌할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은 현재 한·중·일간에 협의의 중에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논의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약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가 추진된다면 동북아개발은행의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제주도가 직접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부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이 동북아금융 허브전략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려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

2. 청정에너지산업

1) 제주도 청정에너지산업 개황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립이 어려움은 물론 에너지의 수급구조가 매우 취약한 데 비해 산업발달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발전소·송전선로 등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은 환경문제와 주민저항 등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실증지역으로 활용되고 있

고,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 확대 등 청정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 중단기적 사업의 개발 및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 지침 성격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청정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주도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81년도부터 한림 월령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를 유치하여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풍력발전 등 실증연구 사업을 진행시킴으로써 지역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기반을 조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월정지구 성능평가 기지의 조성, 실증연구센터 설립,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와 아울러 NURI, BK 사업을 통한 청정에너지 특화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을 조성했다.

1997년 8월 국내 최초로 10MW 규모의 행원풍력단지 건설에 착수, 2003년 4월 성공적으로 완성 운영함으로써 풍력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2003년 8월부터 도내 6개 마을을 그린빌리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1단계 사업으로 한경 지구 내 등 3개 마을에 주택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풍력발전 공급 사업에 착수했다. 한국남부발전(주)에서 2004년 3월에 한경지역에 6MW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완료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민자 풍력발전 시대가 개막됨과 동시에 국내외 기업들이 제주지역 풍력산업진출을 시도하는 활발한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향후 취약한 기존 에너지 수급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의 발굴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

성 사업을 보다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청정에너지인 LNG 도입으로 신산업분야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천연가스는 연소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의 양은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미량이며, 경질가스이기 때문에 스모그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낮게 배출됨으로 지구온난화 저감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발전소와 도시가스는 물론 대형버스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LNG 도입으로 냉열발전, 공기액화분리, 냉동창고, 액화탄산 및 드라이아이스 제조, 냉동식품제조, 지역냉방, 인공스키 및 스케이트장, 초저온 체험교육 및 관광, 해수담수화, 액체수소 및 얼음제조기술 등 새로운 2차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

2) 제주도의 에너지 현황

제주도의 용도별 전력사용 현황, 발전설비 현황, 유류소비 현황, 신-재생 에너지 현황설비, 에너지 소비량 현황을 도표화 하면 <표 5-1>, <표 5-2>, <표 5-3>, <표 5-4>와 같다.

<표 5-1> 용도별 전력사용 현황(단위: MWh)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704,939 (100.0%)	1,955,071 (100.0%)	2,714,767 (100.0%)	2,364,242 (100.0%)	2,562,240 (100.0%)	2,580,734 (100.0%)
가정용	353,504 (20.7%)	375,387 (19.2%)	401,269 (18.5%)	428,813 (18.2%)	472,776 (18.5%)	599,658 (23.2%)

공공용	99,139 (5.8%)	106,442 (5.4%)	120,69 (5.5%)	134,502 (5.7%)	143,450 (5.6%)	120,802 (4.7%)
서비스용	736,551 (43.2%)	836,909 (42.8%)	939,385 (43.2%)	1,039,309 (44.0%)	1,116,410 (43.6%)	964,147 (37.4%)
산업용	515,745 (30.3%)	636,333 (32.5%)	713,422 (32.8%)	760,618 (32.2%)	829,604 (32.4%)	896,127 (34.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2006

〈표 5-2〉 제주도 발전설비 현황(2007. 4월 현재)

구 분	발전 설비(MW)	발전량(MWh)
제주화력	255.0	1,110,117.5
남제주화력	260.0	388,844.7
한림복합화력	105.0	102,019.0
해저케이블	150.0	1,157,437.0
합 계	770	2,769,927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표 5-3〉 신·재생에너지 시설현황(2007. 4. 현재)

구 분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각열	바이오가스
시설용량	19.2MW	935kW	928m ²	124.5RT	100톤/일	1,375kW
개소	4	주택 197 발전 11	5	4	1	2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과

〈표 5-4〉 총에너지 수요추정

구 분	단위	2004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계획인구	천명	616	657	696	741	797
1인 소비량	톤/년	3.8	4.0	4.0	4.0	4.0
총 소비량	천톤/년	2,340	2,628	2,784	2,964	3,188

주: 1) 소비량 원단위는 석유환산톤(TOE) 임 2) 1인당 소비량은 국토연구원 자료

3)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신·재생에너지는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 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가의 불안정과 고가격화 지속 가능성 및 기후변화협약 규제 대응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너지 공급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IT, BT, NT산업과 더불어 미래산업이자 차세대산업으로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1년까지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목표 하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주요 선진국 대비 수소·연료전지 59%, 태양광 74%, 풍력 87% 수준이다.

〈표 5-5〉 신·재생에너지의 원별 선진국 대비 기술개발 수준('05년 기준)

구 분	기술개발 수준	구 분	기술개발 수준
수 소	39%	폐기물	53%
연료전지	59%	태양열	72%
태양광	74%	석탄이용	53%
풍 력	87%	소수력	84%
바이오	57%	지 열	56%
해 양	83%	평 균	65%

자료: 산업자원부

제주도는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지방보급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민자유치 등으로 청정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추진 중이다.

〈표 5-6〉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관련 연구기반구축사업(단위: 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비 고
계		818	
제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구축	'03~'10	63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실증연구센터 운영	'05~'09	12	제주자치도, 제주대학교
육상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조성	'07~'08	60	산업자원부
수송용 연료전지모니터링사업	'07~'08	112	산업자원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과

(1) 풍력

1997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은 9.8MW 규모의 행원 풍력발전단지는 21,900MWh/년의 전력 생산과 전력 판매수입 14억원/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민간투자인 한국남부발전(주)은 2004년 3월 한경면 지역에 6MW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2009년까지 34MW의 풍력발전단지 추가 건설을 계획 중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신·재생에너지연구기지는 현재 태양광 발전시스템 3기(15kW), 국산 인증 1.5MW급 풍력 1기, 고공 기상탑, 태양열 해수 담수화 시스템,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제조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향후 풍력, 태양광, 태양열 해수 담수와, 수소 연료전지 실험실 완비 예정이다. 또한 해상에는 해상 풍력, 해상기상탑, 해저연계선 등 13동의 연구시설과 실험실, 그리고 지원센터 등이 계획

되어 있다.

김녕 육상풍력 실증단지는 최근 정부가 공모한 과제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주대가 공동연구로 신청한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고, 현재 건설 중이다. (주) 삼무 -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판포리 간 공유수면 내 3MW 풍력발전기 10기 건설 예정이다. 풍력발전을 통해 전력판매는 물론, CO₂ 배출권 판매사업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다.

(2) 태양에너지

태양열 온수기 보급(제주 전역에 약 5천기) 및 태양광 발전소 건립(마라도에 150kW규모)을 지원하였으며, 일사량이 풍부한 중문동 일대 및 향후 국립공원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 동광, 자구내 지역의 태양광 그린빌리지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아울러 주택형 태양광발전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여 운전실적 홍보 및 유지보수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일원에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 1,000호기를 보급하여 도시중심의 솔라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지열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지열을 활용한 농업용 냉난방, 매립가스 및 하수처리장 발생 매탄가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 중이며, 향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실증 운행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하수종말처리장 및 양식장 내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소수력 발전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4) 바이오디젤(Bio-Diesel, BD)

정부는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으로 2002~2006년간 수도권 및 전 북지역을 중심으로 BD20, BD5(경유 80% + 바이오디젤 5% 혼합유) 적용한 상용 디젤차량을 실증 운행하여 산자부 및 정유사 간 자발적 협약으로 BD0.5의 보급을 시행 중이다. 2007년 3월 제주 지역에서 BD5(승용차), BD20(트럭, 버스, 선박 등)의 보급을 추진 중이며, 도내 BD공급 원료(유채·폐식용유) 확보, 대상 자동차 결정, 환경 보전·관광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다.

제주도는 다음과 같이 BD20 보급을 추진 중이다.

- 다수확 신품종 BD 유채 실증시험 재배
- 산자부, 제주지역 에너지 특화사업 로드맵에 BD 보급 포함
- BD 원료 확보를 위한 유채재배 지원 및 폐식용유 수거
- 경유 자동차에 BD20 보급을 통한 도내 BD 수요처 개발
- 도내 BD20 보급을 위한 제조공장 유치
- 유채 재배지역 관광자원화 추진

4) 제주도의 에너지산업 SWOT분석

제주지역은 청정지역으로서 바람자원이 풍부하고, 청정 환경으로 태양에너지 이용의 적지이며, 풍력, 태양광등 국내 보급 및 기술개발에 적극 추진해온 것이 강점 요인이다. 제주지역은 소비에너지 전량을 육지로부터 수송해 와야 하는 것이 약점 요인이 있으나 LNG 및 해저전력연계선 도입 예정으로 에너지 자립도로의 도약의 기회 요인도 있다.

강점(Strength) ●바람자원이 풍부한 자연환경 ●해양 및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적지 ●풍력, 태양광 보급 및 기술개발 국책 연구사업에 적극추진 ●LNG 및 해저전력연계선 도입 예정으로 에너지 자립도로의 도약 ●BD20 대형차량에 보급	약점(Weakness) ●소비에너지 전량 육지부에서 수송 ●섬이라는 지리적 단점으로 육지부에 비해 석유가격 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의 취약 ●LNG, 해저전력연계선 및 BD20 관련산업 분야가 취약 ●전력을 수송하는 전신주가 가공으로 설치되어 자연경관을 해침
기회(Opportunity) ●신재생에너지, LNG산업 등의 도입으로 도내 관련산업이 개척 및 도약 기회가 커짐 ●풍력발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업 추진 경험 ●청정에너지실증연구센터 운영으로 연구개발 노하우 축적 ●무공해 청정에너지의 산업화로 신산업 구조 창출 가능	위협(Threat) ●FTA 등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쟁 심화 ●에너지 분야 산업형 전문 인력 부족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비용 부담 가중

(그림 5-2) 제주지역 에너지 SWOT 분석

풍력발전 개발 선도 및 지역에 적합한 청정에너지를 개발보급 하기 위한 연구개발 노하우 축적으로, FTA 협상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1차 산업을 청정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기회 요인이 있다.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비용 부담 가중으로 인한 1차 산업 경쟁력 약화 및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나, 청정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BD20의 보급 활성화 및 LNG 도입으로 청정 환경의 구현은 물론 UNESCO 자연유산 등재 등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비용 부담 가중되고 있으나 2011까지 LNG도입으로 산업분야 및 가정용 에너지 비용이 절

감되어 1, 2, 3차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D20의 보급 활성화, LNG 도입 및 청정에너지 신산업도입이 가시화 되어 도내 관련 산업이 개척 및 도약 기회가 커졌으나 도내 에너지 기업역량이 취약하며 전문인력 양성이 체계화되지 않아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내 전력 공급선인 154kV 및 22.9kV 연계선이 가공으로 설치되어 자연경관을 해침으로서 청정제주, 풍광이 아름다운 제주의 이미지에 위기로소로 작용하고 있다.

5)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1) 풍력에너지

제주도의 풍속자원은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며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 및 환경적 조건도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풍력단지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제주의 청정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산업의 부흥을 통한 미래 제주경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로서 청정성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청정한 제주환경을 보존하며 아울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추진과 더불어 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풍력발전시스템은 거대 토목 구조물이기 때문에 소음, 전파 장애, 경관상의 영향, 동식물에 대한 영향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소음은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규칙적 소음 및 기어 박스에서 발생하는 광대역 소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민감한 민원 문제 중 하나이다.

전파 장애도 전자기 간섭에 의한 송신파의 산란 및 교란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경관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그림자 문제, 일조권 침해, 거대 수직 구조물로 인한 심리적 위압감 등이 있다. 그래서 주위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배치·디자인·색채 등에 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조경학적 시각 장애, 조류 충돌 문제, 소음·전자기에 의한 생태학적 문제 등이 있다. 이는 풍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까지 장기간 의논해 왔지만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문제이고 그만큼 협의사항이 많은 항목이다.

현재 제주도내의 풍력산업에 대한 사회수용성 관련 민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환경과 조화하는 풍력발전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계획 초기부터 해당지역의 정보수집에 힘쓰는 것과 함께 주민과의 대화를 병행하면서 사업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제주도 풍력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에너지기술연구소 분원과 적극 협력하여 학·연 공동연구 추진
- 행원단지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시스템과 월정지역에 성능평가 단지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 및 인력양성
- 제주대학교의 NURI 사업으로 하여 연구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
- 한전기공(주)과 MOU 등을 체결하여 유지 보수관련 기술 습득 및 고용창출
- 국외 풍력인증 시험기관 및 국외 풍력발전기 제조회사와 기술교류체제 구축
- 풍력발전단지와 주변 청정환경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체험 관광시

설을 조성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함

- 해당지역 주민과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면서
풍력사업 추진
- 제주도는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적절한 지침이나 기준을 설정하
여 시행함

(2) 바이오디젤분야

바이오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중 유일하게 수송용 연료를 생산하
는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개
발된 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증 공정의 구축 및 최적화를 위한 운전연
구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제주도 바이오디젤 에너지 추진전략을 제
시하고 있다.

가) BD 원료용 유채재배 지원

제주도의 유채 재배는 1977년 14,512ha에서 18,864톤이 생산되었
으나 2004년 1,107ha에서 1,345톤이 생산되어 대폭 감소했다. 그리
고 생산된 유채는 kg당 1,028원(보조금 873원 + 매입가 155원)으로
전량 수매하고 있으나, 농가 수익은 가구당 60만원(ha당 1백만원)으
로 경제성이 낮아 재배를 기피하고 있다. 다만, 우도지역은 경관직불
제를 실시하여 ha당 170만원을 추가 지원(연간 2.4억원 지급)하고 있
다. 수매된 유채는 (주)대동에서 가공 처리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2008년 이후부터는 가공을 중단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BD 원료용 유채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대책으로 농림부는 BD

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에서 확정된 면적은 500ha이며 농진청 목포시험장에서 공급예정인 다수확품종을 파종, 기존 품종 1.2톤/ha의 생산량에서 이 신품종은 3.2톤/ha로 2.7배의 증산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수매 가격은 350원/kg이다. 그리고 FTA 대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3,000ha까지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유채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유채가격을 농가 희망가격(1,700원/kg)으로 대폭 인상(현재 155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보조금 1,000원/kg(국비확보)과 BD제조업체 구입가 700원/kg을 목표로 정부와 절충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절충이 이루어질 경우 유채 재배농가의 조수익은 ha당 714만원(가구당 46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폐식용유 수거 활용

기존 폐식용유 수거 체제는 제주시의 경우 수거업자가, 서귀포시는 생활환경과에서 수거 중에 있다. 폐식용유 수거 활용을 위해서는 폐식용유 수거체계 구축 및 수거 확대가 필요하다.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BD 제조업체 유치시 BD 업체에서 전량 매입하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다) 대형 경유 자동차에 BD20 보급 등 수요처 개발

현행 BD20 보급은 산자부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를 관련 근거로 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BD 상용화 개시로 산자부·정유사간 BD 보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국내 전 주유소에서 0.5%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다. 다른 하나는 차량 소유자 책임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에 한해 BD20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자가 주유·정비가 가능한 업체를 중심으로 버스·트럭·건설기계에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BD20 보급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12인승 이상의 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 대형 경유자동차 및 9인승 이하 승용 경유자동차 및 LPG 자동차로 연차적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선 등 선박 연료를 BD20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인 경우 BD20 연간 소비 예상량은 총 113,772kl(차량 35,525kl, 선박 78,247kl)로 대형 경유자동차 9,109대(버스 1,606 트럭 2,680 건설기계 4,823)와 어선 등 선박 3,030척(어업지도선 5척 포함)이 대상이 된다.

라) 도내 BD20 공급을 위한 제조공장 유치

도내에서 생산되는 유채는 전량 (주)대동에서 가공·소비하고 있으나, 수익성·시설노후 등으로 2008년 이후 공장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도내 BD 수요처에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BD20'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BD 제조공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제주에 투자의향을 표명중인 BD20 제조사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 객관적인 절차 및 기준에 의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업체 1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적업체 선정 후 MOU 체결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마) 유채 재배지역 관광자원화 방안 강구

BD 보급 확대사업 추진 및 FTA 대응 차원에서 유채재배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 2007년도 500ha에서 연차적으로 3,000ha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확대되는 유채 재배지에 대한 관광 자원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시행된 우도지역에서의 유채꽃 축제 개최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BD 용 유채는 계약재배되므로 대상지가 사전 결정되는 점을 감안한 촬영지 및 관광코스화 등 관광자원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바) 기대효과

BD 에너지 추진전략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유채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다생산 품종(종자)을 공급하고 수매가격 인상(농가 희망가격 1,700원/kg)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도민들의 수송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BD20 소비자 가격은 BD100의 면세적용에 따라 경유 대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경유자동차 9,109대(버스1,606 화물자동차2,680 건설기계 4,823)에 보급할 경우 연간 연료비 절감액은 114억원[경유차 35,525kl, 선박 78,247kl(3,030대)]으로 추정된다.

셋째, 양봉 및 관광산업 육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주의 특산물 중 하나인 유채꿀의 다량 생산으로 양봉업 소득증대 효과와 함께 유채 재배면적의 대폭 확대를 통한 관광자원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를 통한 청정환경 보전 및 청정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UNESCO 생물권 보전 지역이며, 국내 최초로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된 청정지역으로

이에 걸맞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통해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14%를 감축할 수 있다.

(3) LNG 산업 분야

천연가스는 80~90%의 메탄가스에 에탄, 프로판 등이 섞여있는 혼합가스로 산지에서는 고온고압의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장거리 수송하기 위해서는 메탄의 기화온도인 -162°C 의 액화공정을 거쳐서 부피를 1/600로 축소시킨 액화천연가스(LNG)로 만들어 전용선을 이용하여 수송한다. 수송된 LNG는 인수기지에서 다시 기화시켜 상온상태의 천연가스로 바꾼 후 배관을 이용, 도시가스나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된다.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LNG 인수기지, 발전소, 도시가스 배관매설 등 토목 및 건설 산업과 도시가스 공급 및 시설 안전관리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연가스는 연소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의 양은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미량이며 경질가스이기 때문에 스모그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낮게 제어할 수 있으므로 지구온난화 저감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발전소와 도시가스는 물론 대형버스 등의 연료로도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LNG는 대기압 하에서 상온까지 기화될 때 1kg당 약 840kJ의 냉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냉열의 대부분은 바다에 폐기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버려지는 LNG 냉열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이 육성되고 있다.

냉열을 이용하는 산업에는 LNG 냉열을 직접 이용하는 기술과 LNG

냉열에 의해 제조된 액화질소, 액화탄소 등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직간접적인 이용을 위한 여러 기술이 실용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용률도 확대되고 있다. LNG 냉열을 직접 이용하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냉열발전, 공기액화분리, 냉동창고, 액화탄산 및 드라이아이스 제조, 냉동식품제조, 지역냉방, 인공스키 및 스케이트장, 초저온 체험교육 및 관광, 해수담수화, 액체수소 및 얼음제조 기술 등이다. 공기 액화분리기술로 생산된 액체질소를 이용하는 LNG 냉열 간접 이용기술로는 냉동·냉장 산업은 물론 저온분쇄, 동결분쇄, 폐기물처리, 저온의료, 금속의 심냉처리기술 등을 들 수 있다. 더불어 공기 액화분리 시 생산된 액체산소는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는 초고온 소각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상기 냉열이용기술의 대부분은 기존의 기술보다 약 50~60%의 에너지절약효과도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상당부분 상업화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적합한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내에 새로운 2차 산업 육성도 가능하다. 인수기지 BOG를 이용하여 DME를 생산 보급할 경우, 이는 인수기지에 DME 제조 설비를 설치 생산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설비를 운영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또한 LNG를 공급받지 못하는, 즉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지 못하는 지역에 LPG 대체 또는 LPG 혼합연료로 공급할 경우 에너지 양극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기존 디젤버스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압축방식 엔진을 점화방식의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디젤유를 DME로 대체할 경우 가스킷과 플런저를 제외한 압축방식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매우 유리하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천연가스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지열에너지 분야

지열에너지의 이용은 심도에 따라 일정한 온도를 갖는 열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적용 시스템이 열원 온도에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온열원을 갖는 천부지열에서는 열펌프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의 열원으로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고온을 이용할 수 있는 심부지열에서는 지열발전 혹은 지역난방시스템에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심부 지열 이용은 상대적으로 열원온도, 에너지 밀도 등 에너지적 특성이 양호한 편이나 입지 탐사와 선정이 어렵고 개발 환경과 경제성 문제로 개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천부 지열을 이용은 입지의 제약이 적고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화석 에너지가 격상승으로 경제성 면에서도 비교 우위를 갖는다. 따라서 냉난방이 모두 가능한 지열 이용 시스템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개발 증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열 획득 방법에 따라 수평형, 수직형, 지표수형, 지하수형, 말뚝형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 지열이용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에 비해 초기의 투자비용이 크고 지열의 특성상 에너지 밀도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제주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대륙 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열이용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심부 지열 이용이 경우 입지조건의 확보 및 경제성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반이나 지하 동굴의 붕괴, 지하수원의 변형이나 파괴, 자연환경 혹은 자연경관의 훼손 등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획득이 용의한 지하열, 지중공기열, 지하수열 등의 지열원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과 이용이 필요하다. 청정에너지로서 지열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열에너지 분포에 대한 세밀한 조사활동 필요
- 지역의 지질구조와 기후 환경에 적합한 지열 이용 시스템의 개발 활동
- 산학연 협동을 통한 지역 및 요구에 적합한 지열 시스템 기준 확립
- 지열 이용 시스템에 대한 교육활동을 통한 인제 육성
- 청정에너지로서의 지열에너지 이용 홍보와 관련 산업의 육성

(5) 태양에너지 및 수소연료전지사업분야

태양에너지 사업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 태양광(PV), 풍력 중심 분산제어형 전력계통 안정화 기술개발
- 재생에너지 이용 제로에너지 주택 기술개발
- 집광형 집열기 이용 태양열 발전 기술개발
- 분산 전원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

수소연료전지 사업분야에서는 미래 수소에너지시대를 선도할 첨단 실증 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통합기술 연구기지 국책 연구사업(제주 월정)
- 풍력, 태양광, 수전해, 수소저장 및 연료전지 연계 통합에너지시스템 개발
- 수소경제사회 진입기반 구축 및 에너지 안보 확립

- 수소 스테이션 개발 및 연료전지 자동차 운행 사업
- 연료전지 + Microturbine 열병합 발전기술 개발

6) 제안

행원풍력단지, 월정에너지기술연구소 연구기지 및 육해상 풍력실증 단지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내 청정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으로 중점 육성해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풍력, 태양, 수소·연료전지 등 제주형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 해역에 대규모 해양 풍력발전단지 건설하여 전력 자립 및 육지부 송출로 자주 자원 확충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LNG 공급, LNG 발전소 및 제주-육지간 HVDC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 자연경관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지중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국제회의산업

1) 제주도 국제회의산업의 SWOT분석

관광산업의 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컨벤션 산업에 대해 각국 주요도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수단 중의 하나로서 이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컨벤션 산업 역시 참가도시와의 문화와 정보 교류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서의 입지 ● 풍부한 관광자원 및 레저 시설(회의와 휴양의 연계가능) ● 수준높은 호텔시설과 서비스 ● 전문회의인프라(ICC JEJU) 구축 ● 잘 구축된 다양한 숙박시설 ● 회의시설 및 리조트호텔 집적화 ● 편리한 도로망 및 교통환경 ● 지자체의 회의산업 육성 및 지원(재정적, 행정적 지원)	● 높은 항공교통비 및 항공좌석수 부족에 따른 고객유치의 어려움 ● 타시도 대비 고가의 특급호텔 객실가격 ● PCO 및 DMC의 경쟁력 낮음 ● 컨벤션 관련 서비스업체의 영세성 ● 외국 및 전국 주요도시와의 접근성의 한계 ● 국제회의 목적지로서의 이미지 낮음(낮은 지역인지도) ● 컨벤션 지원인력 및 지원환경 부족(컨벤션커뮤니티 체제 미구축) ● 제주도민의 컨벤션산업의 중요성 인식 부족 및 홍보미흡 ● 쇼핑시설의 부족 ● 야간관광(Night Life)의 다양성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국내외 기업회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중화권 기업회의 시장 급증추세) ●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산 및 관련시장 확대 ● 중국·동남아 등 국제관광객 증가에 따른 제주의 인지도 제고 ● 환경생태 및 레저 등 체험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회의 개최지로서의 경쟁력 제고 ● 한류열풍에 따른 제주 인지도 상승 ● 인천공항 시설사용료 감면에 따른 인천-제주노선의 활성화 ● 기업인센티브행사 유치에 따른 관련 행사 유치가능성 높아짐 ● 세계자연유산 등재확정에 따른 제주 인지도 상승기대	● 타시도와의 국내경쟁심화 및 공급과잉(국내 인프라의 중복개발)에 따른 출혈 경쟁 ● 항공좌석의 부족 ● 아시아권 관문도시 간 국제회의 유치경쟁 심화 ● 동아시아 국제컨벤션시장 경쟁력 심화 ● 국내외 자유무역지대 확대에 인한 경쟁 심화(인천, 중국 심천) ● 도민차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의로서의 회의산업의 중요성 인식부족

〈그림 5-4〉 제주 국제회의산업의 SWOT분석

제주지역이 주변지역의 주요 컨벤션 도시와 경쟁상황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려면 다양한 회의시장에 대한 연구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컨벤션 개최건수나 점유율에 있어 서울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제주지역 컨벤션 산업의 경우 기존 회의시장과 겹치지 않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컨벤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경우 컨벤션시장으로서의 차별화된 강점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리조트형 컨벤션 목적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컨벤션 목적지가 리조트의 성격을 가질 경우 도시의 복잡함을 피할 수 있어 이에 걸맞는 회의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표 5-7〉 2006년 전국 컨벤션센터 현황(행사건수 및 매출액)

시설명	총행사 건수	국제행사 건수	국제행사 비율(%)	가동률 (%)	매출액(원)
ICC JEJU	163	35	21.5	54	30억500만
COEX	2,520	40	1.6	69.9	310억2,100만
BEXCO	463	55	11.9	53	210억2,500만
EXCO대구	1,013	22	2.2	70	118억1,400만
KINTEX	92	29	31.5	51	157억1,000만
DJ 컨벤션센터	405	18	4.4	31	21억300만
CECO	1,233	6	0.5	50.4	24억2,500만

자료: ICC JEJU 마케팅팀

〈표 5-7〉는 전국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행사건수 및 매출액 등의 현황을 제시한 것으로서 국제행사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부산 벡스코와 서울 코엑스 그리고 제주 컨벤션센터 등의 순으로 나

타났고,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코엑스 약 310억원과 벅스코 약 210억 원에 비해 제주컨벤션 센터의 경우 약 30억 수준에 그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타 지역의 컨벤션 센터의 경우 도시내 탄탄한 기업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전시회와 박람회를 국제회의 개최와 병행할 수 있는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는 물류와 내수시장의 취약으로 인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시 및 박람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인 때문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인센티브 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표 5-8〉 광역자치단체의 국제행사 참가자 외국인 비율현황('03~'06년)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개최건수 (증감율)	4,165 (12,17)	4,210 (1,08)	4,803 14,08	4,724 (-1,65)	5,455 (15,87)	5,474 (0,03)	6,304 (15,16)	6,202 (-1,62)	5,838 (-5,87)

자료: 세계국제회의전문협회(ICCA), 2007

〈표 5-8〉은 국제행사 참가자의 외국인 참가 비율현황을 제시한 것으로서 2002년 약 15%라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이후 소폭의 성장을 거치면서 200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수치를 보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국제회의가 다소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동북아 지역 국제회의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경우 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장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2) 평화관련 국제회의 유치가능성 분석

국제회의 산업이 성장산업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주장이 지

속적으로 주장되었지만,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건수는 고작 164건(2004년 기준)에 불과하다. 한국관광공사의 국제회의를 기준(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자수 10명이상)으로 한다 해도 채 305건이 안 된다.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 유치 건수가 연중 1만 건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를 급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하나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의향서(proposal) 제출, 사전마케팅 활동, 공개경쟁 문건(bidding paper)제출, 공개마케팅 실시, 목적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보통 2~3년이 소요되고, 이 과정 속에서 입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국제회의 개최로 인해 한국이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방문객은 1년 기준으로 약 60,000명 내외이고 내국인 참가자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150,000명 선에 그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가 컨벤션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국제회의 참가자 1인당 소비액이 일반 관광객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액은 개별 참가자 기준으로 항공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소비액은 2,366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개별 관광객(FIT)의 1인당 소비액 984달러와 비교하면 국제회의 참가자 소비액은 2.4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국제회의 개최로 인해 엄청난 브랜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안정적으로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외부적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제주의 경우 제주컨벤션센터 건립을 계기로 국제회의 개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고 주변 도시에 뒤지지 않는 경쟁

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컨벤션 시설 공급이 경쟁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회의 관련 수요가 1만건 내외에서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그 대안의 하나로 평화에 기반을 둔 기업회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는 그동안 외국의 기업회의 유치에 대한 노력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재정적, 인력적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었다.

제주가 평화기반 기업국제회의를 육성해야 할 당위성은 주변상황을 분석하면 쉽게 제시될 수 있다.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Toyota, Honda, Sony 등 세계 100대 기업에 속하는 국제적인 대기업이 7개나 소재해 있다. 중국의 경우, 2005년도 1월 현재 상하이에 GE, IBM, Phillips 등 86개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소재해 있으며, 외자기업과 R&D센터는 각각 105개 및 140개로 나타났고, 세계 500대 기업 중 300개가 진출해 있다. 또한 210개의 국내외 투자 및 금융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제주 국제회의산업의 경쟁력은 평화를 기반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기업회의 시장을 개척하지 않고는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협회, 학회 총회 등과 같은 분야에 지나친 의존을 버리고 스포츠 및 문화 또는 종교 이벤트,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여행 등 다양한 유치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화기반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실질적인 유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의 경우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주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 혹은 주변 국가의 평화관련 단체 등을 체계적으로 묶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화관련 단체 및 학회에 가입된 한국의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설득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지자체 및 컨벤션뷰로 그리고 이해집단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이들을 꾸준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제주로 평화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면 우치자 본인 위상도 올라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이 평화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있어 가격, 접근성, 매력성을 따지자면 주변 경쟁도시에 비해 월등히 낫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 다양한 차원에서의 후원단체 확보(평화 브랜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전문인력 양성과 제주지역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평화관련 국제회의 유치 강화 방안

평화관련 국제회의의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회의의 유치강화를 위해 제주 ICC의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중화권 및 일본 시장 개척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구체적인 시장개척안을 마련하여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투어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하며, PCO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해외 현지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제주도 해외홍보사무소의 기능 확대를 통해 인센티브 투어, 국제회의 등의 유치강화, 국내·외 PCO, 주최자 대상 팸투어(fam tour)의 정기적 실시, 국제회의 유치홍보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 전문전시회의 지속적인 참가 및 컨벤션 관련 전문지 대상 광고 시행 등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회의 등 인센티브 회의 유치 강화를 위해 주요 주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팸투어 실시 및 홍보자료 발송 등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 개최를 위해 개최실적 등에 따라 비용 할인과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기업회의는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최하는 회의로서 참가자 숫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가 75%에 달할 정도로 소규모이고 비정기적인 경우가 많지만 개최 횟수는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다. Meetings and Conventions의 2004년 Meetings Market Report에 의하면, 미국 전체 회의시장 중 기업회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84%이상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개최된 회의와 컨벤션 개최 건수는 기업회의가 증가한 반면 협회회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중화권 기업인센티브 관광이 2005년 10개 업체 1,057명에서 2006년 7월말 현재 8개 업체 2,547명으로 대규모화되고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인센티브 투어 유치를 위해서는 개최지 결정권자들과의 유대관계 구축 등 유치기반을 조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인센티브 투어 시장 파악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정보가 부족하므로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시장 파악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지

시장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면서도 현지 기업과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현지인을 통한 유치활동이 효과적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 해외홍보사무소를 확대하여 활용해야 한다. 국내 인센티브 투어 유치 확대 및 기업회의와의 연계 또한 필요하다.

넷째, 일본의 인센티브 크루즈와 연계한 인센티브 투어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 크루즈 선사와 인센티브 투어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선상 세미나 및 제주에서의 인센티브 투어 연계 상품 기획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의 컨벤션 트래블 패키지(Convention Travel Package)나 싱가포르의 'Global Meet 2000 Campaign'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 집중 홍보하여 컨벤션 개최후보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컨벤션뷰로를 중심으로 컨벤션센터, 호텔, 국제회의기획업체, 항공사 등 관련업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유치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평화관련 국제회의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평화기반 국제회의의 시장을 세분화(국제회의/국내회의)하면, 학회·협회 회의(국내회의 및 국제회의), 기업회의(국내기업회의, 해외기업회의 및 다국적기업회의), 정부회의 및 정부산하기관회의(국내회의 및 국제회의), 전시, SMERF 회의, 이벤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9>는 국내·국제 학술대회개최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5-10>은 위에서 세분화한 회의 유형별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표 5-9〉 국내·국제 학술대회개최 현황

분 야	학회수	국내학술대회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				
		1회	2회	3회	4회 이상	합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합계
인 문	611	31	24	28	299	382	75	45	30	162	312
사회과학	782	38	33	23	354	448	81	61	49	167	358
자연과학	130	1	3	2	88	94	12	14	9	48	83
공 학	222	6	9	8	154	177	32	29	14	71	146
의약학	272	13	15	11	138	177	52	22	13	49	136
농수해양	76	1	4	2	46	53	10	10	9	24	53
예술체육	170	10	11	8	53	82	20	14	14	30	78
복합학	90	5	3	3	31	42	10	2	4	19	35
합 계	2,353	105	102	85	1,163	1,455	292	197	142	570	1,201

자료 : ICC JEJU 마케팅팀, 2006

〈표 5-10〉 회의 유형별 마케팅 계획

시장 구분	소속 주요학회	현황	마케팅 계획
국내 학술대회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대한의학협회 ●한국학술진흥재단 ●기타 주요학회	●매년 각 시도 주기적 개최 행사 제주방문 ●도내 모든 회의시설에서 각 규모에 맞는 행사유치 ●ICC JEJU의 경우 대규모 행사 개최에 적합 ●주요행사장 : ICC JEJU, 도내주요 특급호텔 및 주요리조트시설	●제주에서 정기·비정기적으로 2회이상 개최한 학회의 지속적 인 네트워킹 ●회의만족도를 높임으로서 재방문 유도 ●회의만족도를 높임으로서 구전 효과에 의한 제주인 지도제고 ●제주의 다양한 행사장 소 개를 통한 회의환경의 우수함 홍보
국제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대한의학협회	●기준에 구축된 네트워킹을 통한 행사유치 노력 ●국내학술대회보다 높은 가격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제주 유치 분위기 고조 및 제주의 컨벤션 환경홍보

학 술 대 회	●기타 주요학회	에서 행사 ●도내 주요 특급호텔요금 부담 ●라마다플라자호텔 타 특급호텔 대비 상대적 저가 전략으로 다수의 행사유치 ●ICC JEUU 대규모행사 주로 개최 ●주요행사장: 상동	●국내회의 개최경험 단체 판촉을 통한 국제학술대회 유치 ●국내학회동향파악을 통한 국제 행사유치 ●PCO를 통한 정보수집 및 국제 행사유치 ●국내 주요국제행사 참가 주요인사 초청팸투어
국 내 기 업 회 의	●대기업 및 전경련등록기업 ●보험사 ●다단계회사 ●주요 은행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효과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개최경향 ●일단 효과가 높을 경우 재방문 가능성 높음 ●호텔에서 수용가능한 규모의 행사는 호텔선호 ●대규모행사 및 개폐막식의 경우 ICC JEUU개최사례 많음 ●주요행사장 : 상동	●개최경험 회사 지속적 네트워킹 및 재방문유도 ●제주의 다양한 행사장 소개 및 선택의 폭 넓혀줌 ●제주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제도 소개 ●제주지역내 개최 경험없는 기업체 세일즈콜 및 홍보물발송 ●기존보유네트워크 활용한 정보수집 및 행사발굴
외 국 기 업 회 의	●다국적기업 ●주요다단계회사 ●해외 보험사 ●해외 주요 PCO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행사효과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개최경향 ●전세계적으로 동남아 지역 및 하와이가 고객들로부터 선호도 높음 ●매년 개최지 이동 및 순환 ●제주의 주요고객은 중화권에 소재한 소수의 다국적기업 ●제주의 주요경쟁도시는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 ●서울에서 행사개최 후 post-tour목적지로 제주선호 ●신라, 롯데 및 하얏트호텔의 경우 매년 다수의 행사개최	●무사증입국의 장점을 활용한 중화권시장 개척 ●해외전문전시 참가를 통한 네트워킹 확장 및 지속적 관리 ●제주를 방문한 바이어와 지속적 네트워킹 ●해외시장전담자를 대상으로 3년 이상의 판촉활동 필요

*자료 : ICC JEUU 마케팅팀, 2006

5) 평화관련 국제회의 유치에 위한 지원방안

(1) 현행 제주자치도 내에서 일반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따른 지원 추진 내용

가) 사업목적

- 국제회의 및 전시, 인센티브 등 국제 행사 유치 강화
- 타지역 컨벤션뷰로 및 센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회의 유치 증대

나) 추진방향

- 국제회의 및 전시, 인센티브 등 국제행사 제주유치에 필요한 제안서, 홍보물 등 제작지원
- 제주도내 국제행사 개최시 제주홍보 및 참가자 증대, 단골고객 확보 등을 위한 개최지원

다) 사업개요

- 사업명: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 사업기간: 2007. 6. 1. ~ 12. 31.
- 소요예산: 95백만원(2005년: 72백만원, 2006년: 8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한 제안서,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 등 유치지원 및 개최지원

(2) 평화관련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지원 추진 내용

가) 사업목적

- 제주평화의 섬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국제회의의 적극적 유치

- 국제회의 유치전략에 있어 '평화'라는 타겟시장 설정과 성과 실현

나) 추진방향

- 평화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관련 국제기구에서 개최 예정인 평화관련 국제회의의 제주유치에 필요한 제안서, 홍보물 등 제작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내 평화라는 핵심용어가 들어가는 국제회의에 대해 기존 일반적인 국제회의 지원에 들어가는 지원이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필요
- 이러한 정책은 결국 제주지역이 평화와 기업 인센티브형 국제회의 중심지라는 차별화된 브랜드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제6장 제주 남북경제협력사업

1. 인도적 지원에서 경제협력으로

1998년산 제주감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제주농산물 북한보내기운동은 금년으로 10년째가 된다. 이 밖에도 수해복구용품, 의류·의약품등을 제공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뜨거운 동포애를 북녘동포에 전해왔다. 북한당국은 이에 화답하여 제주도민대표단 방북 초청과 각종 남북회담과 행사 개최시 제주를 선호해 왔다. 대규모 대표단의 방북의 효시가 된 제1차 제주도민 방북(2002. 5)은 3차까지 이어져 남북사이의 인적교류를 활짝 여는 계기를 가져왔으나, 2004년부터 동남아의 탈북자 집단 입북 등으로 남북관계가 중단되어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대북교류에 대한 참여 열기를 냉각시켜온 게 사실이다.

남북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북한은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협력을 더욱 선호하게 되면서 도세가 큰 경기도, 전라남도 등이 적극 참여하면서 인도적 지원 중심의 제주도의 대북교류는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게 된다.

2006년부터 초보적 경제협력 형태인 ‘개성간마늘공장’에 제주마늘이 주로 공급이 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7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세계평화의 섬’에 걸맞게 평화협력과를 신설하고, 조례

를 통과시키는 등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변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북교류·협력사업 개발에 나서게 되었으며, 북한당국에도 교류·협력의 질적 발전을 제의하게 된다. 북한민족화해협의회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단된 제4차 제주도민대표단을 평양의 초청하면서 제주도와 북한사이의 교류협력의 새 국면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난 연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이 등장한 이명박정부는 남북한관계도 '실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이 원칙이 내포하는 의미는 다양하겠지만, 지난 10년의 남북관계를 '일방적' 그리고 '가는' 흐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서로 도움이 되고' 또한 '오가는'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실용적인 남북관계에서는 인도적 지원사업 못지않게 경제협력사업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제주도민 역시 지난 10년간 제주농산물 지원사업에 머물러 있는 제주도의 대북사업을 이제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분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10년의 평가

1) 감귤·당근 북한보내기 운동의 지속적 전개

(1) 사업의 출발

인도적 차원에서 제주도민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돕고자 국내외의 대북지원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1998년 제

주도와 농협이 북한에서는 기후조건이 맞지 않아 생산되지 못하는 감귤을 100톤 보내는 것이 발단이 되었다. 북한에 감귤보내기는 감귤의 과잉생산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적 적실성에 대한 감귤 농가의 지지와 협조로 가능했다. 감귤을 북한에 보내면 감귤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식량위기로 공통을 받는 북한 동포에게 도움이 되며 나아가 남북한 화해 무드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1999년 12월 ‘새천년맛이 북한에 감귤 보내기 제주도민운동’의 명칭으로 대량으로 감귤보내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감귤보내기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평화의 섬 제주’의 비전이 결합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상생·평화·공동번영의 가능성 모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의 추진은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종교계, 학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에 나서게 하였다.

(2) 범도민운동으로의 전환

감귤보내기운동이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북한당국과 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북한 당국도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시해 오면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범도민의 참여 속에서 2000년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에 이어 2001년에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로 개칭되었다.

민간운동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지원 규모의 증가로 인해 민관협력운동으로 전환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규모를 정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농·감협은 감귤의 수집·수매를 맡고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대북접촉과 남북협력기금의 신청과 집행 및 감귤 전달과 모니터링을 전담하였다.

(3)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감귤·당근 보내기 운동

감귤보내기운동은 2007년까지 10년 동안 매해 11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특히 2001, 2002, 2005년에는 당근까지 함께 보냈고, 북한어린이겨울내의지원과 목초종자지원 그리고 의약품 지원, 2006년과 2007년 북한수재 발생시 복구용품지원도 동시 추진되었다.

제주농산물북한보내기운동은 지속성의 측면에서 북한당국과 동포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와 화해 및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도 감귤보내기가 남북한 화해·협력에 이바지함을 인정하여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고 남북당국 간에 경색상황 시에도 이 운동이 이루어져 경색관계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여 외국 언론으로부터 '비타민C 외교'라고 평가받기도 하였다.⁴²⁾ 이 사업의 성공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⁴³⁾

42)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2002년 8월 24일자.

43) 홍재형, “화해·협력시대와 ‘제주도의 대북지원-교류사업’”(세미나 종합토론),” 고성준 외,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제주: 온누리, 2005), pp. 217-223.

〈표 6-1〉 남북협력제주특별자치도민운동본부의 대북지원 현황(2008년 1월 현재)

사업명	추진현황	지원기관 및 단체
감귤·당근 보내기	1998년산: 100톤(감귤) 1999년산: 4,336톤(감귤) 2000년산: 5,031톤 (감귤 3,031, 당근 2,000) 2001년산: 10,105톤 (감귤 6,150, 당근 4,000) 2002년산: 4,000톤(감귤) 2003년산: 7,500톤(감귤) 2004년산: 8,107톤(감귤) 2005년산: 10,049톤 (감귤 3,049, 당근 7,000) 2006년산: 4,360톤 (감귤 260만, 당근 4,100) 2007년산: 11,300톤(감귤)	통일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감협
북한 어린이에게 겨울 옷 보내기	2002년: 5,000벌 2004년: 600벌	광주 YWCA 민주평통 제주시협의회
목초종자지원	2003년: 2톤	남제주군 등
수해피해복구 지원	2006년: 4천만원 상당(건축용 자재) 2007년: 8천만원 상당(제주감귤주스)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지원	2004년: 14억원 상당 2004년: 13억원 상당 2007년: 500만원 상당	평화문제연구소 제주도의사회

2) 제주도민대표단의 북한방문

(1) 인도적 지원에서 대규모 인적교류로 발전

제주도민의 감귤 등 지속적인 대북지원에 대해 김정일 북한국방위 원장은 제주도민의 순수한 동포애에 고마움의 표시로 제주도민대표 단 방북 초청을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장관급회담 전금진 북한대표

를 통해 전해 왔다.⁴⁴⁾ 2001년 11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간에 제주도민대표단의 방북이 합의되었다. 이러한 제주도민 대표단의 방북은 지자체로서는 분단사상 최초의 대규모 인적교류로서 남북 민간교류·협회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게 되었다.

(2) 4차례에 걸친 도민대표단의 방북

4차례에 걸친 5박 6일의 제주도민 북한방문은 정부의 중재 없이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북한 민화협과 직접 협의하여 국적기를 이용, 제주-평양 직항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장을 비롯하여 관·민·학·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제주도민 대표단은 방북시 북한민화협 김영대 회장을 비롯하여 관계인사와 제주도와 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북한을 방문한 대다수 제주도민들은 북한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로서 화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피력했다.

지난 2003년 8월 이루어진 제3차 방북이후 4년여 동안 중단되었던 제4차 도민대표단의 방북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방북 체류시 향후 제주도와 북한사이의 경제협력과 관련 정치색 짙은 유적지 방문이 줄어들고 제주마늘 임가공사업의 연구센터인 정성의학종합센터 등 실용적인 일정이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남한의 지자체·민간 교류의 창구인 민화협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시 제주마늘임가공사업

44) 2000년 '6.15선언'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제주에서 열린 제3차 장관급회담의 북한수석대표인 전금진 내각참사가 회담전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만나 감귤지원에 대한 감사와 제주도민대표단 방북 초청을 내용으로 한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고 필자에게 회고했다.

의 발전방안과 제주양돈협력의 요청 등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 의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표 6-2〉 제주시민 대표단의 방북

구 분	1차 방북	2차 방북	3차 방북	4차 방북
인 원	253명	257명	256명	70명
일 정	2002년 5월 10 ~15일	2002년 11월 25 ~30일	2003년 8월 25일 ~30일	2007년 11월 12일 ~14일
방문지	평양, 묘향산 등	평양, 묘향산, 개성 등	평양, 백두산 등	평양, 묘향산 등

3) 초보적 경제협력사업: 제주마늘 개성탈피공장 준공

(1) 배경

중국산 마늘의 국내유입 증대 속에 국내마늘의 16% 이상을 생산하는 제주 대정지역 마늘 농가의 경우, 가격경쟁력과 갖추고 안정적인 유통구조 확보가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남한농민이 생산한 마늘을 북한 노동자가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손(깎)마늘”을 생산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를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남과 북의 ‘윈·윈’의 경제협력사업이 ‘(주)산과들 농산물’과 북한의 ‘정성제약’이 손잡고 시작하게 되었다. 개성에 1단계 마늘탈피공장이 준공됨으로써 중국산 마늘로부터 우리 마늘 농가를 살려 내고 북한경제에도 기여하는 일이 된 것이다.⁴⁵⁾

45) 『통일시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7년 3월호, pp. 28-31.

(2) 추진

2004년 '(주)산과들 농산물'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중재로 북한 '정성제약'과 개성에 마늘임가공공장을 설치운영 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하여 2006년 의향서를 작성하고 공장 착공하여 정상 생산에 돌입(10월) 하였다.

(3) 효과

제주 대정에서 생산되는 피마늘을 육로로 개성으로 가져와 북한 여성근로자들 손에 의해 탈피하여 '깎마늘'이 되어 다시 국내시장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남북원-원'의 농업경제협력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개성의 마늘임가공공장에는 개성주민으로 구성된 근로자 1500여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 수는 3000여명으로 늘 것이며 1일 20톤 생산에서 40톤으로 확대 생산예정이다. 그리고 2단계 공장을 이미 착공하여 마늘을 이용한 술, 식초 등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시작되었다. 제주의 마늘농가에서는 남북마늘 임가공협력사업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마늘 수매가격의 인상으로 수입이 증대되었다.

3. 제주도 남북교류협력 로드맵

2006년 동북아시아제주특위(위원장 고충석 제주대총장)는 도내의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 그간의 제주도의 남북교류를 평가하고 향후 제주도의 대북교류협력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주체는 제주도와 북한이며, 교류의 방향은 제주도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이 아니라 제주도와 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되어야 한다. 교류의 유형은 물질 교류와 인적교류로 대변하여 볼 수 있으며, 물질 교류는 대북지원, 협력사업, 교역 등으로 구성되며, 인적교류는 도민방북 등 사회문화교류 및 지역간 교류로 대변 된다.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와 북한 사이의 4가지 Type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⁴⁶⁾

〈표 6-3〉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로드맵

	물질 교류	인적 교류
남⇒북	I 감귤 및 당근 보내기 마늘까기 임가공 양돈사업 설비지원 가두리양식 제주특산물 홍보 및 판매 수해물자지원	II 도민방북 한라백두학술탐사 및 환경보존 백두관광 양돈기술지원
북⇒남	III 전시회(예술품 및 특산물 등) 교역(모래 및 특산물 등) 깐마늘 및 마늘건강식품	IV 전지훈련 공연 민족평화축전 남북가족쉼터 스포츠교류 한라관광 각종 남북회담 개최

* 본 로드맵은 동북아시아대 제주특위가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체제 구축 로드맵』(2006. 9)을 일부 수정한 것임.

46) 최용안, “남북교류의 구조적 특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북한연구학회보』, 제 11권 1호(2007년 여름), pp. 349-353.

제주도의 감귤 및 당근보내기 사업과 수해물자지원 등은 Type I에 해당되며, 제주도민대표단 방북사업은 Type II에, 개성에서 깐 마늘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은 Type III, 제주에서의 회담개최와 민족평화축전, 북한청소년 축구팀의 전지훈련 등은 Type IV에 포함된다. 제주도의 경우 타지자체가 Type I & Type II 수준의 사업을 추진해온 것에 비해 Type III & Type IV의 교류도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Type II에 해당되는 한라-백두공동사업은 북측의 사정으로 아직까지 성사되고 있지 않다. 제4차 제주도민대표단 방북시 양측이 2008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양돈지원사업은 Type I & Type II에 해당된다.

4. 향후 제주도 남북경협사업의 추진모색

1) 기본 방향

향후 제주도 남북경협사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초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경제와 제주도지역 경제의 '원-원'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대북지원의 '퍼주기'논쟁을 극복하고 '피로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향후 북한시장개척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남북경협을 참여를 통해 북한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고양시켜야 한다. 셋째,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를 조건으로 하는 '개발지원'을 구분하여 지원되, 장기적으로 북한뿐 아니라 제주도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택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경제력을 고려하고 북한

이 절실하게 원하는 지원분야를 파악하며, 이에 제주도의 비교우위를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제주도와 북한이 상호이득을 볼 수 있는 소규모 임가공사업 내지는 개발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경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제주기업의 개성공단 투자

(1) 개성공단 개관⁴⁷⁾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인력과 부지가 ‘비교우위’라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는 남북 상생의 경제사업이다. 현재 추가분양을 마친 1단계 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로를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양질의 저렴한 북측 근로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섬유·봉제, 가죽·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로 분양되었다. 2007년 12월 현재 65개 기업이 정상 가동 중이고 생산액 1억 8,477만 달러, 수출액 3,966만 달러, 북측 근로자 2만2,538명을 비롯 남북근로자가 2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금년 내 측량 및 지질조사를 시작으로 추진예정인 2단계 사업은 업종의 고도화를 달성, 수출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 2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3단계 사업 또는 제2의 남북협력 공단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1단계(2004~2007) 개발은 무관세 수출 가공구 성격의 공업무역형 경제특구를 지향하며 생산기능 중심으로 100만 명의 공업단지, 300여 업체, 고용인원 4만 3

47) 통일부, 『통일백서 2008』(2008), pp. 121-131.

천명을 계획하고 있다. 유치주력업종은 일반정공업, 노동집약업종, 해외수출 유망품목 섬유, 의류, 신발, 피혁, 가방, 식품, 음료, 전기, 전자 및 금속, 기계조립 등이다.

제2단계(2008~12) 개발은 첨단산업과 금융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국제비즈니스 기능 갖춘 중립형 경제특구를 지향하며 약 300만 명의 공업단지, 1000여 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연간 생산액 600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다. 유치대상 업종은 중화학공업, 첨단산업, 생명공학,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광산업 등이다. 배후 지역은 45만 명 거주 환경 친환경 신도시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연계하여 남북경제협력의 주요거점으로 개발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의 협력단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성공단 진출 모색

현재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인도적 지원에 있어 선두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개성공단 등지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이래 이루어짐을 감안 제주의 산업특성을 고려하고, 미래 시장개척의 교두보 확보라는 점도 감안, 추진해야 한다.⁴⁸⁾ 우선 개성시와 MOU 등을 체결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노하우를 지원함과 동시

48) 홍재형, “개성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력방안,” 고성준 외,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대북교류협력추진방안』, 제주특별자치도,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2007), pp. 90-92.

에 관광기념품 제작을 개성공단에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특산농업생산물인 감귤·녹차 등의 가공공장을 개성공단에 짓는 것과 제주가 가지고 있는 선진낙농기술의 지원을 목적으로 개성시의 협동 농장과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개성시와의 협력관계를 넓혀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마늘 임가공 사업의 업그레이드

마늘 임가공 사업은 대북인도지원과 남북경협이 결합된 최초의 성공적 모델이다. 또한 남북 최초의 일일 육로 운송사업이면서, 제주지역 마늘농가의 수익증대 기여 및 정성의학종합센터의 원료비 조달로 남북 상생의 모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차 가공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회사의 제반여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정부 또는 뜻있는 기업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 마늘원료 조달의 경제력 취약으로 시장가격 경쟁력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국내산 마늘을 이용한 단순 탈피의 제품임에도 통관 등에 있어 수출입규정 적용으로 인한 시간적, 물질적 손실이 매우 크다. 중국산 수입마늘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우선 당국과 관계기관 그리고 농가가 힘을 모아 ‘개성·제주마늘’ 브랜드화가 시급하다.

또한 약품과 건강보조식품 연구개발에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북한 ‘정성의학협력센터’와 협력하여 마늘을 이용한 약품 및 건강 보

조식품을 개발 추진하고 청정제주마늘의 우수성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먹는 마늘환, 마시는 마늘음료에 이어 주사제까지 등장하고 있다. 비타민 B1이 다량 함유된 농축영양제인 이 주사는 일본에서는 '귀족주사'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북한 정성제약에서는 '마늘 건강약주'를 개발했으며, '마늘식초'를 연구 중에 있다.

4) 제주산 양돈협력 사업⁴⁹⁾

양돈은 제주 축산업에 있어 비교우위가 제일 높고 제주 축산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양돈협력 사업은 일차적으로 북한주민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개발지원의 성격을 지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과 해외 수출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다. 제주도가 종돈과 양돈시설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점차적으로 북한주민들이 양돈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운영하게 한다. 그후 생산된 양돈은 개성공단에 판매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춰 러시아 등 주변국가로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북한에 비육농장을 짓고 제주도가 종돈을 제공하여 시범사업으로 비육돈을 생산하고, 2단계에서는 북한에 종돈장을 건설하여 북한이 스스로 양돈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돈협력사업은 2007년 '제4차제주도민대표단' 방북시(2007. 11. 12~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대표단과 북한 민화협회장단

49) 이영훈, "제주도의 대북경제협력방안," 고성준·이영훈 편,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경제교류협력 모색』(제주: 온누리, 2006), pp. 132-136.

과의 정책간담회시 요청된 사업이며, 2008년도부터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5) 제주도와 북한 사이의 물산전시회 및 특산물 구상무역

(1) 북한의 개성공단에 제주특산물 전시장 운영

남북 경제교류의 일변지인 개성공단에 제주특산물 전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홍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요 품목으로서는 감귤, 다금바리, 돼지고기 등 제주의 대표적인 산물을 전시할 필요가 있다.

(2) 제주도내 북한 예술품 및 특산품 상설전시장 설치

2003년 10월 민족평화축전 당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북한 예술품 및 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던 경험을 살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예술품에 대한 도민과 도내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의 예술품(그림, 서예 등)과 주류 및 농산품 등을 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3) 특산물 구상무역

최근 타 지자체의 물물교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주특산물인 한라봉과 옥돔, 감귤초콜렛, 감귤향수 등을 북한 특산물과 물물교환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⁵⁰⁾ 전북도 전주 약령시(藥令市) 제전위원회와

50) 진행남,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실천과제,” JPI Working Paper 07-11

북한의 개선총회사측은 2006년 전라북도산 쌀과 북한산 한약재를 맞교환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년전 제주 감귤과 북한 모래를 서로 교환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었음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무역이 이루어진다면 10여년 지속되는 제주도의 남북교류사업으로 인해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북한 지도층에게 파고들어 가는 효과가 클 것이다.

6) 제주도와 북한간의 관광협력사업

(1) 백두-한라 연계 관광

제주도민의 북한 방문은 제주-평양 직항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중 2회는 백두산 관광이 성사되었다. 제2차 남북 장관급 회담(2000년 8월)에서 합의된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 합의에 의해 남측 백두산 관광은 실현되었으나 북측의 한라산 관광은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합의한 서울-백두산 직항관광은 향후 제주-북한간의 관광협력사업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한라산 관광을 실현하고, 제주도와 북한간의 관광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하여 한라-백두 관광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⁵¹⁾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한라산 관광상품을 백두 관광과 연계하고, 사업 초기에는 외국인을 중

호, 제주평화연구원(2007), pp. 13-14.

51) 허향진, "제주도의 대북관광협력방안," 고성준·이영훈 편, 앞의 책, pp. 141-157.

심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추진방안으로는 향후 설립될 제주관광공사와 북한 조선국제여행사와 공동으로 해외 현지에서 관광 상품 설명회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북한 관광인력 연수사업

북한 관광부문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 전문성 제고, 현대적 경영기법 습득을 통한 소프트웨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관광인력 연수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북한의 관광행정인력 및 관광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연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초기에는 개성공단 내에서 연수 및 교육 실시하고 차후에는 제주도와 평양 등으로 연수 장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7장 기타 제주 평화사업

1. 평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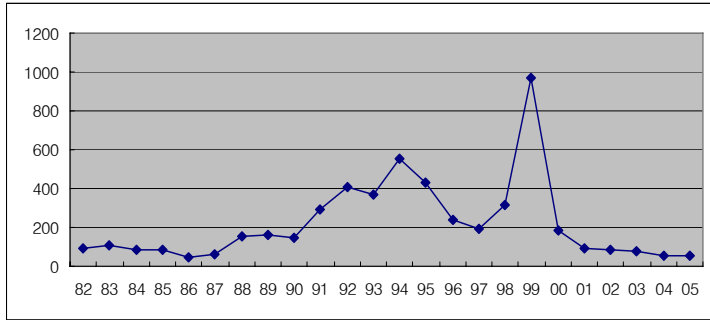
1) 폐교의 평화교육적 활용

(1) 폐교 발생 및 활용 현황

1982년 이후 2005년까지 분교장 개편 및 학교 통합운영을 포함하여 총 5,262개 학교가 통·폐합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676개교를 통·폐합하되,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확대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에 통·폐합되어 폐교가 된 곳이 30곳이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 및 학령기 아동의 감소 추세로 볼 때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⁵²⁾

관계 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에 따르면, 폐교 활용은 주민의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용시설, 수련원, 대안학교, 환경 교육장 및 지역사회학습센터로의 활용이 권장되고 있다. 평생교육

52) 교육인적자원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6).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 5.

〈그림 7-1〉 연도별 학교통·폐합 추이('82~'05)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1조).

폐교의 활용 방식은 현재 임대, 매각, 자체활용, 보존 등의 형태가 있으며, 새로운 재투자의 위험 때문에 그 활용 방안은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⁵³⁾

첫째, 임대 방식이다. 교육청 산하 관리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폐교는 유지 및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임대는 폐교를 사용하고 자 하는 임대자에게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임대료를 징수함으로써 해당 교육청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과 임대자가 적극적인 투자 활용⁵⁴⁾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53) 송월정, “폐교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6).

54) 단,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둘째, 철거 방식이다. 보통 노후화 되어 사용이 어려운 건물의 경우나 화재,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건물을 기존의 운동장 시설을 포함하여 본 건물을 철거한다.

셋째, 자체 활용 방식으로, 해당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해당 지역에 따라 수련장이나 학습장, 학교부지, 교직원 휴양소 또는 행정기관 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매각 방식이다. 폐교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에게 매각할 수 있다(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5조 1항).

마지막으로, 미활용 보존 방식이다. 현재 폐교가 된 학교의 활용 내역은 없으나 향후 몇 년에서 수십 년까지라도 사용의 기회가 있을 만한 폐교를 서정하여 보존하고 관리하는 경우이다.

현재 폐교 시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임대와 자체 활용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수련장이나 야영장, 개인 작업실 등의 창작실, 실험실, 자연학습장 등의 형태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물론 몇 가지 형태가 중복되어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 중 현재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은 각종 수련원, 교육시설(대안 학교, 각종 체험 활동) 및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지방자치단체,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 그리고 폐교가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인 이상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5조 5항).

〈표 7-1〉 폐교 활용 용도

분 류	사 용 용 도
경작지	경작지, 사료재배, 묘목장 등
수련원	야영장, 수련원, 체험 시설, 연수원 등
공공시설	마을회관, 노인정, 농수산물집하장 등
공장	농산물 가공공장, 가구 공장 등
교육	사립학교 실습지, 대안 학교 등
주거	주거, 고시원, 양로원 등
예술 활동	개인 작업실, 전시관 등
창고	창고
축산업	축산, 양계, 타조 사육 등
기타	영상매체 촬영장, 사무실 등

출처: 김성균 외, “폐교시설의 재활용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8권 3호(2001), pp. 15-24.

(2) 폐교 활용 사례

가) 푸른꿈 고등학교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푸른꿈 고등학교(www.purunkum.hs.kr)는 생태 교육, 평등·평화 교육, 노작 교육 및 공동체 교육 등을 표방하며 1997년 폐교 상태에 있던 진도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설립되었다. 오래된 공원, 작은 자투리 땅을 생태공원화하여 소공원 조성, 학생들에게 직접 관찰 및 사육할 수 있는 동물농장, 자생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뜰을 조성 등을 통한 녹색 교실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연의 공생원리 및 생태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들을 개발하는 등 통합 교육 영역을 특성화하고 있다. 적성별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계발

기회를 제공하며, 도자기 만들기, 가축 연구 및 생태 농업, 목공, 전통음악, 생태건축 등에 대한 실습과 특강, 야외 학습, 지역 탐구, 견학, 기행 등을 통해 활동교육을 강화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반딧불이 자연학교

1997년 폐교된 설천초등학교 청량분교를 매입하여 반딧불이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사육 시설을 설치(www.bandiland.or.kr 참조)하고 있다. 무주의 반딧불이 축제와 연계하여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반딧불이의 생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진, 그림 등 각종 자료들을 통해 반딧불이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⁵⁾

다) 경기도 웃다리 문화촌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체험예술 문화 공간인 경기도 웃다리 문화촌(www.wootdali.or.kr)은 2001년에 폐교가 된 서탄초등학교 금각 분교를 경기도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이 문화예술체험 공간으로 개조한 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서양화가, 도예가, 목공예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예술가들이 학교에 입주하여 학교를 예술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체험 교실로 운영하고 있다. 각종 공예 외에 창작 동요 교실, 천연 염색 프로그램, 우리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55) 신상섭, “농어촌 지역 폐교지 활용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식물·인간·환경 학회지』, 제3권 1호(2000).

고 있다. 또한 2007년 3월부터는 주말 농장을 열어, 각종 예술 체험 및 전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 레저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의 옛 물품들을 모아놓은 박물관과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 전통 놀이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⁵⁶⁾

라) 능길산골체험학교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한 능길마을은 농림부가 지정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농림부와 농협이 주최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연에서 대상, 농률협회로부터 2년 연속 ‘녹색경영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주말이나 방학 등을 이용한 각종 캠프가 개최되고 있다(www.nungil.org 참고). 이들 캠프에서는 폐교가 된 능길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자연 및 농장 체험 활동과 영어회화·듣기·작문·연극 발표 등의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 공부하면서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에 애정을 갖고 돌아가도록 한다는 의도에서 영어 교육과 연계한 각종 물놀이, 물고기 및 다슬기 잡기, 농장 체험 등 팜스테이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골체험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3) 제주도의 폐교 활용 현황 및 사례

현재 제주도에에는 30개의 폐교가 있으며, 이중 3곳을 제외한 27개 교가 자체활용 또는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폐교의 활용 방식은 활용 목적에 따라 크게 4가지 형태—행정 기관이 공립학교 및 교

56) 월간 마빠, “폐교로 떠나는 주말 여행,” 레인메이커커뮤니케이션(2007).

육청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교육 및 수련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박물관 및 전시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사회복지 및 공공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표 7-2>와 같다.

<표 7-2> 제주지역 폐교 활용방식

구분	활용방식
공립학교 및 교육청 시설	- 광령교 상전분교장(제주외국어고등학교) - 토평초등학교(서귀포시교육청) - 영천초등학교(온성학교)
교육 및 수련 시설	- 삼양교 회천분교장(친환경농업문화연구소 - 환경학교) - 장전교 금덕분교장(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수련장) - 무릉교 무릉동분교장(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 - 신산교 난산분교장(문화교육들살이 - 대안학교) - 풍천교 신평분교장(서귀포시 청소년수련시설) - 안덕교 대평분교장(서귀포시 청소년수련시설) - 화산초등학교(탐라스포텔) - 신산중학교(제주국제문화스포츠교육원) - 창천교 상천분교장(모록밭 목공예 교실)
박물관 및 전시시설	- 명월초등학교(몽생이 - 갈옷 연구 및 전시), - 용수초등학교(제주나비박물관) - 연평초등학교(우도자연사박물관) - 신산교 삼달분교장(갤러리 두모악 - 사진 전시) - 하천초등학교(제주화석박물관) - 신도초등학교(상경 도예 - 도자기 판매 및 체험) - 고산교 산양분교장(전가조형연구소 - 그림 및 작품 전시, 체험) - 보성교 구역분교장 - 신창중학교
사회복지 및 공공시설	- 조수초등학교(사회복지사업 - 자활사업 사업장 및 환경사업) - 판포초등학교(제주시 생활체육시설) - 가시초등학교(노인회관 + 자연사랑 갤러리) - 어도교 어음분교장
기타	- 무릉중학교(불광도원 - 선불교 종교단체) - 영락초등학교

미임대	- 추자교 횡간분교장 - 신도교 보흥분교장 - 보성교 신평분교장
-----	---

이와 같은 폐교 활용 방식 중에서 대표적인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화교육들살이 - 대안학교(www.dulsari.net)

성산읍 난산리 신산교 난산분교장 폐교지에 위치해 있고, 더불어 사는 삶 및 문화를 토대로 하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2002년 7월 개교한 기숙형 학교이다. 현재 학생 7명(초등과정 4명, 중등과정 3명)과 생활교사(학교에 상주하는 교사) 3명, 외부 강사 7~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의지를 존중해서 스스로 행복한 배움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체적인 삶, 즐기는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연과 학교와 인간이 조화를 이뤄 생활 속에서 해결력을 길러나가며 행복을 찾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나)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

대정읍 무릉리 무릉동분교장 폐교지에 위치해 있고, 1999년 겨울에 문을 연 이래 가족단위나 단체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MT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선사시대는 물론 과거 제주의 문화와 생태를 체험형식으로 배우고 느낄 수 있으며, 참가자들의 취향에 맞춰 돌담



출처: <http://local.naver.com/siteview/index?code=11577606>

〈그림 7-2〉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

쌓기, 초가집 새끼 꼬기, 도새기 오줌보차기, 허수아비 만들기, 고구마(감자) 구워먹기, 풀잎으로 곤충만들기 등 체험골 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계절별로도 여러 체험이 나뉘지는데 계절의 특성에 맞춰 쥐불놀이, 연 만들고 날리기, 도마뱀 잡기, 곤충관찰, 황토로 염색하기, 도리깨 타작, 맨발로 흙 밟으며 식물문양 뜨기 등 여러 체험활동이 이루어진다. 신도리, 무릉리 해안에서 구멍낚시, 해양동물 탐사, 철새 관찰 등이 이뤄지며 자전거로 떠나는 생태문화 탐사, 오름 및 습지 탐방 프로그램도 있다.

다) 제주화석박물관(www.jejufossil.co.kr)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하천초등학교 폐교지에 위치해 있고,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서는 외국의 화석을 시대별(고생대/중생

대/신생대)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다. 또한 특별실에 광물코너를 두어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광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2층에는 나무, 삼엽충, 해조류, 어류, 나뭇잎화석 등 국내의 화석들을 종류별로 전시하고 있다. 3층에는 나무 화석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야외/연못, 세계 최대의 나무뿌리 화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

라) 갤러리 두모악(www.dumoak.co.kr)

성산을 삼달리 삼달초등학교 폐교지에 위치해 있으며, 김영갑 작가의 제주 풍경 사진 전시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주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폐교지 활용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초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개인 작업실 또는 전시실로도 운영되며, 개인 사업자들에 의한 운영으로 인해 소규모 운영 및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소수(예를 들어, 갤러리 두모악)를 제외하고는 홍보 및 안내 부족으로 인해 인지도가 상당히 낮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곳도 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제대로 완비된 곳은 더욱 소수에 불과하다.

(4) 폐교활용 방안

가) 활용 기본 원칙

폐교 활용은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관계 법령(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준수 둘째, 제주

도의 특성이 반영된 평화교육적 관점에서 운영 셋째,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의 장점 활용한 평화산업 기지로서 육성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 즉 관계 법령과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교지를 각종 체험 - 수련 및 교육 시설과 문화예술 시설(박물관 및 전시관)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때 개인 작업실, 특정 단체 및 공장 등으로의 활용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소규모 및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공공 기관(교육청 및 도청)과의 연대 관계 형성을 통해 홍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활용 방안

폐교 활용에는 위에서 살펴본 유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용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체험·수련(청소년 캠프) 시설

현재도 특정 단체에서 체험학습장(수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그 활용은 한정되어 있다. 소득 증대 및 생활 여건의 향상으로 체험 및 수련 시설 관련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다. 현재 전국의 각종 학교에는 여러 종류의 청소년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1년에 2회 이상 체험·수련 활동을 하고 있다. 폐교지 시설 정비, 프로그램 마련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이들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제주도 고유의 생태 및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기본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UNESCO 세계자연유산(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답사 및 제주도
오름 등반
- 여름의 경우 해상 및 수중 스포츠 활동과 연계(스킨스쿠버, 요트
등 각종 해양 스포츠)
- 2차 대전 및 4·3 유적지 탐방
- 제주문화 체험(제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평화
캠프’의 테우 활용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등(옛 제주의 생활 체
험, 테우를 이용한 바다낚시)
- 자연 테마 체험(친환경 제주 농·수산물 상품화, 해초를 이용한
비누만들기, 천연 염색(억새, 감물) 체험)
- 이 때 일부 프로그램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② 요가·명상 센터 운영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폐교지의 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
여 개인 내의 갈등 치유 및 해소를 위한 요가 및 명상 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생태체험학습원(자연체험장)

경제력 향상으로 인해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증대되
고 있다. 체험여행은 즐거움과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의미가 강한 반
면, 체험학습은 체험하고자 하는 주제를 잡아 학습한다는 측면이 강
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의 체험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신 겨울 산골 체험 학교’에서는 정신지역의

정선레일바이크, 풍경열차, 화암동굴, 모노레일, 꼬마열차, 아라리촌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여 눈썰매, 눈싸움, 눈사람 만들기, 팽이치기 등 산골겨울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이해하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주만의 소중한 생태 및 문화의 체험을 통해 정신적·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태 탐사(오름, 꽃자왈 생태 체험 등), 목장 체험, 농사 체험 및 제주 전통문화 체험(제주 전통 음식, 갈옷 등) 등과 함께 감귤 체험, 제주 특산물 체험 등 농가 체험 프로그램, 농산물 직거래, 마을 돌담길 산책 등을 병행할 수 있는 팜스테이(Farm Stay) 프로그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주말 학교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확대에 따라 격주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말에 학생들의 여가 활동이나 지도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폐교를 주말 학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학습 부진아 지도 및 학습 공간보다는 자연을 접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한 개인적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⑤ 청소년 영화 캠프

청소년들이 영상이론 및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을

배우고 실제로 단편영화 제작을 체험하며 영상 편지 등을 제작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이야기를 만들고, 배우가 되어 연기도 하고, 촬영과 편집까지 각자 역할을 정해 영화 제작 및 영상 편지 제작을 체험할 수 있다. 제주도의 자연 및 생태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 체험과 영상 이론을 배우고 실제로 단편 영화를 제작하며 미래와 열정을 꿈꾸고 이에 대한 책임을 느껴 보는 특별한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과 우의를 증진할 수 있다.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대안, 청소년 영상문화를 통해 세대간 문화적 이질감을 개선 및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⑥ (교원) 휴양 시설

다수의 폐교는 경관이 수려하고 아늑하며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살려 휴양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도내 각종 호텔 및 펜션 등은 숙박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교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의 역사, 문화 및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생태 관광, 문화 및 역사 관광의 출발지로서 숙소 및 전시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연천 군에 위치한 대관초등학교 내산분교 폐교지에 숙박시설과 연수 시설을 갖춘 ‘경기도 교직원 연천 수덕원’(<http://www.goeyc.kr/suduc/>참고)을 1993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경기도내 교직

원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개설이후 매년 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도내 수요는 적지만, 전국 각지역의 교육청과의 자매 결연 및 홍보 등을 통해 폐교지를 제주도를 알리는 휴양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⁵⁷⁾

(5) 결 론

출산을 저하, 인구의 도시 집중,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교육인적자원의 정책적 의거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의거 앞으로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국적인 경향과 동일한 맥락에서 소규모 초등학교가 많은 제주도에서도 폐교가 많이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폐교지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거 그 방안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주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방안들은 지역적 특수성에 부합할 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폐교는 제주도 상황 및 여건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평화의 섬'을 추구하고 있는 제주도의 현실을 토대로 하여 평화교육 및 평화산업의 관점에서 그 숫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폐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평화 교육'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폐교 활용의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제주도의 문화, 환경 및 생태와 관련된 '체

57) 송월정, 앞의 글.

험 및 수련' 시설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지금까지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에 의해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활동과는 달리 공공 기관과의 연계이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형태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평화대학교로서의 피스아일랜드 스쿨

세계평화의 섬 정책은 평화문화의 육성과 인재양성의 차원에서 평화교육의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 제주지역의 평화교육은 제주 사회의 고유성을 감안하면서도 평화교육의 보편적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원 하에 도내 소재 대학교와 외국 대학 및 외국의 국제기구가 공동 참여하는 콘소시엄 형태로 학부와 석사 및 특별과정의 피스아일랜드 스쿨(Peace Island School)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1개월간 제주대학교와 보스톤의 서퍽대학교가 국제 거버넌스 스쿨을 운영하여 동북아시아의 가버넌스와 평화문화에 대한 국제평화교육을 최초로 시도한 바 있다. 12개국의 26명의 교수진과 미국 3명, 일본 1명, 스리랑카·필리핀·인도·러시아·중국 7명으로 외국인 학생 11명, 내국인 58명 등 69명이 참여했다.

2008년에는 제10회 세계섬학술대회(2008. 8. 25~29)와 연계하여 2008년 8월 11~30일까지 3주간 국제워크숍 형태의 전문가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과과정은 세계유산 다큐멘타리와 아일랜드 문화

와 환경의 이해 그리고 국제평화연구와 운동 및 현장 여행과 발표 등으로 구성되며 10개국의 22명의 교수진이 77명의 제주지역 공무원 교사 및 국내외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45시간의 강의로 계획되었다. 2009년에는 8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아시아평화연구과정,” “섬평화문화과장,” 그리고 “세계유산관리과정” 등 3가지연구과정의 15개 강좌를 시행하는 Peace Island School을 보스턴의 서퍽대학교 인문대학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국제섬학회 세계섬학회 미국의 피스아일랜드 파운데이션 등이 협력형으로 운영한다. 한 강좌당 4명의 강사진으로 팀을 구성하여 12시간을 강의하는 형식의 협력형 강의로 운영할 것이다. 정원은 각 과정당 60명씩 180명이며, 90명은 디프로마 과정이며 90명은 학위를 받는 석사과정이다. 피스아일랜드 스쿨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국제평화대학교 설립을 준비해나가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같은 대학에 서퍽대학교의 아시아 분교 설립을 상정하고 있다. 국제평화대학교의 교과 내용은 동북아시아 평화연구, 섬지역의 국제평화운동과 평화연구를 포괄하며 인권·안보·생태·문화·국제구호 등 전반의 주제를 다루고, Peace Island School은 학사·석박사과정과 디플로마 과정, 인턴과정으로 나누어서 모집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사회의 위상과 관련된 내용과 수요자 중심의 강의를 하며 외국인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에 평화연구의 창시자인 요한 갈통 교수 등이 이끄는 국제평화교육기관인 초월평화대학(Transcend Peace University)이나 노르웨이 오슬로와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평화연구소, 코스타리카의

유엔평화대학원, 제네바 평화대학원 및 미국 대학교 등과의 국제 교류를 통해 제주도가 추구할 평화교육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월평화대학은 3개월 15주 강의로 다섯 과목을 개설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평화수단에 의한 갈등해결론, 안보의 비군사적 확보론, 세계갈등형태와 비폭력론, 평화언론학과 평화와 예술 등 석사학위 수준의 협력형 강좌이다.

제주도의 경우 피스아일랜드 스쿨은 외국대학교와 협력하여 학부 과정과 1년 3학기 과정으로 석사 자격증을 주는 특수대학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한 학기는 오슬로의 평화연구소 등 국제기관에서 인턴 등 현장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2. 평화대공원사업

1988년부터 송악산 일대 전적지를 세계평화공원으로서의 전쟁의 기억을 넘는 평화공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민간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제주도는 2007년 모슬포전적시설 원형보존·정비 및 관람동선 확보, 교육·문화 체험장을 만들어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나서고 있다. 송악산 일대의 역사적 흐름으로서 1943년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최후의 거점으로서의 기억, 1950년 6·25 전쟁시 육군 제1훈련소 창설 운영하였던 한국전의 기억, 그리고 첫알오름 학살터과 백조일손지묘(132기)의 4·3유적지를 연결지어 평

화추구의 제주평화대공원의 구상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

평화대공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의 1,992천㎡(602천평)으로서 공군 소유의 국유지 1,981천㎡(599천평)과 사유지 11천㎡(3천평)를 포함하고 있다. 1차적인 유적지 복원정비는 대공포진지(4개소), 방공호(2개소), 격납고(20개소), 어뢰정보관소(15개소), 지하병커, 4·3학살터 등과 유도로, 활주로 복원 및 관람루트 조성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지원시설로 전시관, 교육실, 시청각실, 게스트하우스, 주차장 등이 이루어지는 9년간(2007~2015) 약 1,00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1단계는 평화테마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2007년 16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격납고, 지하병커, 4·3학살터 등을 정비하여 평화관광코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제평화센터 송악산 모슬포전적지 추사적거지 평화박물관을 연결하는 코스도 가능하다. 2단계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후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전적지 등록문화재 복원 및 정비 하고 문화관광부가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추어 제주평화대공원의 틀을 잡아 나가면서 미군 반환 공여지역까지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제주의 평화대공원사업은 캐나다의 매니토바주와 미국의 노쓰다코다 주 국경에 만들어진 국제평화공원(International Peace Garden)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1929년 헨리 무어(Henry J. Moore) 박사는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평화공존을 기념하고 세계평화예의 헌신을 표상하기 위해 이러한 제안을 했다. 그에 따라 1932년 부지헌정식이 이루어지고, 1934-1941년에 초기공사가 완료되었다. 국제평화공

원은 양측나라 자생식물들, 온실, 다양한 종류의 정원들, 라디오 방송국, 학교를 포함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되었다. 자금조달은 신문, 라디오, 연설을 통한 캠페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수로부터의 고액 기부보다는 다수 특히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여 ‘우리의 정원’을 표방하여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취하고자 했으며, 모금총액은 5백만 달러에 이른다. 국제평화공원은 1977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국제분쟁 해결 회담장소로 이용되었고, 인류의 위대한 야망과 숭고한 이상인 세계평화의 산 증인이자 비전창출의 장소로서 명소가 되었다.

송악산의 경우에는 섬과 문명, 그리고 제주섬과 서양문명의 만남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일제 침략의 아픈 기억이 있고, 백조일손지묘의 4·3역사가 있다. 제주도의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제주도의 평화의지를 구현하는 상징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관광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세계섬영화제

1) 필요성

한국에는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서울충무로 영화제 등 상당수의 영화제가 있다. 그러나 부산영화제처럼 국제적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영화제가 있는 반면 특징도 없이 스스로 도태하는 영화제도 있다. 세계섬영화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평화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제주영화제의 독립영화 및 애니메이션과 세계섬영화제의 아일랜드 다큐멘타리를 결합하고, 이를 평화문화를 주제로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섬지역 영화제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섬 사회의 평화문화와 생태의 자원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세계섬영화제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문화를 선도하는 제주영화제의 융합과 보완을 거쳐 제1회 세계섬영화제(World Island Film Festival: WIFF)를 2008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귀포의 롯데시네마와 서귀포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제적인 영화제의 방향모색에 나서게 된다.

2) 지역 영화제 사례

(1)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발상지인 부산을 영상문화의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기획된 영화제이다.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07년 12회째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억눌려 있던 아시아 영화인의 연대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은 '아시아 영화의 창', '새로운 물결', '한국영화 파노라마', '월드 시네마', '와이드 앵글', '오픈 시네마', '특별기획 프로그램' 등 7개로 짜여 있다. 기본적으로 비경쟁 영화제를 추구하지만 '새로운 물결' 부문만은 경쟁 프로그램이며, 시상 부문은 유일한 경쟁부문 상인 '최우수 아시아 신인작가상'을 비롯해 총 7개(선재상,

운파상, 공로상,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아시아영화 진흥기구상, PSB 영화상)로 나누어 시장된다. 북한과의 영화교류 모색, 오리엔탈리즘 극복, 아시아 영화의 발굴과 세계화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이다.

(2) 부천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는 1997년부터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온 행사로 우리 영화를 세계에 알리고 저예산 및 독립영화의 국제적 메카를 지향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수도권 축제의 이미지를 완성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테마는 사랑과 환상과 모험이다. 1회 테마가 사랑이었다면, 2회 때는 만남이었고, 1999년 3회 때는 관습 타파와 금기(터부)에 대한 도전이라는 데에서 보듯이, 열린 영화제요 대안 영화제로서 모색되었다. 1회 때 ‘접속’이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었고, 야간에 상영된 ‘킹덤’은 심야 상영의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판타캡션이라는 최첨단 자막 시스템을 도입해 경비와 자원 절감에도 성공하였다.

2회 영화제에서는 한국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래머와 질의 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통신 마니아들의 영화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사이버 판타스틱 영화제의 장을 열었다. 3회 때는 역대 영화제에서는 볼 수 없던 다양한 판타스틱 호러, SF, 스릴러 영화가 선을 보여 호황을 이루었다. 질 좋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물론 일반 관객과 감독 그리고 출연진이 함께 모여 강연과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한국영화, 할리우드 영화 등 각 나라의 대표작들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갖가지 기획 행사까지 참여할 수 있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3) 제주영화제

제주영화제는 틈이나 사이를 뜻하는 '트멍'이란 제주어를 이용한 트멍영화제로 2002년부터 제주지역의 영화인이 중심이 되어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영화제로 출발하였다. 2005년 제4회부터 제주영화제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향후 제주국제평화영화제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주영화제는 전국에서 약 400여 편의 작품 중 예선심사를 통해서 30~40여 편이 본선에 상영되고 부대행사로 회고전, 감독전, 심포지움이 열린다. 2006년 5월부터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제' 개최와 상시적인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모든 사업을 제주영화제로 총화하여 여름에 개최하면서 국제영화제로의 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독립영화제, 미장센영화제를 제외하면, 제주영화제는 지역에서는 가장 큰 영화제이다. 그동안은 주로 독립영화를 다루었지만 앞으로는 장편 상업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모든 장르의 영화를 다룰 수 있는 국제영화제로의 발전 방향을 잡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영화제는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제작자,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등이 참여하면서 국제영화제로의 발전을 모색해 왔다.

제주영화제가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자유로운 분위기와 사상이나 자본에 독립으로부터 독립된 영화제이다. 2007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열린 제6회 제주영화제에서는 '그녀의 은밀한 비밀', '가족의 발

견' 등 총 8개 섹션으로 30편(독립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큐멘타리)의 본선 진출작이 상영되었고, 트멍 섹션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제주인에 의해 제작된 작품을 선정, 우수한 4개의 작품을 소개했다. 또한 인터넷TV 곰TV(www.gomtv.com)를 통해 본선 진출 작 온라인 상영을 진행하였으며 네티즌들이 뽑은 '곰TV시청자상'을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2007년 5월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별도로 개최하여 초청작 등 30편이 상영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그러나 제주영화제의 분산 개최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2008년부터는 제주영화제와의 통합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제주영화제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타리의 영화제로서의 성과를 세계섬영화제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3) 세계섬영화제의 출범

국제섬학회의 레이버넷 박사는 2007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의 스코틀랜드의 아일랜드 다큐멘타리 영화제(June 15-17, 2007, The First Small Island Film Festival: SMIFF, Benbecula, Outer Hebrides, Scotland)를 개최하면서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2'(조성봉감독 작품)와 '무명천 할머니'(김동만 감독 작품)를 초청 상영하고, 이를 스코틀랜드의 '아일랜드 토리섬 해양영화제'와 '에딘버러 필름 페스티벌'에 소개한 바 있다. 영화제를 주관한 국제섬학회의 그램 로버트슨 박사와 레이 버넷 박사는 2007년 6월 27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자 7월 1일 제주

도가 이를 기념하는 세계섬지역의 다큐멘터리 대회를 2008년 세계섬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

2008년 세계섬영화제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학술적이고 다큐멘터리 중심의 영화제로서 7개국 12개의 평화문화 관련 필름을 상영하는 영화제로 제시되며 2009년, 2010년 및 2011년 역시 다큐멘터리 영화제로서의 섬의 평화문화와 평화음악 등을 소개 전달하는 학술영화제로의 방향을 잡아나가고자 한다.

세계섬영화제가 인구 150만명 미만의 세계 70개 섬 지역을 아우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평화영화제이자 평화문화와 평화자연을 담아내는 영상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과 국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앞의 영화제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제주도가 평화를 주제로 한 새로운 영상축제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08년 세계섬영화제는 해양지역의 평화문화(Peace Culture in the Ocean Societies)를 주제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및 '제주해녀 양씨'가 상영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로벤아일랜드가 아프리카의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세계유산 필름,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니아의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스코트랜드의 필름 등 세계 7개 지역 섬들의 평화자연과 평화문화를 드러내는 세계유산 등 12개의 필름을 상영, 새로운 출발을 알림으로써 세계자연유산 제주 섬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면서 세계섬 지역의 영화제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세계섬영화제는 2007년 6월 27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평화자연, 2010년 ‘제주 해녀와 일본 아마’의 UNESCO의 세계무형문화유산의 공동 등재의 평화문화, 2018년 제주 4·3 70주년 기념을 통한 “세계평화섬”으로서의 평화 진작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피스아일랜드스쿨의 국제영상워크숍과 강의 등을 정례화하면서 국제적으로 평화문화를 공유하고 확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의 평화예술을 기념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 소암 현중화, 이중섭 화백, 그리고 변시지 선생의 예술세계와 영화제의 연계 또는 결합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주영화제와 세계섬영화제가 향후 5년간 영화제로서의 국제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평화문화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한 해양지역의 평화문화의 발굴과 구축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서 제주 영상산업의 가능성과 국제영상인력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2012년 여수엑스포와 연계한 제주지역 주도의 세계섬영화제로 발전해 나간다면 해양사회의 평화문화의 진작과 평화산업으로서 블루 오션 개척에도 크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기대효과: 아시아 태평양 섬 지역의 세계섬영화제로서의 위상정립

2009년의 경우 세계문화올림픽이라 하는 델픽대회가 열리므로 2009년의 세계섬영화제는 세계섬지역의 평화문화의 공유를 주제로 한 영화제로 그 내용을 잡아야 할 것이다. 2010년의 경우 제주도의 해녀와 일본의 아마가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통한 문

화의 이해에 있으므로 아시아 태평양 섬들의 평화문화를 주제로 한 세계섬영화제를 매년 확대 개최하여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에서 제주지역의 영상산업의 전략으로서 섬과 평화의 결합으로서의 세계섬영화제의 가능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목표를 관철시켜 나갈 수가 있다.

세계섬영화제는 영화인 양성 국제워크숍과 국내강좌를 상례화하여 국제영상산업 육성의 국제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가동시킬 수 있다. 영상제의 제도화를 통해 평화교육, UNESCO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무형문화유산의 국제교육과의 연계 및 활용도 가능하다. 영화제 기간 중 섬평화상이나 4·3인권상의 국제적 수상을 개최할 수 있다면 세계평화섬 정책과 영상산업과의 결합이 가능할 것이다.

4. 세계평화재판소의 설립

국제섬학회장 그란트 맥갈 교수는 2007년 8월의 제7차 피스아일랜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갈등 및 분쟁 조정을 목표로 하는 국제 NGO로서 세계평화재판소(World Peace Tribunal)를 제주에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 섬지역과 인구 150만 미만의 작은 도시를 대상으로 분쟁 발생시에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토론과 평화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통해 해법을 권고하는 '평화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주 세계평화재판소는 상대적으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분쟁을 조정하며, 여기서 도출된 평결은 UN기구와 해당 당사국 등에 권

고될 수 있다. 국제법적인 판결을 내려 구속력을 갖게 하는 헤이그의 사법재판소와는 달리 섬의 평화문제 해결의 불문율에 근거한 대화와 토론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한다.

세계섬학회 ISISA 회장 그란트 맥갈 교수가 2005년 6월 22일 제주시의 평화도시네트워크 국제학술대회에서 제주도는 섬사회의 평화문화 원류를 대표할 수 있다는 인식(Nissological Perspective)을 제시하면서 섬 사회의 평화문화가 세계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2007년 제6차 피스 아일랜드 포럼에서 세계평화재판소 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이 2008년 8월 29일 제10회 세계섬학회(세계화하는 섬: 지속가능 문화, 평화, 자원, 그리고 이어도)에서 참가자 600명의 동의를 얻어 국제 비정부기구로 출범할 수 있다면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제주 세계평화재판소는 현장과 본부 설치 운영 규약 등을 마련하고 20명의 세계평화배심원을 위촉하여 5개의 분과 배심원 위원을 선정하게 될 것이다.

5. 평화저널리즘 사업

1) Peace Island Book Series 발간

제주 세계평화의 섬의 정당성의 근거는 제주의 역사와 자연 속에서 형성된 상생과 관용의 철학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제주의 평화사상을 추적하고 나아가 도서지역이 인류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지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동안 'Peace Island Book Series'를 발간하여 제주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이론과의 결합을 추구해야 한다.

향후 10년간(2008-2017) 100권(한글 50권, 영어 50권)의 총서 발간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총서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 생물권 보전지역과 유네스코 자연유산, 제주해녀의 역사와 삶, 제주4·3과 인권, 평화의 섬과 국제평화, 제주와 남북협력 등의 분야가 첨부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Peace Island Book Series의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세계평화의 섬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 둘째, 제주 역사와 자연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움으로써 국제관광의 기틀을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셋째,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국제적 연구의 근거를 제시한다. 넷째, 평화교육 및 평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로 활용한다. 다섯째, UNESCO 세계문화유산의 추가적 등재노력을 뒷받침한다. 여섯째, 제주한라산 일대와 서귀포 등의 생물권 보전지역(Biospere), 성산일출봉 등의 UNESCO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도서 출판을 통해 환경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관련된 국제기구 유치의 근거를 만든다. 2008년 8월 Peace Island Book Series의 제1권으로 한라산의 재발견과 제2권 제주도의 재발견이라는 영문책자를 발간하면 이 역시 의미있는 작업의 시작이 되리라 기대한다.

2) 국제저널의 발간

세계평화의 섬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섬과 도시들에 대한 평화와 평화문화를 주로 다루는 영문의 국제저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와 세계섬학회가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서 1998년부터 영문저널 Journal of Island Studies를 연 1회씩 4회를 발간해오다가 재정사정 등으로 발간이 중단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영문저널을 발간하던지 혹은 기존의 저널을 복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제주의 위상과 역할을 알리고 평화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3) 외국어 신문과 방송국 설립

2008년 8월 1일 Peace Island라는 국제잡지가 세계평화의 섬 정책 기관지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와 세계섬학회가 공동 발간한다. 이러한 국제평화 잡지가 나름의 기반을 구축한다면 이를 토대로 영어신문사와 방송국의 개원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처음에는 인터넷 교육방송국으로 운영하거나 기존의 방송국을 활용하여 영어를 주로 하는 방송국으로 전환하다가 점차 영어 신문사와 영어 방송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신문과 외국어 방송국은 제주 피스저널리즘의 견고한 하부구조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제8장 정책 대안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평화번영의 동북아구상’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하나의 목적을 두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평화를 주제로 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평화가 더욱 확산되어 나가는 평화번영의 선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으로는 평화의 창출-유지-확대에 기여하는 제반 영역에서의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그러한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건이나 혹은 결과적 부산물로서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평화의 창출-유지-확산을 중시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세계평화의 섬-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의 4가지 미래비전과 연관할 때 제주형 평화산업은 정치경제연계론, 제3의 길, 동북아 지향, 복합다기능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정책지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산업은 평화관광과 평화기반산업 그리

고 평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아름다움 발견으로서의 제주 삼려관광(三麗觀光)은 역사문화관광과 생태관광 그리고 평화크루즈관광으로 정립된다. 제주평화비전과 관련한 삼지산업(三持産業, Three Sustainability Industry)으로서 청정에너지, 국제금융업, 그리고 국제회의산업을 선정했다. 지정학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제시하고 또 세계평화의 섬의 토대로서 피스 아일랜드스쿨과 폐교의 평화교육적 활용을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이 프로젝트는 평화대공원 사업과 평화영상제, 세계평화재판소의 조직 그리고 평화저널리즘 사업을 문제의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삼려관광(三麗觀光)

1) 역사문화관광으로서 제주 4·3유적지와 여성생활사 유적지의 특성화

여성생활사 관련 유적지와 여성신화 관련 유적지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여성 관련 유적 사례의 설명을 토대로 역사문화관광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평화를 창출하는 진원지로서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역할에 알맞은 역사문화 관광의 성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 섬의 역사와 전통과 삶의 문화의 범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를 꾸리는 평화문화관광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2007년 시행된 제주 4·3의 역문화관광과 언론기관이 구축한 4·3평화관광을 여행자나 시민의 입장에서 재구성하고 평화역사와 문화현장을 연결시키는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갈등과 학살이 일

어났던 비극의 섬을 제주도민 스스로 역경을 넘어 스스로 해결한 평화시민의 현장으로 인식하는 '신사고'와 평화문화를 신자산으로 인식 활용하여 평화산업이라는 '신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문화관광적 내용을 개발하여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관광객이나 외국인의 눈높이 맞게 수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 생태관광의 평화관광으로의 승화와 관광객의 체험교육화

제주도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이고 문화적으로 섬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박물관이어서 평화관광의 최적지인 만큼 생태관광을 평화관광으로 승화시키고 관광객의 체험을 교육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지정의 국제적 인지도와 평가를 바탕으로 제주도 평화관광의 자원을 4·3, 군사기지,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오름 분포, 동굴 분포 등으로 분류하고 생태성을 기준으로 자연친화적 모델(예래동 생태마을)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가 평화 생태관광을 제시하려면 이를 제주도의 전체 지도로 표시하여 일반 시민, 관광객, 심지어 외국인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도적 표현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주 평화관광의 정체성은 일차적으로는 역사문화와 생태로 나누어 이슈별로 관광루트화를 시도하면서 중국에는 제주도의 역사문화관광과 생태관광의 연결에서 찾아야 한다.

역사문화에서 이슈별 관광루트 개발은 평화 유린(과거) → 평화 추

구(현재)로의 진화의 틀 속에서 일제 군사시설 → 평화박물관 → 4·3 유적지, 학살터, 잃어버린 마을, 4·3평화공원 등 → 제주국제평화센터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제주 역사이야기라는 틀로 제공한다.

생태에서의 이슈별 관광루트 개발은 환경 개발(전통/위락 관광) → 환경 친화(생태관광)의 틀 속에서 [관광단지(중문) → 골프장] → 오름, 꽃자왈의 훼손과 보전의 사례 → 예레동 생태마을 → 영천(유네스코 생태계 보전지역) → 한라산(유네스코 자연유산)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제주 생태 이야기라는 틀로 제공한다.

3) 평화 크루즈산업의 기간산업화와 크루즈 관광의 활성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의 자연적 여건, 개인소득 증대와 휴가중시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남북이 평화협정의 시대로 다가가는 상황에서의 정치·외교적인 여건의 안전성, 한국해양산업의 기술적 여건이 최고의 수준을 고려할 때, 제주의 평화크루즈산업은 평화의 섬 정책과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가져다 줄 가능성의 산업이 될 것이다. 관광유람선을 이용하여 평화관련 도시들을 순방하는 이른바 평화 크루즈산업은 태평양을 향한 관문인 제주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세계평화의 섬’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한 국내외적으로 평화의 섬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크루즈 산업은 세계평화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메카로 등장하고 있으며, 크루즈평화산업은 크루즈를 통해 남북한, 동북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상호교류

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제주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 기간산업이 되어야 한다.

크루즈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항 크루즈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통과여객 인정, 그리고 크루즈선 기항 전용부두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제주의 경우 입항 항구의 특성에 적합한 관광시설을 개발하고 배후 지역의 품물 및 관광자원을 포함하여 크루즈 선상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기준의 개선과 면세점 운영 등도 할 수 있는 등 법률적 지원 및 정비가 있어야 한다. 평화 크루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여건에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투자의 활성화 방안과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통한 민간유치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섬이므로 해양적 정체성으로서의 크루즈 관광과 평화의 섬을 연관지어 제주 평화섬 보트나 평화크루즈의 제안은 의미가 크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주, 오키나와, 남경, 대만의 4자가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움이 계속 개최되어 왔고 이를 계기로 4개 지역 평화운동가들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태이므로 이를 활용한 제주-오키나와-대만-남경의 평화 크루즈가 가능하고, 오키나와-제주-하이난-발리를 잇는 평화섬 크루즈도 가능하며, 제주해녀의 아시아 개척로를 연계시킨 제주해녀의 피스 보트 같은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세계섬학회는 2008년 북경올림픽과 연계한 해양관광상품으로 World Heritage Tour(서귀포항-성산포항-우도-해녀박물관), World Peace Island Tour(서귀포항-모슬포항-가파도-4·3평화공원)을 2008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기간에 제시하는데 서귀포항 (2002년의 UNESCO Biosphere)에서 출발하여 성산포항 (2007년의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을 경유, 우도에 도착하고 우도에서 하루를 지내며 제주해녀문화체험과 물질 학습과 해녀박물관 견학 등을 하는 내용으로 하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예약하는 형태로 하는 관광투어 패키지를 제안하고 실행한다.

2. 삼지산업(三持産業)

1) 동북아개발은행과 역외금융을 활용하는 국제금융의 신사고

금융과 같은 친환경 서비스업의 제주기지화 방안으로서 국제금융을 통해 제주와 세계가 연결되고 상호의존하며 상생하는 길을 찾는 데에 평화금융의 의의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은 제주도의 평화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나아가 경제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다.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인력, 물자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 제도이다.

제주지역 내 국제금융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막대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주지역 내 국제금융산업 육성이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역외금융업과 동북아개발금융에 특

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기존의 규제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의 동북아 금융허브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유치를 통한 동북아개발 금융허브의 건설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에도 부합된다. 한·중·일 3국을 주축으로 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과 동북아 금융허브의 건설은 북한, 극동러시아, 중국, 몽골 등 역내의 경제적 후진지역의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 그리고 한반도 본토와도 분리되어 있는 제주는 역내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립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어 동북아개발을 주도하게 될 동북아개발은행의 지정학적 최적지로 판단된다. 제주는 중앙정부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로서 국내외 규제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금융활동이 가능하고 역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정치 중립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제주도가 직접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부의 반대가 극심하여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이 동북아금융허브전략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려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서울금융센터와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서울금융센터를 보완 및 지원하는 소위 이원적인 금융허브이며, 따라서 제주국제금융센터는 단순히 제주만을 발전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국제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내 경제의 발전에 일조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역외금융센터 모두가 조세피난처이고 불법자금이 세탁되는 곳이라는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드시 불식시켜야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이 가능할 것이다.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서울금융시장을 보완하는 역외금융센터로서 처음부터 금융업무 전체를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제주가 시작한 선박등록 및 선박투자회사 유치 등 가능한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서울은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선도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로 육성하고 제주를 ‘동북아개발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 이원적 금융허브발전체계는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나라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외금융센터가 들어선 곳은 대부분 관광지이면서 섬이고 청정지역인데, 제주도 역시 이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여 입지적으로도 아주 좋다.

동북아개발은행이라든가 역외금융과 같은 국제금융의 평화 관련성에 못지않게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지원과 자영업의 활력 고치를 통해 평화를 증진시켜 나가는 제주형 평화복지금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업을 통한 자립’을 위한 서민금융의 확대와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 응용, 그리고 ‘무담보소액신용대출’ 확대와 휴면예금의 평화금융화 등을 통해 제주형 평화금융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추구할 때 그만큼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면모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2) 친환경 청정에너지산업: LNG, 풍력-태양광-바이오에너지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로서 청정성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청정한 제주환경을 보존하며 아울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추진과 더불어 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풍력, 태양, 수소·연료전지 등 제주형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중 육성하고, 제주 해역에 대규모 해양 풍력발전단지 건설하여 전력 자립 및 육지부 송출로 자주 자원 확충의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LNG 공급, LNG 발전소 및 제주-육지간 HVDC 등을조기에 추진해야 한다.

제주도의 풍속자원은 국내에서 가장 우수하며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 및 환경적 조건도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풍력단지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제주의 청정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산업의 부흥을 통한 미래 제주경제 활성화가 요구된다. 풍력발전시스템은 거대 토목 구조물이기 때문에 소음, 전파 장애, 경관에의 영향, 동식물에 대한 영향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현재 제주도내의 풍력산업에 대한 사회수용성 관련 민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환경과 조화하는 풍력발전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계획 초기부터 해당지역의 정보수집에 힘쓰는 것과 함께 주민과의 대화를 병행하면서 사업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바이오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중 유일하게 수송용 연료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개

발된 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증 공정의 구축 및 최적화를 위한 운전연구가 필요하다. 농어촌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에너지자립형 마을을 조성하는 제안도 제주도의 1차산업 비중을 고려하면 일면 타당성을 갖는다. 다만 바이오 에너지는 친환경이 장점이지만 경제성 면에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특히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은 제주도가 주목할 만한 에너지원이다. 제주도는 무공해 청정에너지 제공으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 및 유채 재배 확대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바이오디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원풍력단지, 월정에너지기술연구소 연구기지 및 육해상 풍력실증단지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내 청정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으로 중점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제주 자연경관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지중화를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제주도는 중장기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계획을 구축하고, 50호 규모의 분산전원 모델로서 그린빌리지 조성 내지는 해안가 어촌을 대상으로 한 소형풍력단지를 조성하며, 또 교육-홍보-연구 기능이 혼합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국제회의 산업의 전략적 육성

제주 국제회의산업이 '세계평화의 섬'의 기반을 조성하는 중추산업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관광컨벤션 조직을 통합하고 컨벤션통합마케팅 조직으로서의 컨벤션뷰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컨벤션산업의 체질 개선, 제주-인천노선 직항노선 증설, ICC JEJU의 역할 정립 등의 선결과제를 해결하여 컨벤션 사업과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컨벤션산업의 발전의 추동력은 양질의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컨벤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와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제주형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제주평화포럼은 2년에 한 번씩 정례화되어 동북아시아의 외교 안보 및 경제의 논의 장으로서의 목표를 추구한다면, 제7회를 맞는 피스아일랜드포럼은 인구 150만 세계 60개 지역의 섬나라 중심의 인권과 평화 포럼으로서 그 방향을 잡고 있다. 해녀박물관 개관기념으로 개최된 제2회 국제해녀학컨퍼런스에서는 2010년 일본의 아마와 제주의 해녀가 UNESCO의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며, 섬관광정책포럼 ITOP도 2006년 10회 대회를 넘어서면서 회원국의 10개국으로 늘어난 국제섬관광 정책포럼이 되고 있다. 2007년 6월 27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UNESCO 세계자연유산이 된 만큼 이를 기념하는 국제 컨퍼런스의 창안이 필요하다. 2010년까지 제주도 고유의 브랜드가 될 만한 국제회의가 최소 12개 이상 창립되어 1개월에 한 번씩은 제주가 중심이 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면 국제회의 산업에 기여할 것이다.

제주형 국제회의 산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평화와 기업 인센티브형 국제회의의 중심지라는 차별화된 브랜드 확보가 필요하다. 국제기구에

서 개최 예정인 평화관련 국제회의의 제주유치에 필요한 제안서와 홍보물 등 제작을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내 평화라는 핵심용어가 들어가는 국제회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인센티브 필요하다.

3. 남북한 교류협력

남북한 관계에서 평화와 경제는 따로 떼어놓고 접근하기보다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라는 선순환 지향이 바람직하다. 북한경제와 제주도 지역경제의 ‘원-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 경제협의를 통해 북한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를 고양시켜야 한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개성공단 등지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관광분야의 경우 개성시와 MOU 등을 체결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노하우를 공유함과 동시에 관광기념품 제작 등 단순 제조업 분야에서 개성공단 진출을 시도해야 한다. 주요 생산품인 감귤·녹차·상황버섯 등의 가공업 진출과 제주도의 선진 낙농기술 공유를 위한 북측 협동 농장과의 자매결연 등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늘 임가공 사업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이 결합된 최초의 성공적 모델이며, 남북최초의 일일 육로 운송사업이다. 제주지역 마늘농가의 수익증대 기여 및 정성의학종합센터의 원료비 조달로 남북

상생의 모델이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우선 당국과 관계기관 그리고 농가가 힘을 모아 '개성·제주마늘' 브랜드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양돈협력 사업은 일차적으로 북한주민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지원의 성격 지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과 해외 수출로 발전할 가능성 있다. 제주도가 종돈과 양돈시설 제공하고, 북한주민들이 양돈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향후 북한주민들이 자체적 양돈사업 통해 식량문제 해결하고 소득증대의 토대가 될 것이다.

2007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서울-백두산 직항관광은 향후 제주-북한간의 관광협력사업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한라산 관광을 실현하고 제주도와 북한간의 관광교류 협력합의서를 체결하여 한라-백두 관광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한라산 관광상품을 백두 관광과 연계하여 사업 초기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관광부문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 전문성 제고, 현대적 경영기법 습득을 통한 소프트웨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관광협력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기타 평화사업

1) 폐교의 평화교육적 활용

현재 폐교의 활용 목적에 따른 활용 방식은 행정기관·공립학교 및 교육청 시설, 교육 및 수련 시설, 각종 학교 및 수련 시설, 박물관 및

전시 시설, 사회복지 및 공공시설 등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폐교지 활용의 문제점으로 당초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개인 작업실이나 전시실로 운영, 개인 사업자들에 의한 운영 등과 같은 소규모 운영 및 영세성 등이 지적된다.

폐교의 평화교육적 활용 방안으로는 체험·수련(청소년 캠프) 시설, 요가·명상 센터 운영, 생태체험학습원(자연체험장), 주말 학교, 청소년 영화 캠프, (교원) 휴양 시설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에 의해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활동과는 달리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형태로 폐교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2) 국제평화대학교로서 피스아일랜드스쿨

2007년 제주대학교와 미국의 서퍽대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후원을 받아 International Governance School(2007. 7. 23~8. 22)과 2007년 제7차 피스아일랜드 포럼(2007. 8. 16~17)의 연계 운영에 12개국 27명의 교수진과 75명의 국내외 학생이 참여하여 국제평화교육의 가능성을 검증받았다. 이를 토대로 2008년 Peace Island School의 국제평화교육 워크숍(2008. 8. 11~30)을 제주대에서 개최하고 나아가 2009년과 2010년 제9차 및 제10차 피스아일랜드 포럼과 연계한 4주간 3개과정 15개 강좌의 Peace Island School(2009. 8. 3~8. 29) 학사·석사과정과 디플로마 과정을 운영 으로 발전시켜 2011년 국제평화대학교를 서귀포 지역에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한다.

3) 세계섬영화제

평화문화와 생태 자원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국제적인 영화제로서 세계섬영화제를 제안하며, 이를 위해 세계섬영화제와 제주지역 영화제의 협력이 요구된다. 2008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2007. 6 27)을 기념하고 제10회 세계섬학술대회의 제주 개최를 기념하여 '제1회 세계섬영화제: 해양사회의 평화문화'(2008. 8. 23-8. 27)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9년에는 세계문화올림픽의 틀 속에서 제2회 대회(2009. 8. 23-8. 28), 2010년에는 제주해녀와 일본아마의 유네스코의 인류문화무형유산 공동등재를 연계 제3회 세계섬영화제를 다큐멘타리와 독립영화 중심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서귀포 지역의 세계적인 예술가들인 추사 김정희 선생과 소암 현중화 선생의 서예와 이중섭 화백과 변시지 화백의 미술을 접목시켜 영화와 예술이 함께 가고 영상 제작의 국제인력 양성도 같이 하는 국제영화제로서의 가능성을 키워 제주영상산업의 기초공사에 기여해 나가면서 2012년 여수엑스포와 연계한 제주영상전략산업의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4) 평화저널리즘

향후 10년의 계획 속에 Peace Island Book Series 100권(한글 50

권, 영어 50권)을 저술·편집하여 평화의 섬 제주의 세계화는 물론 국제사회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영문국제잡지 Peace Island가 매년 발간되는데 이를 근거로 영자신문의 발간과 영어방송국을 개설하고 이를 평화저널리즘의 근거가 되도록 한다. 2008년 8월 제10회 세계섬 학술대회를 기념하여 한라산의 재발견과 제주도의 재발견 책자 발간은 의미있는 작업의 시작이 될 것이다.

5) 세계평화재판소의 설립

세계평화재판소는 2008년 8월 29일 제10회 세계섬학술대회의 세계평화재판회의(세계화하는 섬: 지속가능 문화, 평화, 자원, 그리고 이어도)에서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국제 비정부기구로 출범하고 2009년과 2010년 제9차 및 제10차 피스아일랜드 포럼의 틀로 운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세계평화재판소는 섬지역의 평화적 문제해결의 전통에 근거하여 세계섬지역과 동북아시아 갈등과 분쟁 문제를 논의하여 평화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제적 규범을 제시하고 국제적 문제해결을 추구해 나가면서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유엔기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9월 사무국이 서귀포에 설립되고 섬 사회의 지속가능성 연구 분과와 평화전통 연구 분과를 설치·운영하여 세계평화재판소의 과제를 연구하고 제시해 나갈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6) 평화대공원

제주도는 2007년 모슬포전적시설 원형보존·정비 및 관람 동선 확보, 교육·문화 체험장을 만들어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나서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송악산 평화대공원 사업은 섬과 문명 그리고 제주섬과 서양문명의 만남의 역사 그리고 일제 침략의 기억과 전쟁의 기억, 백조일손지묘의 4·3역사까지 아우르는 세계 평화섬가든(World Peace Island Garden)이라는 종합계획 속에서 단계적인 공원조성의 단계를 거쳐 아일랜드 평화비전의 실현될 수 평화공원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게 단계적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강창언·이경효, 『제주전통도예』, 제주: 가시아히출판사, 2000.
- 고경남·허종철, 『풍력공학입문』, 서울: 문운당, 2006.
- 고대경, 『神들의 고향』, 서울: 증명출판사, 1997.
- 고병현,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정치교육과 가치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고성준 외, 『동아시아와 평화의 섬 제주』,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2004.
- 고성준 외,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연구총서1, 제주: 온누리, 2005.
- 고성준 외,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대북교류협력 증진방안』,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연구총서 3, 제주: 온누리, 2007.
- 고은경, “제주도의 오름 생태관광 해설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고호성,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본 평화운동과 동아시아,” 『제주4·3과 동아시아 평화운동』, 제주4·3 제56주기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2004년 3월 27일.
- 교육인적자원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김건훈 외 12인, 『대체에너지 발전단지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2004. 12.
- 김범훈, “제주도 용암동굴의 보존 및 관리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상윤·윤여창·이선경, “미국 국립공원내 환경교육 시스템의 실제,” 『환경교육』, 제11권, 1998.
- 김상현 저, 김희동 역, 『남사록(南槎錄)』,永嘉文化社, 1992.
- 김선희,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정보』, 1995.
- 김성균 외, “폐교시설의 재활용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8권 3호, 2001.
- 김성일 역, 크레그 린드버그·도날드 호킨스 저, 『생태관광: 계획과 관리 지침』, 서울: 일신사, 1999.
- 김태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03.
- 南濟州郡, 濟州大學校博物館,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1996.
- 남제주군, 『남제주군 固有地名』, 1996.
-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제주특위,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로드맵』, 2006.

- 동북아시아위원회 제주특위·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제주평화비전과 평화산업』, 2007.
- 산업교육연구소, 『2008 신재생에너지 기술/시장과 사례 및 사업화 전략 세미나: 태양열·태양광·바이오·풍력에너지』, 2007. 12.
- 서구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도시마케팅,” 『비즈니스저널』, 2005년 9월호.
- 송성대, 『제주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도서출판 각, 2001.
- 송월정, “폐교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수소·연료전지사업단, 『수소·연료전지 사업단 Workshop 및 패널 토론: 수소·연료전지 산업화 방안』, 산업자원부 수소·연료전지사업단, 2005. 6.
- 수소·연료전지사업단, 『수소경제 지향 국가 Vision 및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산업자원부 수소·연료전지사업단, 2004. 7.
- 신동일, 『제주형 생태관광 개발의 방향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01.
- 신상섭, “농어촌 지역 폐교지 활용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지』, 제3권 1호, 2000.
- 오정준, 『지속가능한 관광의 이론과 실제: 제주사회와 제주관광의 변화』, 서울: 백산출판사, 2004.
- 월간 마빠, “폐교로 떠나는 주말 여행,” 레인메이커커뮤니케이션, 2007.
- 윤정인·양영명·설원실·김재돌, 『에너지시스템』, 서울: 태훈출판사, 2000.
- 이강후, 『새로운 성장동력 대체에너지』, 서울: 북스힐, 2007.
- 이근혁, “평화교육이념에 비추어 본 한국교육의 과제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병윤, “자금세탁방지 FATF 가입추진현황,” 금융연구원 주간브리프, 2007. 12.
- 이상우, 『럼멜의 자유주의 평화이론』, 서울: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2.
- 이영훈, “제주도의 대북경제협력방안,” 고성준·이영훈 편,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경제교류협력 모색』,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연구총서2, 제주: 온누리, 2006.
- 이장춘·송재호, “또 하나의 섬 관광: 생태정치학적 접근,” 『관광정책학연구』, 제5권 제2호, 1999.
- 이형상,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남한박물』. 영인본
- 정영재, “광주·전남지역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주최, 『2007남북정상회담평가와 지역의 남북교류협력 증진 방안』 세미나 주제 발표문집, 2007. 11.
- 제민일보 꽃자왈 특별취재반, 『제주의 허파 꽃자왈』, 제주: 도서출판 아트 21, 2004.
-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제주 4·3 유적지 기행』, 서울: 학민사, 1998.

- 제주대학교 국제금융연구센터 ·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 제주금융포럼 주관 국제세미나, 『외국역외금융센터의 성공사례와 제주국제금융센터가 나아갈 방향』, 2007. 4. 21.
- 제주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005. 12.
- 제주도, 『제주의 오름』, 1997.
- 제주도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진흥 기본계획: 기본과 기초의 확립』, 2000.
- 제주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의 인문지리』, 2006.
- 제주민예총, 2007년도 ‘제주 4·3 사건 59주년’ 기념행사 유인물 및 팸플릿.
- 제주발전연구원 · 한국채권연구원,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2006. 10.
- 진행남,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실천과제,” JPI Working Paper 07-11호, 제주평화연구원, 2007.
- 청와대, “청와대 새소식”(2005. 1. 27.)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1c19d67877224231c7e162b&sso_id=1d2945d380b044e179d89a6988217ff3
- 최용복,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국토연구』, 제36권, 2003.
- 최용안, “남북교류의 구조적 특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1호, 2007년 여름.
- 최재우, “뉴질랜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2004.
- 태양광사업단, 『태양광 발전 국가 Vision 및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산업자원부 태양광사업단, 2004. 12.
- 태양광사업단,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산업자원부 태양광사업단, 2005. 12.
- 통일부, 『통일백서 2008』, 2008.
- 한국관광공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1998.
-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지역의 국제금융산업육성방안에 대한 검토』, 2006. 6.
-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의 UN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국가리더십 제고 및 IT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KPOPRA 연구 2006-25, 2007. 4.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지질 여행』, 2003.
- 한림화, “제주여성의 삶의 기록,” 『북제주군지』, 1999.
- 한림화 · 홍정순, 『제주해양문화컨텐츠로서 개발 가능한 문화 현황』, 2006.
- 『旌義郡邑誌』, 1899.

- 허종철 외 10인,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풍력발전사업(개발사업) 승인기준 수립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2007. 8.
- 허향진, “제주도의 대북관광 협력방안,” 고성준·이영훈 편,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 경제교류협력 모색』,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연구총서2, 제주: 온누리, 2006.
- 홍양호,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협력 현황과 추진방향,” 『KDI북한경제리뷰』,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7.
- 홍재형, “개성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력방안,” 고성준 외,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대북교류협력추진방안』, 제주특별자치도,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2007.
- 홍재형, “화해·협력시대와 ‘제주도의 대북지원-교류사업’(세미나 종합토론),” 고성준 외,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제주: 온누리, 2005.
- 황석규, “전쟁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이동, 배치, 편제, 전략 등에 관한 군사사회사적 의미,” 『사회와 역사』, 제72집, 2006.
- 『아시아인 월스트리트저널』, 2002년 8월 24일자.
- 『통일시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7년 3월호.

갤러리 두모악(<http://www.dumoak.co.kr>)

경기도 연천교육청(<http://www.kgyce.go.kr>)

네이버 블로그(<http://local.naver.com/siteview/index?code=11577606>)

능길산골체험학교(www.nungil.org)

문화교육들살이(<http://www.dulsari.net>)

반딧불이 자연학교(<http://bandiland.or.kr>)

제주화석박물관(<http://www.jeufossil.co.kr>)

제주역사/문화/예술(<http://culture.jeu.go.kr/contents/?mid=0207>)

제주의 소리(<http://jeusori.net>)

제주사이버 삼다관(<http://jeusamda.com>)

푸른꿈 고등학교(<http://www.purunkum.hs.kr>)

피스보트 홈페이지(<http://www.peaceboat.org/english/index.html>)

- Anson, Caroline, “Planning for Peace: the Role of Tourism in the Aftermath of Viol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8, 1999.
- Byles, P. “The Cayman Islands Story: How One of the World’s Leading Offshore Centres Struck the Right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Commercial Success to Maintain its Competitive Edge,” 제주대학교 국제금융연구센터 ·

-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제주금융포럼 공동주관 국제세미나, 『외국 역외금융센터의 성공사례와 제주국제금융센터가 나아갈 방향』, 2007. 4. 21.
- D'Amore, Louis, "Tourism: the World's Peace Industry,"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27, 1988.
- Galtung, J., "Peace," in 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1, 1968.
- Higgins-Desbiolles, Freya, "Reconciliation Tourism: Tourism Healing Divided Societ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vol. 28, 2003.
- Hein, Laura & Mark Selden(ed.), *Islands of Discontent*,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3.
- Kelly, Ian, "Introduction to Peace through Tourism," IIPT(International Institute for Peace through Tourism, <http://www.iipt.org>), Occasional Paper, no. 1, 2006.
- Litvin, Stephen, "Tourism: the World's Peace Industry,"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7, 1998.
- OECD, "The OECD's Project on Harmful Tax Practices: 2006 Update on Progress in Member Countries," 2006.
- Pedersen, Arthur, *Managing Tourism at World Heritage Sites: a Practical Manual for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2.
- Poyya, G., "Promotion of Peace and Sustainability by Community based Heritage Eco-cultural Tourism in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Peace*, vol. 19, 2003.
- Rummel, R. J., *In the Minds of Men: Principles Toward Understanding and Waging Peace*, Seoul: Sogang University Press, 1984.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자료,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Republic of Korea, <http://whc.unesco.org/>
- World Trade Organization, *Guide for Local Authorities on Developing Sustainable Tourism*, 1998.
- "News Analysis," *The Economist*, Feb. 24 2007.

■ 집필진(가나다순)

고성준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고창훈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상철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교수
박상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종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양길현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장원석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림화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허종철	제주대학교 기계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허향진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

-기회와 도전-

2008년 5월 13일 초판 발행

집필진 제주발전연구원

펴낸이 김홍국

펴낸곳 도서출판 보고사

등록 1990년 12월(제6-0429)

주소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7가 11번지

전화 922-5120~1(편집부), 922-2246(영업부)

팩스 922-6990

홈페이지 www.bogosabooks.co.kr

메일 kanapub3@chol.com

ISBN 978-89-8433-651-3 (93300)

정가 12,000원

잘못된 책은 교환하여 드립니다.